

이육사의 사상의 기원

- 새로 찾은 『조선일보』 기자 시기 이육사의 글을 중심으로 -

홍석표*

〈차 례〉

1. 머리말
2. '大邱支局 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 및 '大邱支局 一記者'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방시론' 「收穫期를 앞두고 地主들에게」
3. 세 편의 기명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
4. 중국 동포의 귀환에 관한 기사와 '지방인사의 의견'
5. 소작 농민의 처지와 지주의 횡포에 관한 기사
6. '침예화'·'급각도'·'번농'이라는 어휘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 방면의 기사
7. '가가(假家)살이' '궁민(窮民)'의 철퇴와 관련된 기사
8.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이육사가 군사정치간부학교에 입교하기 이전 그의 사상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폭풍 같은 나의 생활'로 표현한 그의 언론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그가 기명으로 발표한 '지방시론' 1편을 새롭게 발굴하는 한편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명의 다양한 대구발 기사를 세밀하게 조사 검토하였다. 그 시기 『조선일보』에 게재된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를, 기존에 확인된 이육사의 기명 기사와 새로 찾은 '대구지국 이활'이 쓴 '지방시론'을 비롯하여 여타의 이육사 작품(시, 수필, 평론, 번역)과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내용, 어휘, 글투, 문체상의 특징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기사 49편을 판별하고 그것이 이육사가 작성한 것임을 추정했다. 이육사는 당시 주로 사회·경제 방면의 사건을 담당하여 취재 활동을 하며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폐한 농업·경제 상황과 민중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 나아가 대구의 자랑거리나 민족

*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파멸의 농촌 현실과 소작농민의 비참한 처지, 양조업계 종업원 및 가가(假家)살이 궁민 등 도시 근로자와 도시 빈민의 궁박한 상황, 만주에서 쫓겨난 피난 동포의 불쌍한 형편 등, 일제(日帝) 치하 고통받는 일반 민중의 참상과 그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더욱이 그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소작농 및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의 이러한 취재 활동과 기사 작성의 실천은 나중에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시야를 넓혀 중국과 세계의 정치·사회·경제 상황과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시사평론을 집필하고 중국의 문예 작품을 비평·번역하게 된 사상의 토대가 되었다. 이들 기사는 이육사의 사상이 단순히 특정한 사회이론이나 정치이념을 추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곧바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이육사는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접근해 민족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 관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나간 것이다. 그렇기에 새로 찾은 이육사의 기명 기사 및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다양한 무기명 기사들은 그 시기 이육사의 시대 인식과 현실 의식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바, 이육사의 사상의 기원을 밝혀줄 수 있다.

[주제어] 이육사, 조선일보, 새로 찾은 기사, 민족의 현실, 민중의 삶, 사상의 기원

1. 머리말

일제강점기에 가장 치열한 삶을 살아간 민족저항 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육사는 1930년 2월부터 1932년 3월까지 『중외일보(中外日報)』와 『조선일보(朝鮮日報)』의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하면서 신문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일보』를 퇴사한 후 1932년 10월 중국 난징(南京) 근교에 설립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이하 군사정치간부학교로 줄임)에 입학하여 1933년 4월에 졸업했으며, 귀국 후 1934년 9월부터 1936년 8월까지 「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政情)」, 「국제무역주의의 동향」 등 중국과 세계의 정치·사회·경제 상황과 동향을 분석한 시사평론을 주로 발표했다. 그 후 이육사는 시와 수필을 창작하고 문예비평과 번역을 시도하면서 이른바 시인으로서 활동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육사의 글을 양식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자면, 그가 1930년 2월부터 1936년 8월까지 발표한 신문 기사나 시사평론은 저널리즘적 글쓰기에 해당하며, 그 이후에 주로 발표한 시와 수필 및 문예평론과 번역은 문예적 글쓰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육사는 시와 수필을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이전에 주로 저널리즘적 글쓰기에 매진한 것인데, 그동안 이육사는 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어 기자나 시사평론가로서 그의 활동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중외일보』 및 『조선일보』 기자 시기 그의 언론 활동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¹⁾

이육사는 1930년 2월부터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하다가 1931년 8월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자리를 옮겼고, 이듬해인 1932년 3월 『조선일보』를 퇴사하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²⁾ 대략 2년 동안 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중국으로 건너간 이육사는 『중외일보』 대구지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세주(尹世胄)를 만나 그의 권유로 1932년 10월 20일 군사정치간부학교에 제1기생으로 입교하여 6개월간 교육받았다. 귀국한 이후 그는 1934년 5월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대구지국에 파견될 예정이었으나 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 전원 검거로 인해 일경(日警)에 체포되었고, 동년 6월 23일 기소유예 의견으로 석방, 8월 31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2년 동안 중국과 세계에 관한 시사평론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이력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육사가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발표한 시사평론이 당시 중국과 세계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예리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³⁾ 이들 시사평론이 담고 있는 내용의 깊이와 사상적 관점을 볼 때, 그것

1) 최근에 『중외일보』 기자 시기 이육사의 언론 활동에 관해서는 일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바 있다. 홍석표의 「이육사의 『중외일보』 기자 시기의 언론 활동과 고향 상실의 문학적 모티프」(『상허학보』 64집, 상허학회, 2022) 참조. 이육사는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할 때, 1930년 7월 대구 팔공산 지역에 발생한 초유의 폭우 피해를 보도한 「축일발로(逐日發露)되는 참해비극(慘害悲劇) 사망불명인원육십명(死亡不明人員六十名)」라는 기사를 기명으로 발표한 이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기사를 무기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2) 「李活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國史編纂委員會,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7), 152쪽 참조. “소화 4(5의 오기 - 인용자)년 5월부터 대구의 중외일보 지국 기자가 되어 약 1년간 근무하고, 소화 6년(1931년) 8월부터 조선일보 지국 기자로 전직했으나 소화 7년(1932년) 3월에 퇴사했다. 4월 하순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소화 8년(1933년) 7월 15일 경에 귀선(歸鮮)하고, 최근 조선일보 대구지국 특파원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이육사가 2년간 집중적으로 발표한 시사평론은 「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1934. 9), 「국제무역주의의 동향」(1934. 10), 「위기에 임한 중국 정국의 전망」(1935. 1), 「1935년과 노불관계 전망」(1935. 1), 「공인 '쟁' 단 중국 청방 비사 소고」(1935. 3), 「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

은 이육사가 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받은 교육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시사평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글 중에서 상당히 돌출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군사정치간부학교 입교 이전에 형성된 이육사의 사상을 좀 더 실제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사실 이육사는 군사정치간부학교 사건과 관련하여 1935년 5월 15일 경기도 경찰부에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군사정치간부학교 입교 당시 교관이던 윤세주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윤세주가 자신에게 “제1기의 교관으로서 정치학을 담당해 주지 않겠느냐고 했으므로 나는 생도로 입학했으니 생도로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거절하니”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윤세주가 이육사에게 ‘정치학’을 강의하는 교관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은 이육사가 그 방면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군사정치간부학교 사건으로 구속된 이육사는 1934년 6월 23일 경성 본정(本町)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1932년 4월 하순 중국으로 건너간 것과 관련하여 “중앙일보 지국 설치 겸 취직을 목적으로 평톈(奉天)에 갔고, “아는 사람인 원 중외일보 기자였던 윤세주와 만나서 함께 텐진(天津)·베이징(北京) 방면으로 가서 구직 중” 윤세주로부터 군사정치간부학교의 입교를 제의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⁵⁾ 그런데 이육사는 이보다 앞서 1934년 6월 17일 경성 본정(本町)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조선일보』를 퇴사하고 “베이징(北京)으로 가서 자오스강(趙世綱)을 방문하여 약 3주간을 체재하면서 취직운동을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한편으로 김원봉(金元鳳)의 주의에도 관심을 가지고 결심하여 다시 텐진(天津)으로 돌아와서 윤세주(尹世胄)를 만나서 입대의 결의를 말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⁶⁾ 이러한 진술에서 이육사는 군사정치간부학교 입교 당시 자신의 사상 경향을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1934년 7월 20일 안동 경찰서에서 작성한 「이원록(李源祿) 소행조서」에는 “대구에서 中外일보·中央일보(‘조선일보’의 오기 -

(1936.4), 「중국 농촌의 현상」(1936.8)이다.

4) 「증인 李源祿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1』, 國史編纂委員會, 1997, 190쪽.

5) 「의견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 國史編纂委員會, 179쪽.

6) 「李活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 國史編纂委員會, 153쪽 참조.

인용자) 지국의 기사를 거쳐, 소화 7년 4월에 다시 만주를 갔으나 그 뒤에 소재불명이어서 요주의 인물로 수배중에 있었음. (중략) 배일사상, 민족자결, 항상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암암리에 주의의 선전을 할 염려가 있었음. 그 무렵은 민족 공산주의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의 성질로 보아서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움.”⁷⁾이라고 하였는데, 중국으로 건너간 후 일제 경찰로부터 수배받고 있던 이육사가 ‘배일사상’과 ‘민족자결’ 사상을 지니고 ‘조선의 독립을 몽상하고’ ‘민족 공산주의로 전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무렵 그의 사상 경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글 중에 군사정기간부학교 입교 이전 시기 그의 사상을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은 찾기 어렵다. 그 시기 이육사의 글로는 시작(詩作) 「말」(1930.1), 기사 「대구 사회단체 개관」(1930.10), 기사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 기사 「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 기사 「신진작가 장혁주 군의 방문기」가 전부이다. 최근에 『중외일보』 기자 시기 이육사가 작성한 기사가 일부 발견되었는데,⁸⁾ 그 시기 이육사의 언론 활동과 그의 사상을 다소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조선일보』 기자 시기 이육사의 언론 활동도 세밀하게 추적하여 그가 작성한 기사를 더 찾을 수 있다면, 그 시기 이육사의 사상을 좀 더 실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육사는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1931년 8월부터 1932년 3월까지 대략 8개월간 근무했는데, 이 시기에 기명으로 발표한 기사는 현재까지 세 편이 확인되었다. 즉 ‘육사생(肉瀉生)’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조선일보』 1932.1.14·16·20·26), ‘이활(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조선일보』 1932.3.6·9), ‘이활(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 - 가이조샤 입선 「아귀도」 작가」(『조선일보』 1932.3.29)가 그것이다. 그동안 『조선일보』 기자 시기 이육사의 언론 활동은 주로 이 세 편의 기사를 통해 이해해왔다. 이

7) 「李源祿 소행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 國史編纂委員會, 178쪽.

8) 홍석표, 「이육사의 『중외일보』 기자 시기의 언론 활동과 고향 상실의 문학적 모티프」, 『상허학보』 64집, 상허학회, 2022.

육사가 『중외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명으로 발표한 기사 이외에도 다양한 대구발 기사를 작성하며 왕성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밝혀진 바 있으니, 『조선일보』 기자로서 지금까지 확인된 그의 기명 기사 이외에도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를 작성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기사 혹은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를 새롭게 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육사가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1931년 11월 10일 고향의 집안 동생인 이원봉(李源鳳)에게 보낸 엽서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 엽서를 통해 우리는 이육사가 그 시기에 왕성한 취재 활동을 펼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엽서에는 수신인이 ‘안동군청(安東郡廳) 이원봉(李源鳳) 군(君)’으로 되어 있고, 발신인이 ‘조선일보지국(朝鮮日報支局) 이활(李活)’로 되어 있다. 엽서의 전문을 보자.

君아! 늘 暴風갓튼 나의 生活이야 別로 異常스러울 것도 업지만 이번이야말
十載의 그리운 닛트을 바람갓치 가서 꿈갓치 만나고 또 번개갓치 떠나올 때 보내
는 그대의 마음도 섭섭한 줄 알엇다만은 떠나는 나의 마음은? 안니 떠나면 안 되
는 나의 生活. 아! 이것을 現代人의 안니 ‘사라리-멘’의 남모르는 悲哀라고나 하
여둘가? 우습다. 曹室 아즉 安東에 잇는지. 아즈매 遠村 가섯는가. 와서 보니 업
든 할말 더욱 만다. 叔主 오날 還施하실 새는 晝음지도 못 罪悚스러워라. 끗호로
健康을⁹⁾

이육사는 당시 자신의 처지를 ‘폭풍 같은 나의 생활’, ‘바람같이 가서…… 번개같이 떠나올 때’, ‘셀러리멘의 남모르는 비애’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그 시기에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기자로서 그의 취재 활동 및 기사 작성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육사가

9) 「李源鳳에게」[소화 6년(1931년) 11월 10일자 소인이 찍혀 있음,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 안동: 이육사문학관, 2017, 508쪽. 이하 이육사의 시·수필·평론·번역의 원문을 인용할 때는 손병희 편저의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에서 가져왔음을 밝혀둔다.

언급한 ‘폭풍 같은 나의 생활’을 상기할 때, 그 시기에 그가 세 편의 글만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기사는 현재까지 세 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또 다른 기명의 기사도 발표했을 수 있으며 『조선일보』의 지방 소식 난에 실린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도 상당수 작성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육사가 『조선일보』 대구지국에 재직하던 시기에 동 신문에 실린 대구발 기사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글의 내용, 어휘, 글투, 문체상의 특징 등으로 보아 이육사의 글로 추정할 수 있는 기사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군사정치간부학교 입교 이전의 이육사의 사상을 가늠하기 위해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 시기에 그가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대구발 기사를 집중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그것이 이육사의 글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필자는 1932년 2월 4일자 『조선일보』 ‘지방시론(地方時論)’란에 실린 「慶北釀造業者들게 與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大邱支局 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임을 확인하였는데, 그것이 이육사의 글임을 최초로 밝힌다. 이를 토대로 무기명의 다양한 대구발 기사를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그중에서 많은 기사가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판별하고자 한다. 사실 당시 지방 뉴스로서 실린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는 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는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신문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전제하는 만큼 개별 기사에 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어렵고,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신문이 지닌 기사 글쓰기의 형식적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무기명의 기사와 현재까지 알려진 이육사의 글 전체와 세밀하게 비교하면, 글의 내용이나 언어적 특징 면에서 이육사의 개성을 잘 보여주는 기사들을 가려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육사가 『중외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발표한 기명의 기사,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발표한 기명의 기사, 그리고 시사평론, 시, 수필, 문예평론, 번역 등 그의 여타의 글들과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비교하여(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들의 상호텍스트적 비교도 포함) 글의 내용, 어휘와 글투, 문체상의 특징 등을 종합하면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언을 위시하여 어휘, 문법,

의미, 문체, 글의 구조적 특징 등 이육사의 특수한 언어 습관에 기대어 무기명 기사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육사의 글로 판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이육사의 사상의 기원을 탐색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리 밝히지만, 이 글은 새로 찾은 이육사의 기명 기사 1편과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무기명 기사 49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새로 찾은 이육사의 기명 기사인 ‘지방시론」**「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을 시작으로 그것과 내용적·언어적 특징을 공유하는 무기명 기사 및 ‘대구지국 일기자’가 작성한 또 다른 ‘지방시론’을 분석해 그것이 이육사의 글임을 추정할 것이다. 또한 이미 확인된 이육사의 3편의 기명 기사, 만주(滿洲) 동포의 애환을 다룬 무기명 기사, 소작농을 비롯한 농민의 참상을 다룬 무기명 기사 등을 분석하여 내용적·언어적 특징 면에서 이육사의 글임을 추정하고, 각각의 글을 실마리로 하여 그와 연관된 다양한 무기명 기사를 연속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이육사의 글임을 추정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한 어휘나 글투 등 이육사 특유의 언어적 습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여타의 사회·경제 방면의 무기명 기사도 연속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이육사의 글임을 추정할 것이다.

2. ‘大邱支局 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 및 ‘大邱支局 一記者’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방시론」**「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

이육사는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세 편의 기명 기사 이외에도 1932년 2월 4일 『조선일보』 ‘地方時論’란에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大邱支局 李活’의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육사가 작성한 이 ‘지방시론’은 경북의 양조업자들을 향해 ‘종업원들에 공휴일을 주라’라고 호소하는 글인데,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方時論〉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 (『조선일보』 1932. 2. 4. 석간 6면)¹⁰⁾

從業員에 公休日을 주라

大邱支局 李活¹¹⁾

酒類! 이것은 種類가 만흔 만치 一揆로 말할 수 업지마는 現在 慶北에서 釀造되는 酒類는 西洋사람과 갓치 嗜好品으로 **만드는 것보다** 거의가 朝鮮사람의 實生活에 適合한 食用品으로서 濁酒에 잇서서는 勞働者들에게 가장 必要한 代用食物의 한가지로 그 需要가 자못 크다 이러한 훌륭한 條件 맞혀서 모든 企業이 世界的 不況의 旋渦속에 하품을 치는대도 不拘하고 오즉 釀造界만은 比較的 活氣있게 그 至毒한 恐慌의 거친 波濤를 헤엄쳐나오며 相當한 發展을 보여왔다 이 러케 말하면 當業者들은 伶俐한 商業政策으로 自己네들의 利潤을 감추기 爲하야 구지 否認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現在 慶尙北道의 調査한바를 보면 道內의 五百餘名 當業者가 一個年間 釀造하는 石數는 二十五萬石을 超過하고 八十萬圓이란 巨大한 金額이 稅金으로 들어와서 道當局의 主要 歲入의 하나로 徵收되고 잇스며 이것을 逐年¹²⁾ 累計表로 보면 年年이 增加하야온 形跡이 뚜렷하고 또 압흐로도 漸漸 增加될 趨勢에 잇다는 當業者의 말을 들어도 얼마(나가누락 된 듯-인용자) 釀造業者들이 배불니고 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萬若 一二의 失敗者가 잇다고 하여도 그것은 當業者間의 無秩序하고 無條理한 自由競爭에 依한 失敗이고 本來부터 薄利의 企業으로 不況의 直接打擊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모든 企業이 萎微不振하는 今日에 世界的 經濟界와 적으나크나만 듯이 連環性이 잇는 釀造界만이 豊盛한 原因은 어대 잇슬까? 우리는 直覺의 으로 勞賃의 低率에 잇다고 본다 그 證據로는 먼저 大邱를 中心으로 調査한바를

10) 이 글에 옮긴 모든 기사는 신문에 실린 글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날의 맞춤법에 따라 일부는 철자도 고치고 띄어쓰기도 하였음.

11) 기사에 진한 검은색으로 굵게 표시한 글자는 필자가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하 모두 동일하다.

12) 逐年(수년): 문맥으로 보아 '해마다'의 뜻을 갖는 '측년(逐年)'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보면 大邱市內에만 十四個所의 釀造場에 三百餘名의 勞働者가 일하고 있다 (그 中에는 말이 조화 事務도 있으나 其實 過激한 肉體勞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 大多數의 勞賃을 보면 大概가 七圓八圓이고 十圓은 小數이며 十五圓쯤은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안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의 勞働時間을 헤아려볼 때는 누구라도 驚駭치 안을 사람은 업을 것이다 그들은 요사이갓치 치운서리 아츰이라도 午前五時부터 濁酒동이를 실고 本市內에 配達을 나가야 한다 그래(‘도’가 누락된 듯-인용자) 도라다니는 것이 그날 하루를 다 보내고 밤 十二時가 지나서 또 午前 한時까지 配達을 맞친 後에 겨우 就寢을 하게 된다 그러면 結局 네時間의 就寢과 食事時間을 빼면 純然히 勞働으로 그날그날을 보낸다 即二十時間을 激烈한 勞働을 하면서도 一年三百六十五日 동안 하로라도 노는 날이 업다 그뿐 안이라 全道內 五百餘의 酒類釀造業者들의 從業員은 그 數가 實로 二千名에 갓깝다고 하나 그들 全部가 모다 꼭 갖튼 勞働條件 맞혀서 呻吟하면서 다만 하로의 慰安을 얻을 公休日조차 갖지를 못하였다 이 얼(‘마’가 누락된 듯-인용자)나 悲慘하며 可矜한 事實이라 現代 資本의 運用術이 아모리 그들의 無知와 純直을 寄貨¹³⁾로 自己네들의 限업은 慾求를 채우고져 勞働을 져서낸다 할지라도 八時間 勞働制를 實施하고 잇는 것은 世界的 事實인 同時에 最少限度로 一個月 한번 식의 動力이 停止하는 날이면 金屬纖維 其他 엇든 勞働部門을 莫論하고 반듯이 公休日이 決定되어 잇는 것은 自他가 함께 認識하고 잇을 것이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그들 從業員 全部는 너무나 無知하고 그들을 操縱하야 그들로 하여금 相當히 權利를 主張할 만한 組織은 完全히 封鎖되어 잇는 것을 아는 그대들을(‘을’은 ‘은’의 오식인 듯-인용자) 힘자라는 곳까지 勞働力을 利用한 利潤으로는 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대들의 돈을 그대들이 쓸 때 엇든 手段으로 엇든 場所에 濫費한다 하여도 그것을 第三者로서는 何等 開喙할 必要가 업다고도 生覺하겠지만은 그 돈이 모힌 經路를 考査하면 얼마나 勞働者를 酷使하며 人間 以外의 取扱을 하야 忸러 모흔 그 돈 勞働者들의 피이며 땀이다 勞働의 피와 땀은 그다지 감할한

13) 寄貨(기화): ‘寄貨’(기화)의 오기(誤記) 또는 오식으로 짐작된다. ‘기화(寄貨)’는 ‘~을 기화로’라는 문구로 쓰여 ‘어떤 일을 빌미 삼아’·‘좋은 기회로 삼아’라는 뜻을 지닌다. 원래 이 말은 ‘진기한 물건’을 뜻하는데, 진기한 물건을 사두었다가 때를 기다리면 큰 이익을 얻는다는 말로, 지금은 대단치 않지만 나중에는 큰 덕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것이 아니다 이러한 勞働條件을 撤廢하는 대는 한갓 그들 從業員들의 意識的 覺醒을 기다리는 外에 별 수가 업다고는 하더라도 그들의게 미즈근한 溫情主義 초차 갖지 못하고 不景氣이니 財界恐慌이니 하여 事業의 合理化란 美名 解雇減俸은 마음대로 하고 雜誌 한卷 사보는 것도 拒絶을 하며 從業員들의게 公休日 초차 定하여 주지 안다는 것은 너무나 言語道斷이 안니나 그러면서도 大企業者然하는 그대들의 企業家良心이 들여다 보인다 慶北의 釀造業者들이여 그대들은 요사이 벌서 犬養內閣¹⁴⁾ 成立後 金再禁¹⁵⁾의 新聞號外도 나자마자 各 飲食店營業者들의게 대하여 從來의 酒價보다 二三割의 酒價를 올리지 안었느냐 만약 良心이 조금이라도 잇거든 하로 速히 從業員들의 勞賃을 못올닐망정 公休日이나 定하여 한달에 하로의 慰安을 주라

이 기사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호황을 누리는 경북 양조업계의 실체를 파헤친 글인데, 양조업이 호황을 누린 것은 하루 12시간 격렬한 노동에 시달리는 종업원들의 '노임의 저율(低率)'로 인한 것으로써 공휴일도 없이 그들의 노동력을 '짜서낸' 결과라는 사실을 고발하면서 노동자들이 각성하기에 앞서 먼저 양조업계가 '종업원들의 노임을 못 올릴망정' '미지근한 온정주의'라고 발휘하여 그들에게 한 달에 하루의 '공휴일'이라도 정해주라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글은 이육사가 경제 방면의 문제, 자본가(기업가)와 노동자(종업원)의 관계 및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매우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실체적으로 보여준다. "勞働者를 酷使하며 人間 以外の 取扱을 하여 끄러 모흔 그 돈 勞働者들의 피이며 땀이다"라는 말처럼 이육사는 이 기사를 통해 자본가의 노동 착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발하고 있으니 이후 그가 쓴 시사평론에 담긴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비판적 사상의 濫觴(濫觴)을 보는 듯하다.

14) 견양(犬養) 내각(內閣):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 총리대신이 이끈 내각(內閣)을 가리킨다.

15) 금재금(金再禁): '金(금) 다음에 '輸(수)가 누락된 것으로 짐작된다. 즉 '금수재금(金輸再禁)'. 금수재금(金輸再禁)은 '금 수출의 재차 금지'를 뜻하며, 이 말은 1932년 1월 1일 『조선일보』에 실린 「궁황타개책역하(窮況打開策如何) 지방인사(地方人士)의 의견(意見)(一)」의 '大邱' 편에서 '제삼문(第三問) 이근무(李根茂) 씨 담(談)'에도 나온다.

특히 이 기사는 이육사 특유의 어휘나 글투 등이 집중적으로 체현되어 있어 이육사 글의 언어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테면, ‘嗜好品으로 만드는 것보다’에서 ‘~것보다’라는 글투, ‘十五圓쯤은’·‘解雇減俸쯤은’에서 ‘~쯤은’의 글투, ‘훌륭한 條件 밋해서’·‘勞働條件 밋해서’·‘合理化란 美名 밋해’에서 ‘~밋해서’ 또는 ‘밋해’의 글투, ‘勞賃을 못올닐망정’에서 ‘~망정’의 글투, 그리고 ‘끄러 모흔 그 돈 勞働者들의 피이며 땀이다’에서 ‘그 돈’처럼 ‘돈’ 다음에 주격조사 ‘은’을 생략한 응축의 글투, ‘은’의 뜻을 지닌 ‘원’과 ‘불쌍하다’·‘가련하다’의 뜻을 지닌 한자어 ‘可矜’과 ‘생각’을 한자로 표기한 ‘生覺’ 등의 어휘가 그것이다. 이 기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이육사 글의 언어적 특징들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 중에서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지방시론’은 대부분 무기명으로 실렸는데, 이육사가 위 ‘지방시론’을 ‘기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양조업계 종업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이육사가 양조업 및 주가(酒價)의 현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해준다. 그렇기에 위 ‘지방시론’에 앞서 1932년 1월 『조선일보』에 실린, 주가(酒價)와 관련된 대구발 기사 「穀價騰勢를 憑藉하고 酒價 三割이나 引上」과 「大邱 酒價의 引上을 取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조업자에 호소하는 위 ‘지방시론’이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고려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들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穀價騰勢를 憑藉하고 酒價 三割이나 引上」이라는 기사는 모음식점 조합원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검토하겠지만 기사 결미에 실제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덧붙이는 것은 이육사가 작성한 기사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러한 형식상의 특징도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穀價騰勢를 憑藉하고 酒價 三割이나 引上 (『조선일보』
1932.1.10. 석간 7면)

小賣業者는 對策을 講究

大邱酒造組合總會에서 決定

【大邱】대구 십사개소의 주류(酒類)양조업자들로 조직된 주조조합(酒造組合)에서는 최근 몇칠 동안 쌀값이 좀 오르는 것을 기회로 총회한 결과 종래 탁주 한말에 일원칠십전 하든 것을 이원으로 일원삼십전하든 것을 일원오십전으로 올린다는 통지를 시내 삼백오십여개소의 음식점에 통지하였으므로 대구음식점조합의 삼백오십여 조합원들은 팔일 오후 사시경 시내 수정조합상 우문일(禹文日) 씨 집에서 총회를 열고 토의한 결과 종래 미가가 폭락되었을 때는 음식점조합이 술값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도시 듯지 안코 자기네가 조금 호전된다 하야 돌연 술값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일이나 기왕 일원칠십전을 일원팔십전으로 일원삼십전을 일원사십전으로 종래보다 십전씩을 올리면 종래와 가티 소매하겠스나 만약 듯지 안으면 일원삼십전짜리를 소매하고 이원짜리는 절대 소매치 안으려고 결의하야 주조합에 통지하고 회답을 구하였는데 량편의 태도는 자못 강경함으로 형세는 험악하다고 한다

모음식점 조합원의 말을 들으면 절대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고야 말겠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술국이¹⁶⁾를 사흘 쥐지 안흐면 어린아이 과자 사줄 돈까지 엮고 나중에는 구처업서 빗싼 술이라도 파느니라고 폭언을 토하는 자도 잇답디다마는 우리들도 만약 대구 시내 양조장 술이 빗싸면 대구 근처의 양조장들로부터 구입하야 소매할 수도 잇습므로 그다지 걱정도 엮습니다 꾀까지 항쟁할 뿐이지요윤윤

16) 국이: 즉 '국이(擲耳)'. 술이나 기름, 죽 따위를 풀 때 쓰는 기구로서 자루가 국자보다 짧고 바닥이 오목하다.

大邱 酒價의 引上을 取消 (『조선일보』 1932. 01. 19. 석간 6면)

【大邱】대구주조조합(大邱酒造組合)에서는 원료미의 폭등이란 구실 아래서 당업자간의 결의로서 시내 각 음식점으로 조직된 대구음식점조합(大邱飲食店組合)에 대하여 종래의 탁주 한말에 일원삼십전 하든 것을 일원 오십전으로 일원 칠십전 하든 것을 이원으로 올린다고 통고하였슴으로 삼백오십여처의 음식점은 원료미가 헐할 때에 술값을 내려주지는 안코 요지음 조그만치 쌀값이 오른다 하야 한번 음식점 영업자들과 상의조차 업시 임의로 술값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횡포한 행동이라 하여 절대 반대한 결과 양조자측도 **하등** 통제가 되지 안코 조선주조협회(朝鮮酒造協會)로부터 당분간 술값을 올리지 말고 좀더 시세를 정관하자는 정도 잇서 술값을 올리지 안키로 하였다고 한다

위 두 기사는 대구 지역의 주가를 둘러싼 주조조합과 음식점조합 사이의 갈등을 약자인 음식점조합의 입장에서 보도한 것인데, 양조업계의 횡포를 취재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육사는 양조장의 ‘비참하고 가궁한’ 노동조건을 분석한 후 종업원들에게 ‘노임을 못 올릴망정 공휴일이나마 정하여 한 달에 하루 위안을 주라’라고 양조업계에 호소하는 ‘지방시론’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기사에 나오는 ‘하등’이라는 어휘도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테면, “何等의 理解를 갖지 못할 것이다”(『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 “何等의 進展을 볼 것 갖지도 안은 것이다”·“何等의 힘을 갖지 못한 것이며”(『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 “何等 다를 것이 업섯스며”(『1935년과 노불관계 전망』), “何等 關係도 업시”(『위기에 임한 중국정국의 전망』), “何等 證據가 업는데도”(『중국 청방 비사 소고』), “何等 飛躍도 發展도 보지 못하고”(『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 “何等의 防禦力을 가지지 못했다”·“何等 變化하지못하였다고 하는 것도”·“何等 所用이 없고”(『중국 농촌의 현상』), “創生할 何等의 힘도 가지지 못한 것은”(『루쉰 추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육사가 작성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 앞서 1931년 9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大邱支局 一記者’가 작성한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도 주목된다. 이 ‘지방시론’도 이육사 특유의 글투와 문체 등 언어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地方時論〉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 (『조선일보』 1931.9.20. 석간 6면)

大邱支局 一記者

幸인지 不幸인지 모든 것이 매우 맞분 사이에 또다시 가을을 마지하게 되었다 예전 가트면 이야말로 結實의 가을이며 收穫의 가을이며 배부른 가을이며 歡喜의 가을이다 이 가을을 마지하는 中에도 火田民이 거의 半以上을 차지한 北鮮의 가을보다는 地理와 氣候의 惠澤을 받고 잇는 南鮮 慶北이야말로 가을을 마지하야 깃볼 것이다 그러나 過去 三年間은 오늘날까지 繼續하는 不景氣 속에서 凶作이 繼續되었고 昨年 一年만은 僥倖히 豊作이었으나 未曾有의 米價暴落을 보았다

◇

그러해서 凶作의 三年 동안에 道內 一般 農民들은 草根木皮로 延命을 하는 한편 負債는 負債 그대로 짊어지고 나왓는 것이다 이에 狡猾한 債鬼들은 올해야 豊年이니 빚을 빚갠다고 立毛差押을 한 것이 道內에 四百件을 훨씬 넘어 世界 어느 나라에서라도 볼 수 업는 奇怪한 現狀이다

그외에도 小數幾個人을 除한 地主들은 모다 小作人들에게 六割이란 엄청난 小作料를 徵收하고 當然히 地主가 負擔할 地稅까지도 小作人에게 負擔케 하지 안는가 그리고 小作人이 負擔을 拒絶할 때는 小作을 移動한다고 作人들을 威脅

하야 地主들의 貪慾을 滿足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慶北道農務課의 調査한 바를 通하여 잘 알고 있다(그中에도 地稅를 自己가 負擔한다는 美名 아래 一時 納入을 하고 陰으로 小作人들에게 對하여 小作權을 移動한다 脅迫한 후 돈을 차자드리는 『瞞豪¹⁷⁾』도 있다) 昨年 年末 第一期 納稅期에 慶北漆谷에 一千三百餘名의 小作人이 一束하야 納稅를 拒絶할 때 우리는 以上과 가튼 人面獸心의 地主가 있다는 것을 當局을 通하여 알었고 地主와 小作人 사이에 權力의 差異가 너머도甚한 拮据 比較的 爭議가 못 일어난다고 地主들 당신네는 밋고 잇슬는지 모르지만은 위선 갓가운 例를 들면 今春 當地 某地主 對¹⁸⁾ 慶南에 크다란 小作 爭議가 至今까지 未解決로 남아잇는 것을 비롯하야 外道內路를 勿論하고 妥協解決 未解決의 爭議가 들판에 그냥 노혀잇는 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

地主들이여 果然 밭분 동안에 또다시 가을을 맞게 되였다 당신들은 小作人들 이야 죽든말든 엇지면 가장 合理的으로 아니 無理하게라도 짜서 배속을 채울가 하고 生(覺)이 누락된 듯-인용자)하는대 밭분 동안 小作人으로서는 엇지면 내가지는 農事를 외와 땀을 흘려 지는 農事를 그나마 가물과 水害 속에 平年作도 못되는 벼이삭이 早落¹⁹⁾이나 안을가 虫口나 업슬가? 이러케 애을(을은 ‘를’의 오식인 듯-인용자) 태우는 동안 그 만흔 빗쟁이들이 立稻差押이나 안을가? 논마지거나 부처 六割은 地主의게 二割은 債鬼의게 나머지는 納稅로! 아— 果然 이러면 나만흔 父母와 나어린 (妻)가 누락된 듯-인용자)子를 다리고 치운 겨울을 엇지 지날가 이러케 바둥바둥 애태며 밭분 동안에 가을은 왔다

地主여 精神을 차리라 위선 小作人의 불상한 處地를 생각하라는 것보다도 自己自身이 좀더 人情 잇는 사람이 되고 自己의 階級을 爲하야서라도 좀더 充實할 必要가 잇슬가 한다 多少 善良한 地主가 잇다고 하여도 最多數의 惡地主가 잇다면 地主란 그다지 고마운 代名辭가 못되니까 地主여 精神을 차리라 우리는 기

17) 이 두 글자는 판독이 어려운데, ‘瞞豪’(만호)로 짐작된다.

18) ‘對’(대)로 판독된다. ‘對’는 다음 말을 생략한 응축의 표현으로서 ‘某地主 對’는 ‘모지주에 대항하여’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듯하다.

19) 早落(조락): 여기서 ‘落’(락)은 판독이 어려운데, 문맥상 ‘落’으로 짐작된다.

다린다 結實의 가을이 오고 收穫의 가을이 오고 배부른 가을이 오고 歡去²⁰⁾의 가을이 오기를 바란다

우선 이 ‘지방시론’은 “幸인지 不幸인지 모든 것이 매우 빗분 사이에 또다시 가을을 마치하게 되었다. 예전 가트면 이야말로 結實의 가을이며 收穫의 가을이며 배부른 가을이며 歡喜의 가을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가을’을 화두로 삼아 글을 시작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육사의 최초의 수필로 알려진 「창공에 그리는 마음」(1934, 10)도 ‘가을’을 화두로 삼아 글을 시작한다. “별서 데파—트의 쇼윈드는 紅葉으로 裝飾되었다. 鐵道案内係가 金剛山 逍遙山等等 探勝客들에게 特別割引으로 가을의 씨비쓰를 한다고들 떠드니 돌미력갓치 鈍感인 나에게도 잊지면 가을인가? 심혼 생각도 난다.” 또한 수필 「고란(阜蘭)」에서도 “별서 四年前 가을일이다. 그때도 가을 날세이고 旅行하기 조흔 季節이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수필 「계절의 여행」에서는 가을과 관련된 문장이 다수 나온다. “나는 그 물소리를 따라 어데든지 가고서픈 마음을 참을 수 업서 東海를 건넌고 어느 사이 뿌류담-크의 英雄傳도 읽고 씨-저나 나포레옹을 다 읽은 때는 모두 가을이였습니다”, “내 홀로 이 거리를 가면서 가을바람에 옷깃을 날리것만은 그래도 눈물지지만는건 長者의 풍도일가?”, “누구나 二十이란 시절엔 가을밤집도록 禁書를 읽든 밤이있으리다”, “소나무가 육어진 그 속에서 가을기운을 마셔보고 머리속을 서늘케만 하면 내 念願을 다 채워줄 수가 있는 까닭입니다”, “무릇 遺言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은 八十을 살고도 가을을 경험하지 못한 俗輩들이 하는 일시오”가 그것이다. 수필 「계절의 표정」에서도 “짐껏 가을에 뺨을 부비며 亢奮해보고 울어라도 보고저한 내 慣習이 아즉 살아있었다는 것은 季節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낄만한 외로움이 나에게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밤에 案頭에 쌓여있는 詩集들 中에서 가을에 읊은 詩들을 한두 차례 읽어봤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육사가 종종 가을을 화두로 삼아 글을 시작하거나 가을

20) 歡去: 여기서 ‘去’(거)는 ‘喜’(희)의 오식으로 짐작되는데, 이 기사의 첫머리에 ‘歡喜의 가을’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歡喜’로 해야 맞다.

에 예민한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위 ‘지방시론’에 나오는 “地主여精神을 차리라 위선 小作人의 불상한 處地를 생각하라는 것보다도 自己自身이 좀더 人情 있는 사람이 되고”라는 문장에서 ‘~생각하라는 것보다도’라는 글투도 주목된다. ‘~것보다도’라는 글투는 앞서 검토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 나오는 ‘嗜好品으로 만드는 것보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사평론 「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에 나오는 “비록 푸저우(福州)를 영구히 점령(占領)하지 못하더라도 공군(共軍) 자신에 어떠한 의의가 있다는 것보다 장(蔣) 씨 자신에 와야 할 날이 오는 것인 동시에 피(彼)의 고객인 열국(列國)들이 군함을 보내서 푸저우를 수비하는 것쯤은 예사인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어떠한 의의가 있다는 것보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필 「현주·냉광」(1940.12)에 나오는 “이것은 神을 속이기 쉽다는 것보다 그들의 神에 對한 觀念이 ‘洋洋히 그우에 계신 듯’하다는 말로 보면”이라는 문장에서 ‘속이기 쉽다는 것보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기사에는 “너머도 甚한 까닭 比較的의 爭議가 못 일어난다고”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까닭’은 ‘까닭에’로 써야 할 것이므로 ‘에’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오히려 ‘에’를 생략함으로써 응축의 느낌을 추구하는 이육사 특유의 글투로 보아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 나오는 ‘끄러 모흔 그 돈 勞働者들의 피이며 땀이다’라는 말에서 ‘그 돈’이라는 말도 주격조사 ‘은’을 생략한 응축의 글투이다. 이러한 생략에 의한 응축의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인용한 바 있는, 이육사가 이원봉에게 보낸 엽서에서 “죄송스러워라”라는 문장에서 ‘못’ 다음에 ‘~하여/하고’가 생략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또 시 「해후(邂逅)」에 나오는 “그러나 물결은 흔들려 끝끝내 보이지 않고 나조차 季節風의 穉이 가치 휩쓸려 정치못 일곱 바다에 밀렸거늘”이라는 시구에서 ‘정치못’은 ‘定치 못(하고/하여), 곧 ‘정하지 못하고(하여)’로 볼 수 있는바, ‘하고/하여’가 생략된 것이다.²¹⁾ 그리고 위 ‘지방시론’에는 ‘生하는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 ‘生覺’(생

각)이라는 한자어가 나오므로 ‘生’ 다음에 ‘覺’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글투와 문체상의 특징으로 보아 위 ‘지방시론’은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위 기사의 내용은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에 나오는 “또 어떤 작품을 쓰시렵니까? ‘역시 농민들의 생활을 그려볼까 합니다. 일전에도 경남(慶南) 방면에 자료를 수집키 위하여 갔다왔습니다’ 할 때는 바로 작년 가을 모 대지주의 농장에 일어났던 대쟁의 사건의 역사적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는 듯하다”라는 문장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여기서 ‘경남 방면에 자료를 수집키 위하여 갔다왔다’라는 장혁주의 말에 이육사는 ‘작년 가을 모 대지주의 농장에서 일어난 대쟁의사건’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 ‘대쟁의사건’은 위 ‘지방시론’에서 언급된 「慶南에 크다란 小作爭議」와 겹친다.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시론’이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더욱 신빙성 있게 설명해준다. 이육사는 소작쟁의를 직접 취재한 경험이 있었거니와 이를 토대로 ‘地主여精神을 차리라’라는 직접적인 목소리로 호소하는 위 ‘지방시론’을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지방시론’이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이 기사에 나오는 “그 외에도 道外道內를 勿論하고 妥協解決 未解決의 爭議가 들판에 그냥 노혀잇는 것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라는 말로 보아 소작 농민 및 소작쟁의와 관련된 여타의 다양한 대구발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를 테면, 1932년 1월 3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대구발 기사 「小作權 移動 證書로 賭租斗稅를 威脅強徵」에는 “작년 가을 경북(慶北) 소작쟁의(小作爭議)의 중심지대로 지주와 농민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첨예화하여 잇는 경북 고령(慶北高靈) 군내의 이개면을 제하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사의 내용 및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고, 이육

21)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 510쪽, 각주13 참조.

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를 상기하면, ‘대구지국 일기자’의 이름으로 발표된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육사가 위 ‘지방시론’을 발표할 때 ‘대구지국 일기자’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이 ‘계급’ 문제를 다루면서 지주들에게 호소하는 것인 만큼 기명으로 발표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서 위 ‘지방시론’이 가을을 화두로 삼아 ‘행(幸)’의 ‘가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지방시론’보다 앞서 1931년 10월 9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讀者 慰安의 拾栗大會 開催」라는 대구발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讀者 慰安의 拾栗²²⁾大會 開催 (『조선일보』 1931. 10. 9. 석간 7면)

대구지국주최(大邱支局主催)

【大邱】젓터가는 **가을날!** 하늘은 높고 말조차 살지는 가을날에 본보대국지국(本報大邱支局)에서는 친애하는 독자제위의 가정에 엇더케 하면 조그마한 **가을의 행**을 난우어드릴가 하여 오는 십륙일(음력 구월초륙일 금요일)에 부외 동촌밤숲(東村栗林)에서 독자위안원유대회(讀者慰安園游大會)를 열고 밤줍기와 기타 여흥으로 **자미있는** 가을의 하로를 독자에게 드리고저 한다는데 회비는 오십전이며 독자들의 편의를 보아 부인반과 남자반을 따로따로하게 되오니 될 수 잇스면 침울한 가정을(‘을’은 은의 오식인 듯) 하로 날을 **명랑한 하날 및 새소래물소래** **고요히 흐르는 들판으로** 모혀주시면 도라갈시(‘갈시’는 ‘가실’의 오식인 듯) 때는 밤 한되를 제공하겠스니 만히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조건은 본지국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22) 栗: ‘栗’(속)은 기사 내용에 ‘밤’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栗’(을)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위 기사는 ‘짓터가는 가을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며 ‘가을의 행’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자미잇는’이라는 말이 ‘자미스런’(「절투의 반군성»), ‘자미잇는’(「문외한의 수첩」·「루쉰 추도문»), ‘자미가 잇섯든지’(「문외한의 수첩»), ‘자릿자릿한 자미에’(「전조기»), ‘자미였었다’(「은하수»), ‘자미성있고’(「연륜»), ‘자미를 부쳐보려고도’(「계절의 표정»), ‘자미로운’(「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 ‘자미스러운’(「중국 신국민운동 검토»), ‘자미도 있었어요’(「무희의 봄을 찾아서»)라는 말로 변주되어 이육사의 여러 글에 자주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하날 밋’·‘새소래물소래’라는 말이 기사「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1932.1)에 나오는 ‘여기에는 순진한 산간에서 새노래물소리에 거치른 세상일은 꿈도 꾸지 못한 산아이와도 갖치……그 녀자는 어느 하날 밋해서 엇든 남자와 단꿈을 꾸는지’라는 문장에서 ‘하날 밋해서’·‘새노래물소리’라는 말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3. 세 편의 기명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기사

이육사가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기명으로 발표한 기사는 현재까지 세 편이 확인되었다.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1932. 1. 14 · 16 · 20 · 26, 4회), 「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1932. 3. 6 · 9, 2회),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 - 가이조샤 입선 「아귀도」 작가」(1932. 3. 29.)가 그것인데, 이들 기명 기사가 발표된 전후로 그와 관련된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로서 ‘대구 약령시’에 관한 기사, ‘대구 장대회’에 관한 기사, ‘현상소설 당선작가 장혁주’에 관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아 세밀하게 살펴보자.

1) 대구 약령시와 관련된 기사

이육사는 ‘대구지국 육사생(大邱支局 肉瀉生)’의 이름으로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는데, 이 기사에 앞서 1931년 12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대구발 소식으로 「大邱藥令」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大邱藥令 (『조선일보』 1931. 12. 18. 석간 6면)

廿三日부터 開始

【大邱】 역사적으로 **일흠이 높흔** 대구의 약령시(藥令市)는 레년과 가티 오는 이십삼일(음십일월십오일)부터 대구부남성정통(大邱府南城町通)에서 열일 모양인바 벌써부터 사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속속 대구에 집중되는 중이며 금년은 일반 농촌의 농작물이 흉작임으로 궁민들의 약초 채취에 힘을 써서 약초도 만히 생산되었는데 일간 급속한 정변으로 인하여 일반 물가가 폭등되는 중 돈이 흔하여지면 약물의 매매도 윤희하여지겟다고 일반은 만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大邱藥令」은 대구 약령시의 개시를 알리는 짧은 기사에 지나지 않지만,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와 그 내용이 겹친다. 특히 위 기사에 나오는 ‘역사적으로 일흠이 높흔’이라는 말은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에 나오는 ‘약령시의 장래는 압흐도 세계에 그 일흠이 높하진다고’라는 문장에서 ‘일흠이 높하진다’라는 글투로 반복된다. 이러한 글투는 시사평론 「위기에 임한 중국 정국의 전망」에 나오는 “中央大學 解散으로 일흠 높든 한때의 敎育次長”이라는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시사평론 「중국 청방 비사 소고」에 나오는 “北中에서 일흠 높흔 天津大公報는”이라는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육사는 대구 약령시에 관한

첫 소식「大邱藥畵」을 간단히 보도한 후 대구 약령시의 유래를 연구해서 한 달 뒤「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기명으로 연재 발표한 것으로 짐작된다.

2) '장연구회'의 창립 및 '장대회'와 관련된 기사

이육사는 '대구지국 이활(大邱支局 李活)'의 이름으로 1932년 3월 6·9일 2회에 걸쳐『조선일보』에「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무렵 '장대회'와 관련된 기사가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로『조선일보』에 여러 번 실렸다. 즉「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1932.3.4),「本報支局 後援의 장競技大會 延期」(1932.3.8),「大邱 장競技大會 十二日에 舉行」(1932.3.11),「第一回 '장'競技會 盛況裡에 終幕」(1932.3.15) 등 네 편의 기사가 그것이다. 또한 마지막 기사가 실린 1932년 3월 15일자 신문에는 '장경기대회' 관련 사진 2장도 실려 있고, 그 아래에 “大邱『장』競技大會의 白熱化한 競技光景(上)과 優勝한 啓聖軍口姿(下)”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1932년 3월 4일 '장대회'를 알리는 첫 기사인「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는 “장연구회 간부 김영제(金永濟) 씨를 계성학교에 방문하니”라고 하며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육사가 '장연구회'의 창립을 직접 취재하여 그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를 기명으로 발표했으니 '장대회'와 관련된 첫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육사가 김영제 씨를 방문하여 취재한 후 첫 기사인「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를 작성하고, 이어「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대회'와 관련된 대구발 기사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어휘나 글투 등 언어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는 “民衆의 保健運動은 요사이 各界人士들의 크다른 關心거리로 어디서 엇더케 무슨 方法으로『억세인 朝鮮』을 建設할 수 잇슬가 함에 研究를 거듭하게 되엿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첫 기사인

「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에도 “최근 경향을 물론하고 본사에
서 발표한『슬로깬』역세인 조선을 건설하자는 표어 미테 일반 대중의 보건
운동은 급각도로 백열화하고 있는바”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두 기사의 작
성자가 동일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이육사는 ‘급각
도’라는 어휘를 자주 사용한 점, 1932년 3월 15일에 실린 ‘장대회’ 관련 두 장
의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백열화’라는 어휘가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대회’와 관련된 무기명의 기사는 모두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1941년 4월 『조광(朝光)』이 마련한 「농촌문화문제특집(農村文化問
題特輯)」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육사는 “十年前 ‘짚치기’=폴프의 原型이
라고 생각합니다=를 農民의 子弟들에 獎勵해서 慶江大會를 열어보았습니
다”²³⁾라고 말한 바 있는데, 그가 10년 전에 ‘장경기 대회’를 주도했음을 밝히
고 있으니 당시 ‘장대회’ 관련 기사를 그가 주도적으로 작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대회’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 (『조선일보』1932. 3. 4.
석간 7면)

장硏究會 主催와 大邱支局 後援

七日 啓聖運動場서

【大邱】오래 동안 우리의 조선말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여온 명예스러운 국기
(國技) 『장』 치는 시대와 함께 눈뜬 청년 남녀들의 삼이(三二)년식 최첨단을 걷는
경기로서 지난 이십팔일 『장』 연구회(장硏究會)의 거룩한 역사적 창립과 아울러
오는 칠일(음정월금음날) 동회 주최와 본사 대구지국(本社大邱支局) 후원으로

23) 이육사, 『『朝光』農村文化問題特輯 설문에 대한 답변』, 순명회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
집 1』, 545쪽. ‘慶江大會’(경강대회)는 ‘경상도·강원도 대회’를 가리킴(『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
전집 1』, 545쪽 각주7 참조).

대구계성학교(大邱啟聖學校) 운동장에서 제일회 경기대회(第一回競技大會)를 개최하게 된바 벌써부터 출장할 선수들은 맹렬한 연습을 거듭하고 있으며 일반 『팬』들의 기대는 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다

大邱 運動 先輩 發起로 장研究會를 創立
스포츠史上 一新紀元

최근 경향을 물론하고 본사에서 발표한 『슬로겐』 익세인 조선을 건설하자는 표어 미테 일반 대중의 보건운동은 급각도로 백열화하고 있는바 대구에서는 세계에 다년간 만흔 연구를 싸코 있던 계성학교 교원 김영제(啟聖學校教員金永濟) 씨와 문학사 조룡기(文學士趙龍基) 씨등이 중심이 되어서 『장』연구회(장研究會)를 창립하고 오래동안 우리의 것이면서 우리 민중에게 버림을 받아 장이 생긴 력사는 그만두고 현재 그 존재조차 알지못하게 된 조선 고유한 운동인 『장치기』를 연구하여 구미 각국에서 가장 발달된 운동이라는 『폴프』나 『혹키』에 못하지 않은 가장 대중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조선사람에게 매우 적당한 이 『장치기』를 전조선적으로 선전하여 국기부흥(國技復興)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세계적으로 소개하리라 하며 이로 인하여 남조선의 『스포츠』계는 크다란 과문을 일으키고 있는바 머지않은 장래에 이 『장치기』운동은 세계의 『스포츠』사상에 한 기원을 지을 줄 맞는 바이다

農民大衆에게 最適한 運動
장研究會 金永濟氏談

장연구회 간부 김영제(金永濟) 씨를 계성학교에 방문하니 씨의 사무실에는 『장』과 『장채』와 『혹키』 지구 등을 싸아노코 경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괴자의 뜻는 말에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장』의 력사는 아주 자세히 기록된 것은 어데서도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추측한 결과 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듯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톡키』(‘혹키’, 즉 ‘하키’ - 인용자)나 『폴프』가튼 것은 이에 모방된 듯한 사적 증거도 몇가지 있는데 후일 귀지를 통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세상사람이 조선 사람은 나태하다 하지마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운동경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노는 시간을 무료로 지내는 까닭입니다 요사이에는 서양으로부터 만흔 종류의 운동이 수입되었으나 모다 돈이 만히 들고 일정한 장소를 요구하게 되어 정당치 안으나 이 『장』만은 우리 민중의 고유한 운동이며 기구 작만하는데 돈이 들지 안코 장려도 밧(‘가’가 누락된 듯 - 인용자)운데나 는 가운데서라도 할 수 있스며 농민대중에게 가장 리래(‘리해’, 즉 ‘이해’)의 오식인 듯 - 인용자)되어 있는 것임으로 그들을 중심 삼아 보급식히고 년 일이 대회도 열겠습니다 경기에 대한 규측은 보급되는데 따라 곳쳐질 것도 있스나 다음 발표할가 생각합니다

위 기사 결미에는 장연구회 간부 ‘김영제’ 씨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는데, 기사 결미에 직접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덧붙여 현장감을 더하는 기사 형식은 이육사가 작성한 기사의 한 특징으로 보인다. 예컨대, 1930년 7월 17일자 『중외일보』에 ‘이활(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축일발로(逐日發露)되는 참해비극(慘害悲劇) 사망불명인원육십명(死亡不明人員六十名)」라는 기사 결미에도 “리모(李某)는 괴식이 엄엄한 중에도 눈물을 삼켜가며 말한다/‘뜻밖게 사변으로 도모지 엇더케 된 세음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략) 운운”라는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 있다. 이러한 기사의 형식적 특징은 앞으로 검토할,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무기명의 기사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本報支局 後援의 장競技大會 延期 (『조선일보』 1932. 3. 8. 석간 7면)

【大邱】『장』연구회(硏究會) 주최 본보 지국 후원 아래 개최하려는 제일회 장

경기대회(第一回장競技大會)는 칠일에 개최할 예정이든바 이것이 조선에 있어서 첫시험인 만큼 각 방면의 인기는 고조에 달하여 신입 괴일을 연장하여 달나는 요청이 폭주함으로 동연구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수의 뜻을 좇쳐 크다란 역사적 경기 본뜻을 다하고저 오는 십이일 토요일에 개최기로 일자를 변경하였다는 바 일반의 기대는 자못 크다고 한다

위 기사에는 ‘크다란 역사적 경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검토한 기사 「大邱藥會」(1931. 12. 18.)에도 ‘역사적으로 일흠이 높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경기에 관한 첫 기사 「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에서 「歷史的國技 장競技」라는 제목도 그렇거니와 기사의 내용에도 ‘거룩한 역사적 창립’이라는 말이 나온다. ‘역사적’이라는 어휘를 포함하는 글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사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위 기사에는 ‘인기는 고조에 달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검토할 장경기에 관한 기사 「第一回 ‘장’競技會 盛況裡에 終幕」(1932. 3. 15.)에도 ‘만도의 인기 아츰 조수가티 팽배하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장혁주에 관한 기사 「改造社 懸賞小說에 張君이 首位로 當選」(1932. 3. 18.)에도 ‘압도적 인기’라는 말이 나온다. ‘인기’라는 어휘를 포함하는 글투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기사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들 기사는 모두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기사 「大邱 장競技大會 十二日에 舉行」에는 ‘競技規則 發表’라는 부제가 붙어 있고 결미에 ‘三月七日장研究會發表’라는 설명이 더해져 있는데, 앞서 검토한 첫 기사 「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에 “경기에 대한 규측은 보급되는데 따라 곳쳐질 것도 있으나 다음 발표할가 생각합니다”라는 김영제 씨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3월 7일 김영제 씨가 경기규칙을 공표함에 따라 첫 기사의 작성자가 그것을 「大邱 장競技大會 十二日에 舉行」에 담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大邱 장競技大會 十二日에 舉行 (『조선일보』1932.3.11. 석간 7면)

競技規則 發表

大邱에서 創立한 『장』研究會 主催와 本社大邱支局 後援의 第一回 장競技大會는 七日 開催하라든바 그 期日을 延期하여 十二日 大邱에서 舉行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장研究會에서는 『장』競技 規則을 다음과 가티 發表하였다

장競技 規則

第一條(편) 『편』은 한便에 十一人式 두便으로써 競技함

第二條 한便 競技者는 『모리』五人 『막기』五人 『문직히』一人으로써 組織함

但 모리中央에 잇는 競技者를 主將으로함

【競技場】

第三條 競技場은 縱三百尺乃至四百尺 橫百八十尺乃至二百四十尺의 長方形으로된 平地로 하고 境界線은 白線으로 劃함

縱線을 『갓금』이라 하고 橫線을 『꿏금』이라 함

中央線은 『갓금』에서 『갓금』으로 競技場으로(‘으로’는 ‘을’의 오식—인용자) 二等分하는 線을 劃하고 此를 『가운데금』이라 함

第四條(문) 문은 廣二十四尺 高八尺되게 밧금 中央에 設置함

第五條(널금) 門中央『곶금』을 中心으로 하고 半經四十尺되는 半圓을 作함

第六條(공자리) 공자리는『가운데금』中央에 置하고 競技 始作할 때에 이곳에서 行함

第七條(채와공) 채는 直經一寸五分以內 長四尺以內로 一端이 彎曲된 圓木으로 하되 危險性이 없는 것으로 함

『공』은 直經二寸되는 圓形의 木製로 함

【競技 規則】

第八條(始作法) 競技者는 兩便의 主將一人式『공자리』에서 對向하였다가 審判의 信號가 잇스면 各各 自己『채』로 自己 陣地 地面을 一打하고 다음에『공』우에서『채』와『채』를 마조침 이와갓치 三회를 反覆한 後에『공』을 쳐서 競技를 始作함

第九條(得點) 攻擊者가『공』을 채로 치거나 或은『채』에 다서 門을 完全히 通過 식히면 得點으로 함 또 守備者의『채』나 其他 身體에 다서 門으로 完全히 通過 하여도 得點으로 함

第十條 競技의 勝負는 得點으로 決定함

第十一條(轉入) 공이『곶금』을 넘어 場外로 나아간 때에는 最後의『공』에 接한 相對便 競技者가『공』을 場內에 轉入함

轉入할 때에 공을 投射함을 不得함 萬若 此를 違反할 때에는 相對便의게 轉入을 許함

【罰則】

第十二條 競技中 相對便 競技者에게 不正行爲를 加할 때

相對便 競技者의 『채』를 故意로 칠 때

相對便 競技者를 『채』로 故意로 치거나 밀거나 또는 걸거나 할 때

相對便 競技者를 身體的으로 故意로 밀거나 치거나 치거나(‘치거나’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된 오식인 듯—인용자) 걸거나 其他 危險한 行動으로 防害할 때

以上 凡則²⁴⁾할 때에는 相對便에게 一回 自由打를 許함

第十三條(自由打) 反則한 相對便의 競技者가 反則한 當所에서 自由로 打擊함 萬若 한번 쳐서도 『공』의 位置가 變更되지 않을 때에는 再打함을 得함 그러나 競技者가 『공』을 침으로 因하여 該 位置가 變할 때에 該 競技者가 再打함을 不得함 此를 違反할 때에는 其場所에서 始球法과 가티 主將끼리 施行하여 競技를 繼續함

第十四條(罰打) 自己 陣地 『널금』안에서 第十二條에 犯할 때에는 相對便에게 一回의 罰打를 與함

罰打는 審判의 指揮대로 『 금』中央線上에서 打擊함 打擊하기 前에 『문직 이』와 『막기』二人 以外 엇든 競技者든지 『 금』안에 入去함을 不許함

第十五條(隅打) 『공』이 自己 陣地에서 自己便 엇든 競技者의 身體나 또는 『채』

24) 凡則: ‘凡則’(범칙)은 ‘반칙(反則)’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에接觸하여 自己陣地『꿏금』을 넘어간 때에는 相對便에게 一回의 隅打를 與함

隅打는 『꿏금』과 『갓금』과 交叉된 角에서 打擊함

第十六條(門打)『꿏』이 相對便 競技者의 身體 又は 『채』에 接觸하여 自己陣『꿏금』을 넘어 場外로 나간 때는 一回의 門打를 得함 門打는 『널금』線上에서 打擊함

第十七條 競技時間은 五十分乃至七十分間으로 함 此를 二等分하여 前半後半에 競技陣地를 交代하여 競技를 行하고 中間에는 十分間의 休憩를 與함

【審判의 權威】

第十八條 競技者는 審判의 命令을 絶對로 服從할 것 萬若 競技者가 審判의 命令을 不服하거나 또는 不正한 言語行動으로 對할 때에는 審判은 該競技者에게 退場을 命함

競技時間 五분이 經過하여도 出場치 安이하는 便에게는 審判은 負者로 宣言함을 得함

競技中 非人格의 行爲 又は 運動精神에 違反되는 行爲를 하는 競技者에게는 審判이 退場을 命함 審判은 競技의 對한 勝負의 決定 又は 競技中에 競技의 對한 모든 決定權을 有함

【附記】身體使用與否에 對하여는 아직 여러 가지로 參照할 點이 잇슴으로 規則上 制定은 없스나 今番 大會만은 在來와 갓치 身體의 使用을 許하고 捕球만은 不許함(三月七日장研究會發表)

大邱 『장』競技大會의 白熱化한 競技光景(上)과 優勝한 啓聖軍口(‘雄’²⁵)委
(下) (『조선일보』 1932.3.15. 석간 7면)

第一回 『장』競技會 盛況裡에 終幕 (『조선일보』 1932.3.15. 석간
7면)

대구 계성군의 우승으로

【大邱】대구 『장』연구회 주최 본보 지국 후원의 제일회 장경기대회는 지난 십
일이(‘십이일’의 오식—인용자) 오후 사시 계성학교 운동장에서 만도²⁶)의 인귀
아침 조수가티 팽배하는 속에 막을 열게 되어 장연구회의 조룡기(趙龍基)씨 사회
가 끝나고 김영제(金永濟) 씨의 경기에 대한 주의의 말이 잇슨 후 동씨의 심판 아
레 계성(啓聖)대달구(達丘) 두팀의 성화가튼 경기가 시작되야 결국 사대령으로
계성이 우승하고 조룡기씨의 폐회사가 잇슨 후 장력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장엄
한 대회는 특시경 무사히 맞췄다 한다

위 기사에 나오는 ‘만도의 인귀 아침 조수가티 팽배하는’라는 말에서 ‘인
기’ 다음에 주격조사 ‘가’가 생략된 채 곧바로 ‘아침 조수같이’라는 말로 이어
지는데, 생략함으로써 응축의 느낌을 주는 이러한 글투는 이육사 특유의 글
투로 보인다. 이러한 응축의 글투는 앞서 검토한 ‘지방시론」(慶北 釀造業者
들게 興함)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시론」(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에서
도 확인한 바 있다.

25) 이 글자는 관독이 어려운데, ‘雄’(웅)으로 짐작된다.

26) 만도: ‘온 도시’의 뜻을 지닌 한자어 ‘滿都’(만도)로 짐작된다.

3) 장혁주의 「아귀도(餓鬼道)」의 현상소설 당선과 관련된 기사

이육사는 1932년 3월 29일 '대구(大邱)에서 이활(李活)'의 이름으로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를 발표하였는데, 이보다 열흘가량 앞서 1932년 3월 18일자 『조선일보』에 「改造社 懸賞小説에 張君이 首位로 當選」이라는 제목의 대구발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改造社 懸賞小説에 張君이 首位로 當選 (『조선일보』 1932. 3. 18. 석간 2면)

慶北 小作農 生活을 描寫
大邱가 나흔 天才의 作家

【大邱】대구 남산정(南山町) 사백칠십사번지 장혁인(張赫寅)('寅'은 '宙'의 오식—인용자) 씨는 작년 가을 동경개조사(東京改造社)의 대공문예현상모집에 아귀도(餓鬼道)란 소설을 응모하였든바 금번 수만흔 응모작품 중에 **압도적 인기**를 가지고 수위에(一等은 엽고 二等的 首位) 당선되야 칠백오십원의 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 소설이 개조 지상에 발표되는 달은 일반독자에게 만흔 충동을 일으킬 것이라 한다

장씨는 년 이십팔 세의 청년으로 대구고보(大邱高普) 재학 당시부터 문예에 만흔 취미를 가지고 졸업한 후 동경에 류학하며 초의를 굴치안코 그 방면에 몰두하든 중 조선에 **로라와**(‘로’는 ‘도’의 오식 - 인용자) 경북레천(‘군’이 누락됨 - 인용자)지보보통학교(慶北醴泉郡知保普通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스며 소설을 쓰기 시작하야 재작년에 한번 응모한 일이 잇섯는대 락선되고 금번이 두 번째라고 한다 당선된 『아귀도(餓鬼道)』의 내용은 레천 지방에 삼년 동안 계속한 한재와 탐욕스러운 지주들의 착취 및해 파멸을 하야 **피폐의 극도에 헤매는 소작농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

위 기사에 나오는 “탐욕스러운 지주들의 착취 및해 파멸을 하여 피폐의 극도에 해매는 소작농민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그린 것이라고 한다”라는 말은,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에 나오는 “地主들의 貪慾을 滿足식힌다는 것을”이라는 말과 내용적인 면에서 상통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육사가 작성한 것이 분명한²⁷⁾ 1930년 7월 17일 『중의일보』 조간에 실린 대구발 기사 「참(慘)! 복사(覆砂)에 누루매몰(累累埋沒)된 부란시우육십개발굴(腐爛屍又六十個發掘)」에 나오는 “불쌍한 내 자식과 사랑하는 부모의 시체를 찾고자 해매는 가련한 권솔(眷率)들은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시체를 부둥켜안고 땅을 두드리며 슬피 우는 광경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며”라는 문장과 비교하여 ‘~해매는’의 글투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위 기사에서 ‘로라와’는 ‘도라와’의 오식이 분명한데, 이육사가 쓴 ‘도’의 필적(筆跡)은 ‘로’로 오독될 여지가 있었던 듯하다. 이육사가 1938년 4월에 발표한 「초가(草家)」라는 시의 제4연 제1구에 나오는 ‘참새로 날라가고’의 ‘로’가 ‘도’의 오식으로 보아 ‘참새도 날라가고’로 읽어야 한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4연 제1구인 ‘피로가군 이삭에 참새로 날라가고’를 해석할 때, ‘이삭에’를 ‘이삭이’의 오기(誤記)로 보거나 ‘참새로’를 문맥상 ‘참새도’의 오식으로 보는데, ‘이’를 ‘에’로 오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도’를 ‘로’의 오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사실 이육사가 「신석초(申石艸)에게 (2)」보낸 엽서의 원본을 보면, “그러나 바다는 정말 나로부터 季節에 對한 감각을 빼서 바릴지도 모르겠네”라는 문장에서 ‘나로부터’의 ‘로’와 ‘바릴지도’의 ‘도’가 비슷한 모양으로 쓰여 있는데,²⁸⁾ 이육사의 필적에서 ‘도’는 ‘로’로 오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더욱이 위 기사의 지면 조판을 보면 “장씨

27) 홍석표, 「이육사의 『중의일보』 기사 시기의 언론 활동과 고향 상실의 문학적 모티프」, 『상허학보』 64집, 상허학회, 2022, 189-199쪽 참조.

28)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1』, 519쪽 참조.

29) 1931년 11월 1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소작 농민의 참상과 관련된 대구발 기사 「四百作人 結束 해 作料不納同盟 組織」에는 “최후의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항쟁하자 하여 일체의 작료를 납입

는 년 이십팔 세의 청년으로~”라는 단락이 인용문처럼 들여쓰기로 편집되어 있는데, 직접화법이 아닌 간접화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취재한 인터뷰 내용을 실은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이육사는 위 기사를 작성할 때 이미 장혁주와 인터뷰를 가졌고, 그것을 토대로 열흘가량 뒤 기명으로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를 발표한 것인지도 모른다.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는 “(上略)대구 가티 적은 도시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글의 앞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아 지면에 실린 것보다 훨씬 긴 글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육사가 장혁주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가진 이유는 무엇이 있었을까? 물론 그것은 일본 가이조사(改造社)의 현상공모에 수위로 당선된 장혁주가 대구에 살고 있어 대구의 자랑으로 특기할 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위 기사의 부제인 「慶北 小作農 生活을 描寫」라는 말을 생각할 때, 소작쟁의를 다룬 작품에의 관심도 그 이유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육사는 ‘아귀도(餓鬼道)’의 농촌 현실을 묘사한 장혁주의 소설에 크게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아귀도(餓鬼道)는 대승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육도(六道), 즉 지옥도(地獄道), 아귀도(餓鬼道), 축생도(畜生道), 아수라도(阿修羅道), 인간도(人間道), 천도(天道) 중의 하나로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상징되는 세계’를 일컫는다.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대구발 기사 중에 경북 지역의 소작농민의 참상과 소작쟁의 등에 관한 많은 기사가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4. 중국 동포의 귀환에 관한 기사와 ‘지방인사의 의견’

1931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滿洲事變에 쫓긴 歸還同胞의 哀話」라는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이 기사는 신문의 6면 상단 오른쪽에 배치되

치 안코 모다 십리나 가까이 되는 동맹사무소를 다니며 연락하여 한아의 범칙자로 나지 안도록 감시하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범칙자로’에서 ‘로’는 ‘도’의 오식이 분명하다. 앞으로 검토하겠지만, 이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도’가 ‘로’로 오독된 것이 우연이라기보다 그렇게 오독될 수 있도록 쓴 이육사의 필적 때문으로 짐작된다.

어 ‘지방시론’과 같은 공간에 실렸는데, 일반적인 지방 뉴스와 다른 성격의 글로 취급한 듯하다. 이 기사는 보통의 기사라기보다 보고문학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소품(小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滿洲事變에 쫓긴 歸還同胞의 哀話 (『조선일보』 1931. 10. 22.
석간 6면)

도보로 휘남에서 무순까지
고향에 오긴해도 집도 업서

【大邱】느린 가을 저녁날의 선선한 바람이 『후란네투』에 싸인 거리의 잇는 아희들과 녀인네들의 뺨을 유혹적으로 스쳐가든 지난 팔일 오후 삼시 조선의 도시마다에는 요란스러운 방울소리와 함께 각 신문사의 호외에는 특호활자로서 일본군의 비행대는 장학량(張學良)의 근거지인 금주성(錦州城)에 폭격을 시작하였다고 전하자 십만이란 동포를 만주별관에 내어쫓친 조선안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다지 편한 마음으로 지나지는 못하였으며 황막한 만주대륙에 양치는 아희들의 **채죽소래도** 끈처지고 험상스러운 바람결에 **길로 큰 고랑들이 목노아 우는 그날!** 바로 그날 쫓겨난 나그네의 **불마진** 마음들은 뛰었다 그들에게는 관군도 적군도 업섯다 다만 『푸로페라』의 폭음! 폭탄! 총소래! 그리고 공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잇섯으며 그들은 어느 국기(國旗) 밋홀 기여들어가야 실낱가튼 생명을 보전하겠다는 것조차 몰났다 요녕성휘남현일본령사분관(遼寧省輝南縣日本領事分館)에는 경비전화벨이 칠통하게 울렸스니 중국 패주병 이천명이 지방농촌으로 밀려갓스니 령사분관까지도 철귀하라는 명령이였으며 순보(巡捕)들까지도 도망을 가는 판이였섯다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니 이러한 급보를 듣기 일본 전까지도 그 성안의 고요한 한편의 적은 농장에는 지금부터 십년 전 그 무섭든 체일차 세계대전의 여파를 받아 무고한 조선에까지 **경제공황이 극도**에 달하였을 때 정든 고향산천을 떠나 미지의 나라 만주에 장래의 황금몽을 꿈꾸며 떠나간 서간도 붓다리가 수업시 만엇지만은 그 중에도 경상북도영천청도고령(慶尙北道永川

淸道高靈) 등지의 셋가족의 일단이(모다 사돈되는 사람들) 당시 사십여 세의 방태두(方泰斗)란 사람을 단장격으로 그들의 가장 소중한 분묘와 친척을 떠나 삶 의 길을 차저 한길혼 압록강을 건널 때 신기루(蜃氣樓)가티 뺏친 무쇠다리에 뿌린 눈물은 몇번이였스랴 당초부터 몇푼엇치 되도안는 **가장집물**을 방매한 것이라 러비조차 다 업서지고 말엇스니 그때부터는 그들은 혼흔이 나아가며 음흉한 중국 지주들의 가진 학대를 밋어가며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구차한 생명을 이어가는 동안에 늙은이 죽고 새 생명은 나게되여 나절문 안악네는 모다 **귀여운 애기네**를 안게 되여 수만흔 박해를 량식삼아 새로히 살너든 야튼 꿈도 어즈러운 말발굽소리에 여지업시 깨여지고 십월팔일 밤 재련(在蓮)아 차련(且蓮)아 우지를 마라 백두산 허리를 너머가자 하는 어머니의 말소리는 **눈물에 짓고** 아버지의 소리는 울분에 떨였다 그리하여 남부여대³⁰⁾하고 사든 살임을 버린 십구명일행(十九名一行)은 무순(撫順)까지 오백여리를 맨발로 몇날몇밤을 **도보로 걸어온** 후에는 발은 터지고 숨은 막혀 부인과 아희들은 그 자리에 뼈를 못칠지언정 다시는 더 전진할 수는 업섯슴으로 그곳의 민회(民會)를 차저 교섭한 결과 다행히 안동현(安東縣)까지 차를 타고 오게는 되였스나 또다시 차비는 업서지고 원망스러운 압록강물은 십년을 흘러도 한모양으로 제품에 자라난 불상한 사람들을 반가이 마지하든 안었다 **생각다못한** 일행은 신의주부(新義州府)에 교섭한 결과 조선 사회사업협회(朝鮮社會事業協會)의 알선으로 기차는 오할(五割)로 승낙을 밋고 그 나머지 차비는 사회사업협회가 부담하야 그들의 고향인 경북영천 청도 등지에 도라가고저 지난 십칠일 오후 사시 대구역(大邱驛)에 도착되는 남행렬차로 대구역에 내려 눈물 맺친 이야기를 **귀자에게 말한 뒤에** 하로밤을 새이고 십팔일 아침 각각 집도 업는 고향으로 **도라가기는 하엿다만은** 그들은 지금 어느 **하날 밋헤서 서리에 덤힌 로숙을 하고 잇는지?** (똥)

위 기사에 나오는 ‘채죽’이라는 말은 시「말」의 ‘채죽에 치친 말이여!’라는 시구에서, 시「절정」의 ‘매운 季節의 챗죽에 갈겨’라는 시구에서, 소품(소설)

30) 남부여대(男負女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세간을 이고 지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황엽전」의 ‘주림과 치위가 매운 챗죽 갖치 그들을 휘갈것습니다’라는 문장에서 반복된다. 그리고 ‘목노아 우는’이라는 글투는 「황엽전」의 ‘여울이 목노아 울고가는 江가이엿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시 「소년에게」의 ‘큰江 목노아 흘너’라는 시구에서, 시 「광야」의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게하리라’라는 시구에서 반복된다. ‘불마진’이라는 말은 ‘불(에/을) 맞은’, ‘총(탄)(에/을) 맞은’의 뜻인데,³¹⁾ 시 「해조사」의 “曠野를 울니는 불마진 獅子의 呻吟인가?”라는 시구에도 등장한다. ‘가장집물(家藏什物)’이라는 말은 ‘집에서 사용하는 살림 도구’, 즉 세간 또는 집세간을 가리키는데, 1930년 7월 17일자 『중외일보』에 ‘이활(李活)’의 이름으로 발표된 「축일발로(逐日發露)되는 참해비극(慘害悲劇) 사망불명인원육십명(死亡不明人員六十名)」이라는 기사에 나오는 “기타 우마계돈(牛馬鷄豚)의 가축과 가장증물은 류실된 것이 부지기수이다”라는 문장에서 ‘가장증물’이라는 어휘로 등장한 바 있다. ‘귀여운 애기’라는 말은 루쉰 「고향」 번역문에서 ‘귀여운 애기시절’이라는 말로 등장하고, ‘생각다못한’이라는 말은 「문외한의 수첩」에서 “그래서 나는 생각다못해 ‘웁스피어’의 『로미오와 쥘리엣트』를 얘기하기로 하고” · “생각다못해 俗談에 핑갑에 닭이라니”라는 문장에 등장하고, 「중국문학 오십년사」에서 “생각다못해 겨우 찾아낸 것이”라는 문장에도 등장한다. ‘어느 하날 밋해서’라는 글투는 앞서 검토한 바 있는 「讀者 慰安의 拾栗大會 開催」(1931. 10. 9)라는 기사와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에도 등장한다.

이처럼 어휘와 글투 등 언어적 특징으로 보아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 기사는 일반적인 지방 뉴스와 다른, 문학적 수사를 가미한 일종의 소품에 가까운데, 이후 이육사의 문학적 글쓰기의 추형(雛形)을 보여주는 듯하다.

위 기사가 이육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위 기사와 동일한 내용, 즉 동란의 중국 만주를 떠나 대구에 도착한 피난 동포를 다룬, 다음의 대구발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31)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 38쪽 각주22 참조.

避亂民 十七名 大邱驛에 下車 (『조선일보』 1931. 12. 1. 석간 6면)

【大邱】이십칠일 오후 사시 부산행 열차가 대구역에 도착하자 동란의 중국으로부터 구사일생을 도모하여 남녀로 육십칠명이 김덕암(金德岩) 리창순(李昌順) 씨 등의게 인솔되어 대구에 내려 하로 밤을 새이고 경북포항(慶北浦項)에 가서 수로로 그들의 고향인 강원도울진(江原道鬱珍)으로 도라간다고 하는바 그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현길해선쌍하진(中國吉林省吉海線雙河鎮³²)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금월 초생 일본군인이 그곳을 점령하자 중국 패잔병이 농촌으로 몰려들어 살 수가 없게 되어 그곳을 버서나 장춘(長春)에 와 노동보호회(勞働保護會)의 알선으로 차비도 반입으로 왔다는데 그중 연길현립중학삼학년(延吉縣立中學三學年) 리석윤(李碩允)(一九) 군은 기사를 대하여 다음과 가티 말한다

제만 수난 동포 구호에 대하여 귀사의 로력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들이** 장춘에 있을 때 귀사 특파원이 위문을 왔을 때는 **저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곳 동포들은 펍 깃버하였습니다 아직도 장춘에는 삼백여 동포가 피난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하로 한 사람의 생활비는 사전 내지 룽전인데 내지 동포들이 구호금품을 모집한다는 신문만 보아도 매우 깃버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포들은 모다 조선에 있는 화교(華僑)들을 오해치 말고 잘 지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고 하며 우리는 고향이라고 도라가도 떠난지 십사년 내지 이십년이 됨으로 집도 업고 조국이라고 생후 처음 도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실로 **호젓한** 감정이 있을뿐이라는 **리군의 명미한 눈에는 눈물조차 어리었다**

위 기사의 인터뷰 내용에 나오는 ‘저들’이라는 말은 ‘저희들’의 뜻인데, 이 육사가 번역한 루쉰 「고향」에서 “저들이 농사지은 껌쥬”라는 문장에도 등장하며, 앞으로 검토할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 「大邱府營 卍쓰運轉手들 動搖」

32) 길해선쌍하진(吉海線雙河鎮): 쌍하진(雙河鎮)은 현재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 용지현(永吉縣)에 속하며 용지현(永吉縣)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다. ‘길해선(吉海線)’은 ‘길해현(吉海縣)’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1931.9.6)와 「花園線 빠쓰는 積極的 阻止」(1932.4.6.)의 인터뷰 내용에도 등장한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호젓한’이라는 말은 이육사가 번역한 쉬즈모(徐志摩)의 시 「재별강교(再別康橋)」에서 ‘호젓이 호젓이 나는 돌아가리’라는 시구에도 등장한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인터뷰 내용은 “리군의 명미한 눈에는 눈물조차 어리었다”라는 말로 끝나는데, 「신진작가 장혁주군 방문기」에서 “그의 눈은 리지에 타는 듯이 빛났다”라는 말로 끝나는 데서 비슷한 글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위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검토한 「滿洲事變에 쫓긴 歸還同胞의 哀話」에서 ‘길로 큰 고랑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길’은 ‘사람 키 정도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3일 뒤인 1931년 10월 2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棉作 倍收計劃으로 沒落되는 慶北 農村」라는 기사에도 ‘길로 소순 보리’라는 말이 나오므로 이 기사도 살펴보자.

棉作 倍收計劃으로 沒落되는 慶北 農村 (『조선일보』

1931.10.25. 석간 3면)

손실 이만사천원은 누가 배상하며

오만사천 농민은 엇지 구제하나

農民은 當局을 非難

【大邱】경북도농무과(慶北道農務課) 면작배수계획(棉作倍取計劃)은 립안 당시부터 도내 일반 농민에게 만흔 불평이 있다는 것도 불구하고 관력으로써 강제로 실시하여 오며 삼년 전과 가튼 희유한 한밭이 있슨 것을 기회로 내한농작물로 면화를 풀너서 이것을 장려하여온 것만은 고마운 일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경상북도라고 어느 해든 한밭이 계속될리도 업고 춘기 경작할 때 보리를 가라 길로 소순 보리가 심여일만 지나면 곳 농민의 입으로 드러갈 것을 강제로 갈어 제치고 면

화를 경작하였든 것이 금년은 평년과 가티 우량이 만허서 본 도내의 면작은 완전히 실패에 도라가고 말었는데 면화의 가격은 적어도 작년의 칠전사리나 되어야 농비를 감하고 겨우 수지가 마질 것인데 금년은 매근에 대하여 사전 좌우의 가격 맞게 되지 안음으로 도내 면화경작자 십오만사천륙백이십여명은 그 생활이 **파멸의 제일보를 드리고 있는바** 면화 한근에 료전식하여도 사십팔만원이란 돈이 농촌에 퍼질 것인데 금년은 그 반절밖에 되지 않는 이십사만원밖에 되지 안함으로 나머지 이십사만원은 나올 데도 업슬 뿐 아니라 도당국이 삼사개소의 방적회사(紡績會社)를 위하여 수만흔 농민을 무시하고 다 익은 보리를 가라제친 후에 면작을 장려한 결과 이와가튼 성적을 실증하게 될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는 원성이 일반 농민에게 파급되어 당국을 비난하는 소리가 높혀간다고 한다

위 기사는 내용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만연체로 구성하는 이육사 글의 문체적 특징을 공유한다. 특히 ‘농민의 입으로 드러갈 것을 강제로 갈어 제치고 면화를 경작하였든 것이 금년은 평년과 가티 우량이 만허서’라는 문장에서 ‘경작하였든 것이~’라는 글투는 앞서 살펴본 ‘지방시론」(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 나오는 ‘그래도 도라다니는 것이 그날 하루를 다 보내고’라는 문장에서 ‘도라다니는 것이~’라는 글투와 겹친다. 또한 위 기사에는 ‘길로 소순’이라는 말 이외에도 ‘고마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살펴본 ‘지방시론」(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에 나오는 ‘最多數의 惡地主가 있다면 地主란 그다지 고마운 代名辭가 못되니까’라는 문장에도 ‘고마운’이 등장한다. 이처럼 어휘와 글투 등 언어적 특징으로 보아 위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위 기사는 면작(棉作)과 관련된 농업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 방면의 기사로서 1932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窮況打開策如何 地方人士의 意見(一)」이라는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조선일보는 1932년 신년 기획으로 「窮況打開策如何 地方人士의 意見」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932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8회에 걸쳐 연재했고, 제1회 글인 「못살겠다는 소리 뿐 窮況打開策如何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地方

人士의 意見(一)」의 모두에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다. “世界를 휩싸고 도는 不景氣가 絶頂에 達하여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呻吟소리가 날노 읊하가는 터이오. 朝鮮도 全人口의 八割을 占하는 農民이 米價暴落으로 死線에 彷徨하여 그 窮狀은 形言할바가 아니며 都市도 商業者는 大資本의 壓迫과 農村購買力 減退로 날로 不振하여 가는 現狀으로 그 對策을 一日이라도 遷延할 수 업는 것이 있다. 到處에 살 수 업다는 소리뿐이오. 이대로 간다면 將來는커녕 目前의 일이 딱하기 한량 업는 터임으로 本社에서는 各支局員을 總動員식히어 各其 該地方 發展策과 農村의 現狀、對策及 商界의 現狀、對策의 三問으로 난우어 地方人士의 高見을 들어 이어 紹介하는 바이다.” 그리고 “第一問 내 地方 發展策 如何. 第二問 農村破滅의 現狀과 그 對策 如何. 第三問 商界不振의 現狀과 그 對策 如何”라는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어 ‘평양’, ‘인천’, ‘강화’, ‘대구’, ‘웅기’, ‘천안’ 등지의 인사들의 의견을 실었다. 그중에서 ‘대구 인사’로는 조주영(趙柱泳) 씨가 제1문을, 서만달(徐萬達) 씨가 제2문을, 이근무(李根茂) 씨가 제3문을 맡아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못살겠다는 소리 뿐 窮況打開策如何 (『조선일보』 1932. 1. 1.

석간 14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잇슬가?

地方人士의 意見(一)

(중략)

【大邱】

資本家の 覺醒

農民意識 喚發

商業家 團結 必要

第一問 趙柱泳氏談

大邱 地方은 歷史 깊은 嶺南 第一의 政治 四首府이었고 現在도 四大 都市의 하나로 所謂 大大邱의 建設이란 標語下에 近代都市를 形成하여 가고 있는 만큼 多數한 問題가 縱橫錯雜하게 노혀 잊지마는 富者만기로 有名한 이따의 資本閥들은 慈善事業은 안홀 망정 企業이라도 하여야 할 것인데 蓄妾服藥小作人搾取에 餘念이 업슬 뿐이오 그중 가장 有志한 分들이 資本이 있다고 하면 近來 굉장이 떠드는 日師團設置誘引運動에 熱中하고 있다 이것이 實現된다면 果然 내 地方 發展에 有益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日本師團이 朝鮮에 進出한다는 것은 적어도 日本國防에 關한 問題인 以上 軍部가 大邱에 師團을 두는 것이 必要타고 認하면 既定한 方針인 以上 誘引運動을 안허도 大邱에 設置할 것이오 國防上 不必要타면 雖億千萬圓을 들이여 運動을 하여도 所用이 업슬 것이다 하물며 그 設置費의 一部로 우리 民衆의 屢十萬圓을 負擔하여 寄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 만약 그만한 金額을 負擔할 能力이 있다면 돈업서 昇格을 못하는 醫專問題도 있고 그外에도 다른 事業에 投資를 하여 大邱로서 南鮮에 唯一한 工場地帶를 만드는 것이 具體的 發展策일가 한다

第二問 徐萬達氏談

朝鮮農村의 破滅은 거의 形容收拾치 못할 程度에 일으러 왔다 그 遠因한 近緣은 數가 업스리만치 만켓지마는 첫재는 (中畧) 大多數의 農民은 너무나 無智하여서 優游不斷³³⁾으로 自己네가 當然히 主張하여야 할 權利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그들 주요 朝鮮의 知識群은 모다가 都會地中心으로 모히고 말어서 農民의 指導가 아조 缺乏한 것이 큰 原因이라고 본다 要컨대 千바리의 거름 잇서서 農事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計劃의 樹立 耕種施肥의 案配를 잘 하는 곳에 所期의 成績을 일우어 볼 수 있는 일이다 朝鮮農村의 破滅을 匡救함에도 農民

33) 優游不斷(우유부단):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을 뜻하는 '우유부단(優柔不斷)'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意識의 喚發로부터 먼저 하지 안하면 안 되리라고 맞는다 그러나 거듭 말한다 現下의 農民은 넘우나 無智하다 그래서 卑怯目屈한다 前의 虐政에 끄들인 그들은 眞實한 指導者조차 疑心하게 된다 말로나 일로써 水準을 낮추지마는 그들의 귀에는 잘 들어간다 **여기에 指導者의 悲哀가 숨었고** 그네들이 類를 차자서 都會地中心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首肯 안을 수 업는 點도 있다 그러나 先知者指導者로서 自任하는 그들은 이 民衆이 모아준 힘이 民衆에서 選出된 恩惠를 저버릴 수는 업는 일이다 나는 여기서 朝鮮農村改造의 條項으로서 經濟的으로 生産的으로 社會的으로 어떠한 어느 것을 느러놓기에 압서서 이 모든 것을 總轄할 本領으로서 먼저 知識群의 歸農을 提唱한다 그리하여 農民大衆에게 歷史的使命으로부터 오는 當然히 主張하여야 할 自己네의 權利를 發見식히는 곳에 朝鮮農村의 破滅을 匡救할 柱礎를 노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맞는다

第三問 李根茂氏談

金輸再禁으로 因하여 物價가 暴騰하느니 財界恐慌이 恢復되느니 하지만 元體世界的으로 財界恐慌이 深刻化하여 가는 此際임으로 그는 到底히 맞기 어려운 바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農產本位인 朝鮮에 잇서서는 恐慌의 打擊을 더욱甚하게 받게 됨으로 一般農村의 餘地업시 購賣力이 弱하여져서 買界가 不振되는 것인데 이 對策이란 것도 根本的으로 農村의 購買力이 回復되는 同時에 우리 商業도 自己實力 以上の 放漫的 事業의 擴張을 特히 注意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同時에 그러다고 事業을 너무 緊縮하거나 또는 財界不況에 對한 恐怖를 너무 늦겨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한다 自己實力이 미치는 데까지는 研究와 努力을 게을리 아니하며 勇意있게 事業을 振興하여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商業家로서의 大體團結이 必要한 同時에 더욱이 同業者間의 團結(從來의 反目을 도르켜)이 切實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는 ‘各支局員을 總動員식히어’ 작성되었던 만큼 ‘대구’ 부분은 대구지국 기자가 담당하였을 것이므로 이육사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위

기사에는 ‘慈善事業은 안홀망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망정’이라는 글투는 ‘지방시론」(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서 ‘勞賃을 못을닐망정’이라는 말로도 등장하며,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한개의 별일망정」(「한개의 별을 노래하자), ‘不死鳥는 안일망정」(「편복), ‘코를 찌를망정」(「문외한의 수첩), ‘破壞했다고는 할망정」(「중국 현대시의 일단면), ‘판 돈은 메리·픽포드」 안일망정」(「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 ‘公式은 안일망정」(「오중전회를 압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 ‘責任內閣의 首班은 되었을망정」(「위기에 임한 중국 정국의 전망), ‘변변치는 못할망정」(「고향)이라는 말로 등장한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여기에 指導者의 悲哀가 숨엇고’라는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蔣政權의 動向을 아는 한個의 秘密은 여기에 잠겨져 있다」(「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라는 문장으로, “여기 바다의 恩寵이 잠자고있다”·“여기 바다의 雅量이 간직여있다”·“여기 바다의 陰謀가 서리워있다”(「바다의 마음)이라는 시구로도 등장한다. 더욱이 제2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서만달(徐萬達) 씨는 이육사가 영천의 백학학원 교사로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며 농촌 사정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농촌사(農村社)을 조직한 바 있는 인물이다.³⁴⁾ 이상과 같은 글투와 인적(人的) 관계를 고려하면,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좀 더 검토할 것은, 서만달(徐萬達) 씨와 함께 의견을 개진한 조주영(趙柱泳) 씨, 이근무(李根茂) 씨는 어떤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조주영씨는

34) 이육사와 서만달(徐萬達) 씨와의 백학학원에서의 인연에 대해서는 이육사문학관 관장이신 손병희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窮況打開策如何 地方人士의 意見(一)」의 대구 부분의 기사를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주셨다. 이육사는 1920년 결혼 후 영천의 처가에서 백학학원 보습과를 마치고 1923년부터 백학학원에서 교편을 잡았는데, 이때 인연을 맺은 인물로는 權正惠, 金在昭, 李命錫, 李源鶴, 裴信煥, 徐萬達, 曹秉哲, 皮仁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서만달은 1920년 5-6월경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를 조직한 후 백학학원 교사로 참여한 바 있는데, 조선노동공제회 대구지회는 서만달을 비롯해 정운해·박기돈·한규석·홍순일·김하정 등이 조직했으며 노동야학과 강연회 개최, 소비조합 결성 등 대중계몽운동을 벌였던 단체였다. 서만달은 백학학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대구에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나 1925년 7월 대구에서 정운해·서상일 등과 함께 농촌사정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농촌사(農村社)를 조직했다. 또한 서만달은 1927년 9월 조직된 신간회 대구지회에도 참여했는데, 이때 대구지회 조사부 총무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육사도 나중에 신간회 대구지회 집행위원과 조사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성우,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7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153-154쪽 참조)

1928년 7월 27일 대구청년동맹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法律制度의 傾向」이라는 제목으로 기념 강연을 한 바 있고,³⁵⁾ 1930년 9월 30일 『동아일보』가 주최한 좌담회 「主要都市巡廻座談 12 第三 大邱篇(一)」에서 11명의 참가자 중 한 사람으로 상공업 방면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으며,³⁶⁾ 자신이 소유한 경작지의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감하해준 인물이기도 하다.³⁷⁾ 이근무 씨는 1931년 6월 23일 대구 조양회관에서 열린 전기료 저하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회의에서 전권을 위임받은 실행위원 10명 중 한 명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³⁸⁾ 1935년 1월 15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朝鮮 商工業의 現狀과 그 兩建工作의 具體的 方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씨비스는 진심이 필요’라는 소제목 하의 의견을 피력한 인물이기도 하다.³⁹⁾ 또 ‘이근무(李根茂)’는 이육사가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최초로 발표한 그의 짧은 글인 「一九三四年에 臨하야 文壇에 對한 希望」 설문에 대한 답이 실린 『형상(形象)』 창간호(1934년 2월)의 표지 다음에 나오는 광고 ‘茂英堂書店’의 주인 이름으로 나온다.⁴⁰⁾ 그리고 『형상(形象)』 3월 제2호에 실린 이형림

35) 「大邱靑盟紀念」, 『동아일보』 1928.7.27. “大邱靑年同盟에서는 지난 廿四日 午後 八時半 西城町 同會館內에서 創立 一週年 紀念式을 盛大히 舉行하얏는데 當夜는 旣뜻이 더운데도 모여든 會衆은 場內外에 實로 立錐의 餘地가 없는 盛況으로 警官의 嚴重한 警戒 가운데 張의 宇氏 司會로 宋斗煥氏 洪革波等君의 意味 깊은 祝辭가 있고 各處에서 온 祝文朗讀이 끝난 後 「法律制度의 傾向」이란 題下에 辯護士 趙柱泳氏의 熱辯을 吐한 紀念講演이 있서 聽衆에게 많은 感動을 주었다더라(大邱)”

36) 「主要都市巡廻座談 12: 第三 大邱篇(一)」, 『동아일보』 1930.9.30. 이 좌담회에서 조주영(趙柱泳) 씨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대구의 총체로 보아서는 번영될 터이지마는 조선인의 독특한 처지로 보아서는 현상유지도 어려울 줄 압니다. 대체(大體) 상공업의 발전이 잇셔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잘 보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상업하면 상업에는 금융기관이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인바 대구 조선인측 금융기관을 본다면 우리의 자력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을 점차 조선인의 손을 떠나는 경향이 잇습니다. 뿐아니라 상업기술로 보더라도 전보담은 조금 나흔 점이 잇다고 하겠으나 이를 일본인에 비하는 때는 어렵습시 못하며 게다가 상품이래야 일본인 도매상의 것을 갖다가 소매하는데 불과하니 결국 도매상의 이(利)를 보여주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 당분간은 현상유지가 어려울 줄 생각합니다.”

37) 「作人의 要求대로 小作料를 輕減」, 『동아일보』 1931.11.25.

38) 「電料減下運動 十名委員에 一任」, 『동아일보』 1931.6.26.

39) 「朝鮮 商工業의 現狀과 그 兩建工作의 具體的 方法」, 『동아일보』 1935.1.15. 이근무(李根茂) 씨는 이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상공업단체이면 문구는 문구상만이 잡화는 잡화상만으로의 순전한 동업자의 단체를 조직하여 친목과 단결에 힘쓰며 상품의 공동사업(共同仕入), 연합매출, 공동선전 등도 하며 상공회의소와 유력한 금융기관과의 연락을 취해나아가면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되리라 믿습니다.”

(李荊林)의 「二月 創作의 瞥見」이라는 글이 끝난 다음의 페이지에 ‘茂英堂書店’에 대한 전면 광고가 있는데, 역시 ‘이근무(李根茂)’는 그 주인 이름으로 나온다.⁴¹⁾ 문학잡지 『형상』은 이육사와 『중의일보』 대구지국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고 대구청년동맹에서도 함께 활동한 바 있는 이갑기(李甲基)가 펴낸 잡지인데, 이형림(李荊林)은 이갑기의 필명인바, 이육사·이갑기·이근무 사이의 인적 관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주영 씨는 소작료 감하를 직접 단행한 바 있는 상공업계 전문가로서, 서만달 씨는 인적 관계를 고려한 농촌문제 전문가로서, 이근무 씨는 인적 관계를 고려한 상업계 전문가로서, 이육사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쩌면 이육사는 세 인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도 자기 개인적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서만달’ 씨는 ‘조선 농촌의 파멸을 광구(匡救)하는’ 데 가장 먼저 ‘농민의식의 환발(喚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 대중에게 역사적 사명으로부터 오는 당연히 주장하여야 할 자기네의 권리를 발견시키는 곳에 조선 농촌의 파멸을 광구(匡救)할 주초(柱礎)를 놓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농민 대중의 각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을 의식화할 지식군(知識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운 것이다. 주지하듯이 이육사는 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을 앞두고 교장이던 의열단(義烈團) 단장 김원봉(金元鳳)에게 호출되어 금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조선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조선으로 돌아가서 노동자·농민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여야 한다”⁴²⁾라고 말한 바 있는데, 당시 이육사는 노동자·농민의 의식화 문제를 자신의 가장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농민의식의 환발(喚發)’을 강조한 위 기사는 서만달 씨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육사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0) 『圖書文房具·額緣洋品·月刊雜誌 大丘府本町一丁目 茂英堂書店-主 李根茂-電話 七八九, 『形象』2月創刊號(新興文化社, 1934.2).

41) 『圖書文房具·洋品雜貨·樂器運動具·畫具額緣·月刊雜誌 大丘本町一丁目 茂英堂書店-主 李根茂-電七八九番, 『形象』3月第2號(新興文化社, 1934.3). 47쪽.

42) 『李活 신문조서』,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國史編纂委員會), 157쪽.

5. 소작 농민의 처지와 지주의 횡포에 관한 기사

제2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는 이 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글에 앞서 1931년 9월 15일자 『조선일보』에 「無理無雙한 慶北道內 小作條件」라는 제목의 대구발 기사가 무기명으로 실렸다. 이 기사에는 “더욱이 작년 가튼 해는 과거 삼년간 거둬온 흉작의 직후 처음 풍작과 쌀값이 폭락한 결과 수만흔 악덕 지주들이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증수한 까닭에 쟁의가 첨예화하여 경북도에서 직접 취급한 쟁의가 사십건에 달하였으며 채귀들이 소작인들에게 립도차압(立稻差押)한 것이 사백건 이상이나 되었는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내용 면에서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와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작년 가튼 해는 과거 삼년간 거둬온 흉작의 직후 처음 풍작과 쌀값이 폭락한 결과’라는 말이 ‘지방시론」에서는 ‘過去 三年間은 오늘날까지 繼續하는 不景氣 속에서 凶작이 繼續되었고 昨年 一年만은 僥倖히 豊작이였으나 未曾有의 米價暴落을 보았다’라는 말로 반복된다. 또한 ‘지방시론」에 나오는 ‘나만흔 父母와 나 어린 (妻)子’는 1932년 2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無理한 作權移動으로 小作農民 流離彷徨」이라는 제목의 대구발 기사에서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라는 말로 다시 등장하는데, ‘子’ 앞에 ‘妻’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기사도 ‘지방시론」 작성자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지방시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와 「無理無雙한 慶北道內 小作條件」 및 「無理한 作權移動으로 小作農民 流離彷徨」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모두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無理無雙한 慶北道內 小作條件 (『조선일보』 1931.9.15. 석간 6면)

악덕지주 발호로 쟁의가 첨예화

當局서는 小作慣行調査

【大邱】악덕 지주가 만키로 유명한 경북도내에는 일부 지주를 제한 외에 거의 룩할의 소작료를 지주가 바더드리고 그 외에 당연히 지주가 부담할 지세까지도 소작인에게 징수하되 만약 이에 복종치 안할 때는 용서업시 소작권을 이동함으로 소작인들은 울며 겨자 먹듯이 지주의 야욕을 채워주는데 더욱이 작년 가튼 해는 **과거 삼년간 거둬온 흉작**의 직후 처음 풍작과 쌀값이 폭락한 결과 수만흔 악덕 지주들이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증수한 까닭에 쟁의가 **첨예화**하여 경북도에서 직접 취급한 쟁의가 사십건에 달하였스며 **채귀**들이 소작인들에게 립도차압(立稻差押)한 것이 사백건 이상이나 되었는데 금년에도 수확기를 앞두고 채귀들의 발호와 납세기에 악덕지주들의 소작인에게 납세부담으로 인하여 쟁의가 격화할 것을 예상한 경북도 당국에서는 소작법(小作法) 제정의 참고자료 겸 소작관행 조사에 전력을 다하는 중인데 소작조건이 상세히 판명되는데 따라 악지주의 유린 미테서 소작인들은 과연 얼마라도 구원될 수 잇슬가 하여 일반은 주목하고 잇다고 한다

위 기사는 소작인들에 대한 악덕 지주와 채귀들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새로운 소작 조건을 열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사에 나오는 ‘채귀’라는 어휘도 ‘지방시론’ 收獲期를 앞두고 地主들에게)에도 나오거니와 ‘첨예화’라는 어휘도—앞으로도 검토할 것이다—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많은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므로 위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無理한 作權移動으로 小作農民 流離彷徨 (『조선일보』

1932. 2. 16. 석간 6면)

과중한 소작료와 채귀에 줄너

농우까지 팔고 소작답도 떼여

慶北一帶 農村의 慘狀

【大邱】해를 거듭한 흉작과 지주들의 소작료 과증과 그 우에 무리한 공과금의 부담과 교활한 채귀들에게 줄니면서도 구사에 일생을 도모코저 애를 쓰며 요원의 불과 가티 일어난 것이 작년 가을 경북일대의 소작쟁의이었다 그때는 지주들도 일시 사태의 악화를 두려워 다소간 소작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후환을 막고저 소작권이동증명서(小作權移動證明書)를 함부로 납발하였습므로 지은 농사는 다 주고 모자라는 것은 장리나락을 엇어 밧치며 세금과 농채는 소를 팔어 감흔 후 경지까지 빼앗기고 보니 **먹고살길도 없거니와 빚쟁이에 쫓려 류리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중인데 그중에도 경북달성군옥포면(慶北達城郡玉浦面)에는 간경동(干京洞)을 비롯하여 면내 엇던 동리든지 한부락에 두세집식은 평균 빚에 잡힌 **가장 집물을 그냥 버리고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를 다리고 어두운 밤에 구걸의 길을 떠나는 이가 만흔바** 이것은 경북내 엇던 농촌이든지 거의 일반적 사실이라고 한다

위 기사는 ‘먹고살 길도 없거니와 빚쟁이에 쫓들려 유리하는 농민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두운 밤에 구걸의 길을 떠나는’ 농민들의 참상을 묘사하고 있다. 위 기사에는 ‘가장짐물’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가장짐물’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육사가 종종 사용하던 어휘이다. 어휘와 글투로 보아 위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밖에 소작 농민의 참상과 소작쟁의 및 지주의 착취 횡포를 다룬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慶北의 稻作 平年作은 絶望 (『조선일보』 1931.9.7. 석간 4면)

그나마 조상을 넘려야야

一般農民 戰戰兢兢

【大邱】경북도내의 농작물은 이양기부터 한밭이 심하여 례년보다 이십일가량이 나 늦게 이양을 맞치고 그후 늘 그후의 부조로 못사람의 마음을 조리게 하다가 팔월에 드러 일기의 순조가 보이어 거의 평년작의 희망이 있든바 월말부터는 밭수

괴인 만큼 **년형**을 좌우하는 판인데 두차례나 기록적 태풍이 지나가고 기온도 전년보다 약 일개월쯤 속히 저하되야 평년작을 바라든 **희망도 꿈으로 살어지고** 이 우에 조상(早霜)이나 이슬가 하여 일반 농민은 전전궁궁한다고 한다

위 기사에는 ‘희망도 꿈으로 살어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어지고’는 ‘사라지다’의 뜻인바, 이육사가 자주 사용하던 글투이다. 이를테면, “大邱人의 記憶에쫓차 살어진 夭死團體가 있다”(『대구사회단체개관』)라는 문장에도, “찬 재(灰)처럼 살어질 때”(『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라는 문장에도 등장한다. 또한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살어지긴’(『황혼』), ‘살어지게하리’(『재별강교』), ‘일어났다는 살어지는’(『계절의 오행』), ‘살어질 것입니다’(『질투의 반군성』), ‘살어질 줄 모르는’(『청란몽』), ‘살어지지 안엇든’(『고란』)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오는 ‘년형’이라는 어휘, 즉 ‘연형(年形)’은 ‘농사가 잘되고 못된 형편’ 또는 ‘농사가 되어가는 형편’을 가리키는데, 앞으로 검토할 1931년 11월 10일자 대구발 기사「小作料 過徵으로 作人 立稻不刈」에도 등장한다.

立稻差押等手續 大邱에 三千餘 (『조선일보』 1931. 10. 15. 석간 2면)

채권자는 흥업회사 금융조합 등 農村의 破滅은 去益甚

【大邱】살인적인 경제공황은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안코 **급각도로** 파멸에 떠러트리고 잇는 것은 사실이다 근간 대구지방법원에서 차압수속을 접수한 것이 삼천 일백칠십삼건이나 되는데 그 대부분은 최근 몇주일 동안에 격증한 것과 도내에서도 평야가 만코 농산물이 풍부한 영천(永川) 청도(淸道) 달성(達城) 칠곡(漆谷) 등지의 농민들에게 립도(立稻)를 차압하는 것이라고 한다 채권자로는 흥업회사(興業會社) 무진회사(無盡會社) 금융조합(金融組合) 등이며 그 외의 일흥난 고리대금업자들인데 수삼년 전에 농자(農資)로 대여주었던 것을 그가티 수획

할때 차압하는 까닭에 일반 **궁농들은 누러케 익은 벼가 들로 한아가득 하여도** 그림에 떡과도 가티 자귀네 입에 들어갈 것은 업슴으로 파산을 안을 수 업는 비참한 형편에 있다 이 모양으로 가는 곳마다 립도차압이니 무엇이니 하는 차압이 만어저 일반 농촌의 인심은 자못 불안한 중에 있다 이 모양으로 지나가다가는 **취귀**(‘채귀’의 오식인 듯 - 인용자)에 쫓기어 도망하는 자도 무수히 생길 모양이다

위 기사에는 ‘급각도’라는 어휘가 나오거니와 ‘궁농들은 누러케 익은 벼가 들로 한아가득 하여도 그림에 떡과도 가티’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한아가득하여도’라는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그 고흔 반딧불이 차츰 없어질 때에 가을벌레의 찬소리가 들로 하나 가득 차고”(『은하수』)라는 형태로, “순경들의 예리한 눈초리를 등으로 하나 갖득 늦기면서”(『루쉰 추도문』)라는 형태로, “창틈을 새여드는 아츰 햇빛을 몸에 하나 가득 받고”(『골목안』)라는 형태로 반복된다.

小作料 過徵으로 作人 立稻不刈 (『조선일보』 1931. 11. 10. 석간 6면)

벼는 논에서 썩게 된다

【大邱】소작 문제로 말성 많은 경북도내에 도조문제의 말성이 한창 만흔 것도 바로 이때이지만은 여기 또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지주 한 분이 있스니 대구부경정이정목(大邱府京町二丁目) 정모(鄭某) 지주는 달성군성서면(達城郡城西面)에 자귀 소유의 논이 일정보(一町步) 가량 있는데 올가티 시원치 안은 **연형**에 오할도 과한 것을 도조를 룩할이 넘도록 매엿슴으로 그 논을 부치는 십여명 소작인들은 이것이야말로 시대역행의 일일 뿐아니라 이것은 추수를 한다 하여도 피와 땀을 흘려 지은 열매가 자귀네의 손에 드러올 것이 업슴으로 업동은 갖가워 오고 굴머죽기는 일반이니 차라리 추수를 안는 것이 편타 하야 도내의 추수가 거의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는 못되엇슬**망정** 일정보나 되는 따⁴³⁾에 아직도

벼가 □선대로 썩을는지 모르며 일반은 지주를 비난하여 마지 안는다고 한다

위 기사는 지주들이 요구하는 높은 도조를로 인하여 피와 땀을 흘려 지은 열매가 자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굶어 죽기는 매일반이라 추수도 못하고 있는 소작인의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연형’이라는 어휘도 나오거니와 ‘못되엿슬망정’이라는 말도 나오는바 ‘~망정’의 글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육사의 글에 자주 등장한다.

四百作人 結束해 作料不納同盟 組織 (『조선일보』

1931. 11. 18. 석간 7면)

군수와 지주에 진정서 제출

聯盟全體團結鞏固

【大邱】경북 경산군 진량면 평사동(慶北慶山郡珍良面平沙洞) 아사동(阿沙河) 다문동(多文洞) 평사동(坪沙洞) 문전동(文川洞) 동 다섯부락에는 흥업회사(興業會社) 동척회사(東拓會社)를 비롯하여 개인으로는 전중충차랑(田中忠次郎) 김홍배(金弘培) 안병길(安柄吉) 등 굴지의 재산가들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인들이 전부인바 금년은 추수의 결과 수확이 평년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데도 불구하고 도조를 평년작의 고률(高率)로 된 계약대로 납입하라는데 분개한 소작인들은

朴在根 金永浩 金容達 朴在鎬 金達元 盧昌烈 朴淳夏 李在春

지난 구일 오전 십일시 다문동서숙(多文洞書塾)에서 삼백오십여명의 소작인을 소집하여 초과작료불납동맹(超過作料不納同盟)을 조직하고 우리가 피땀을 허비하여 지은 농사를 이다지도 무리하게 작료로 공과금으로 물게 되면 나중에는

43) 따: ‘땅’의 방언.

유리표박과 아사를 면치 못할 것이나 최후의 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항쟁하자 하여 일체의 작료를 납입치 안코 모다 십리나 갖가이 되는 동맹사무소를 단니며 련락하여 한아의 범칙자로(‘로’는 ‘도’의 오식인 듯 - 인용자) 나지 안토록 감시하며 만약 맹원으로서 규측을 어기고 작료를 납입하면 언어(言語)와 수화(水火)도 불통한다는바 십사일에는 동맹의 결의로 지주에게 가혹한 작료를 받지 안토록 하여 달나는 진정서를 군수에게 보냈으며 또 지주에게도 성명서를 보내겠다고 하는바 사태는 장차 주목거처(‘처’는 잘못 들어간 글자인 듯 - 인용자)리라 한다

위 기사는 유리표박과 아사를 면치 못할 처지에 놓인 소작인들이 지주에 대항하기 위해 초과작료불납동맹을 조직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한아의 범칙자로’라는 말에서 ‘로’는 ‘도’의 오식으로 짐작되는바, 이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육사가 쓴 ‘도’의 필적이 ‘로’로 오독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金圃洞小作人 賭租 내니 糧米 업서 (『조선일보』 1931. 12. 2.

석간 7면)

十斗落小作에 借金은 百餘圓

地主徐氏의 怨聲藉藉

【大邱】경북달성군논공면금포동(慶北達城郡論公面金圃洞)을 비롯하여 그 부근 부락에는 대구부 남정 대시주 서병국(大邱府南町大地主徐丙國)씨의 토지가 삼백두락쯤 있는데 금넌은 이양기에 한발로 인하여 만중한 결과 추수가 보잘것 업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지기에 칠두 내지 십두의 도조를 매엿슴으로 오십여 작인들이 모다 수확을 거절하고 지주 서씨에게감도를 진정하였든바 서씨 말이 십월십구일까지 수확을 맞치면 다소간 소작료를 감하여 주겟스나 그렇지 못하면 내 토지의 소작인으로 간주할 수 업슴으로 단연코 소작권을 이동한다고 매우 공교로운 위협을 하여 완전히 수확을 식힌 후 오늘날까지 하등 말이 업슬 뿐

아니라 소작인들은 타조의 결과 매 두락 칠두의 소작료를 맨데는 십두밖에 나지 안고 십두의 소작료를 맨 곳은 십오두밖에 나지 안었는데 그우에 말세(斗稅)라고 사음이 매 두락에 한되 혹 두되의 버를 거두는데 이래저래 다 떼이고 농비와 세금과 인부비를 치면 십두락을 소작하는 사람이면 백원 내지 이백원의 부채를 질머져서 명년 농사는커영 금년 농사를 지여 오히려 빚만 지게 됴므로 장려쌀도 어더 먹을 수가 업서서 이 삼동설한을 엇지 지낼지 원성이 창천하다고 한다

위 기사에도 ‘하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다. 특히 위 기사에는 “이래저래 다 떼이고 농비와 세금과 인부비를 치면 십두락을 소작하는 사람이면 백원 내지 이백원의 부채를 질머져서”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이육사가 번역한 루쉰 「고향」에서 룬투(윤투)가 “사방 돈만 떼이고 해도 신원할 곳도 없고 추수는 없쥬. 농사라고 지어도 그것을 팔려고 나가면 몇 차례나 세금을 제키고, 그렇다고 팔지 않으면 썩힐……”이라고 말하는 대목과 겹친다. 어쩌면 이육사는 취재 활동을 통해 소작 농민의 비참하고 억울한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후 자신의 실제 경험과 유사한 중국 농촌과 농민의 피폐한 상황을 묘사한 루쉰의 「고향」에 공감하여 그것을 번역한 것인지도 모른다.

慶北 十個所에서 小作人 結束 蹶起 (『조선일보』 1931. 12. 4.
석간 6면)

부당 부담을 하지 안켓다고

當局서도 重大視

【大邱】경북 농민들은 급각도로 지주에게 대한 항의를 포고하였스니 십일월 중순 경 경북 경주군 양남면(慶北慶州郡陽南面) 모 농민으로부터 소작료 반분, 공과금 소작인 부담 절대 반대, 두세제도철폐(斗稅制度撤廢) 등등 첫소리를 발한 것이 오래 동안 말하고저 하면서도 말하지 못한 경북 전도내 각 농민의 머리속에 힘

차게 올려 작금 몇칠 사이에 김천군금능면(金泉郡金陵面) 동군대항면(同郡代恒面) 칠곡군인동면(漆谷郡仁同面) 달성군공산면(達城郡公山面) 옥포면(玉浦面) 청도군풍각면(淸道郡豊川面)외 고령군(高靈郡)의 사개 면을 합하면 십개 면이고 실로 룡천명의 농민이 결속하여 쟁의를 일으키인 만큼 세밀한 조직을 모른다 하여도 굵고 힘찬 말하자면 생산을 직접 좌우하는이만치 그들은 절대의 승리를 기필하는 모양이고 제일의 납세기가 절박한 만큼 점점 확대화할 우려가 잇슴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만일을 경계하는 **일방** 도에서도 관계 지주들에게 모든 악소작법 철폐의 조정을 하는데 엇지 락착될지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한다

農務課長談

글세 이 문제는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작년도에만 하여도 삼백여 건의 쟁의가 잇섯(‘뜨’가 누락된 듯 - 인용자)로 년래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지주들에게 시대의 요구에 따라 나는 타협도 몇번 하였고 금년 가을은 지주간담회(地主懇談會) 석상에서 공과금 지주 부담과 소작료 반분과 기타 악법을 철폐하자는 것을 우리 위정자들이 지주들에게 권하여 결의하였는데 그 이상 무리한 요구가 아닌 이상 농민들을 그르다 할 수는 업습니다 금후에 확대될는지 안 될지는 모르나 이상 더 악화하지 않는 이상 될 수 잇스면 조정도 하고 선처하겠스나 아직은 엇더타고 말 할 수 업습니다

위 기사에는 ‘일방’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일방(一方)’의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특사 황푸(黃郛)를 북상(北上)시키는 일방(一方) ‘화북국세여사(華北局勢如斯), 수감담타협(誰敢談妥協)’이라는 변해(辯解)를 시키며”(「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라는 문장에서, “잡지 『문화건설(文化建設)』을 발행하여 그 주장을 선전하는 일방(一方) 전국 각지에 문화건설협회(文化建設協會)를 설치하여” · “일체의 진보된 물질문화를 배우는 일방(一方)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과학건설을 창도(唱道)하여”(「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라는 문장에서,

“외국상품이 노도(怒濤)와 같이 유입하는 일방(一方) 중국은 열강의 원료 국으로서도 운명을 지게 되었다”(「중국 농촌의 현상」)라는 문장에서 등장한다. 또 위 기사에는 ‘급각도’라는 어휘도 나오거니와 기사 결미에 ‘농무과장’과의 인터뷰 내용도 덧붙여 있다. 이러한 어휘와 글투 그리고 형식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1931년 12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慶北 各地 小作問題 三百地主 相對 抗爭」에는 ‘기보한 중의 한곳인 경북달성군옥포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보한’ 기사는 하루 앞선 「慶北 十個所에서 小作人 結束 蹶起」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는 「慶北 各地 小作問題 三百地主 相對 抗爭」와 ‘기보한’ 기사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慶北 各地 小作問題 三百地主 相對 抗爭 (『조선일보』

1931. 12. 5. 석간 7면)

소작료 내면 팔할은 파산지경

玉浦面の 死活問題

【大邱】경북 각지 농촌의 소작쟁의는 나날이 그 정도가 심각화하고 있는바 이에 **기보한** 중의 한곳인 경북달성군**옥포면**(慶北達城郡玉浦面)의 진상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면은 종래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면으로 지주는 대개 대구의 리길우(李吉雨) 서병국(徐丙國) 장길상(張吉相) 씨 등 대지주를 비롯하여 이백팔십여 명 지주 대⁴⁴⁾ 전 면내의 소작인이 일어나서 항쟁을 하는데 요사이는 부락마다 소작인들이 회합하여 대책을 의론하고 군청과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발송하며 지주에게도 통첩을 발송하는 등 아직은 태도가 안온한 듯하나 그들은 절대의 승리를 목표하는 만큼 만약 지주들이 잘 듯지 안는 날이면 형세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고 쟁의권내에 들어있는 토지의 소작료는 일률로 말할 수는 엄서도 룡칠할이

44) 대: 한자 ‘對’(대)를 가리키는 듯하다.

평균이고 심하면 팔할의 고풍로 도조맨 곳도 있으며 그외에 사슴들이 이승 내지 오승의 말세(斗稅)를 밟는데 당지는 이앙기에 한발로 인하여 칠월이십일경까지 모를 내지 못하고 대용작물(代用作物)을 파종하였는 것을 늦비가 만히 와서 허허실수로 지은 곡식이 도조맨 후 서리가 일찍 내려 전멸상태에 이르고 말었는데 금번 쟁의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이들 소작인들은 수확 업는 농사에 채무가 최하라도 백여원식은 질머져서 공과금을 담당하고 소작료를 물면 면민의 팔할은 총파산을 안할 수 업는 형편임으로 최후의 일책으로 이가티 쟁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음의 1931년 12월 9일자 대구발 기사「牛價大暴落」도 ‘~일방’의 글투가 나오거니와 ‘급격히 몰락되는 농촌의 궁농계급이 식량에까지 곤난란’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 앞서 검토한 1931년 10월 15일자 기사「立稻差押等手續 大邱에 三千餘」에 나오는 “궁농들은 누러케 익은 벼가 들로 한아가득 하여도 (중략) 파산을 안을 수 업는 비참한 형편”이라는 내용과 겹친다.

牛價大暴落 (『조선일보』 1931. 12. 9. 석간 6면)

【大邱】경북도내 일백오개소의 우시장(牛市場)에 장마다 팔니려나오는 소는 그 수요가 증가하는 **일방** 그 반면에 소값은 점점 폭락하여 송아지 한머리에 십팔원 큰소 한마리에 삼십륙원이라는 **전대미문**의 대폭락인바 작년 농기에 비하면 삼할 이상이 **저락**되었는데 단일농업(單一農業)의 위기를 구하고저도축산조합(道畜産組合)과 금융조합(金融組合)들이 제창한 소위 다각형영농법(多角形營農法)도 결국 실패에 도라가고 말었으며 그원인은 근년 계속적으로 닥쳐온 **홍작과 곡가폭락**과 체금으로 인하여 급격히 몰락되는 농촌의 **궁농계급**이 식량에까지 곤난해야 그가치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소작 농민의 총파산’, ‘참혹한 파멸에 직면한’ ‘소작인들의 생활’,

‘기아선상에 방황하며 류리개걸 안으면 안될’ 소작인의 ‘참담한 형편’, ‘농촌 경제의 공황’, ‘탐욕스러운’ ‘악착한’ 지주들의 착취 등을 고발한 다수의 대구 발 기사도 글의 내용, 어휘와 글투 그리고 기사 내용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문체상의 특징으로 보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들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地主側 課稅負擔을 各區長、郡에 陳情 (『조선일보』

1931. 12. 15. 석간 7면)

문제는 더욱 확대되어 가

玉浦面民 爭議後聞

【大邱】루보한 경북달성군옥포면(慶北達城郡玉浦面) 소작쟁의는 전면 농민의 팔팔을 점령한 **소작농민의 총파산**을 목척간에 보게 되어 소작료반분 공과금일체 지주 부담률(‘을’의 오식인 듯 - 인용자) 표어로 어대까지든지 소기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소작인들의 요구는 **가궁**하다기보다 오히려 그 형세가 우려되며 작금은 제일과 납새기가 절박하여져서 장래에 사태가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는중 동면 각동 구장(區長)들이 총결속하여 무리한 악지주들을 응증하여 달나는 진정서를 달성군(達城郡) 당국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위 기사는 소작농민의 총파산을 목척에 두고 악지주에 대한 소작인들의 요구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는 ‘가궁’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이 어휘는 앞서 검토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서 “이 얼마나悲惨하며 可矜한 事實이라”라는 문장에도 등장하고, 제7절에서 검토할 「都市計劃에 犠牲되어 放逐될 東門市場 窮民」(1932.3.27)에서 ‘情勢는 可矜’이라는 말로도 등장한다.

高靈郡內 小作人 不耕同盟과 立毛爭議 (『조선일보』

1931. 12. 18. 석간 7면)

사슴도 결속하여 지세 불납 동맹

甚刻化하는 小作問題

【大邱】경작의 소작쟁의는 최근 요원의 불과 가티 일어나는 중 고령(高嶺) 군내의 소작쟁의는 지금이야 극도로 **침예화**하여 가는 경향인바 동군운수면(同郡雲水面)에서는 소작인과 사슴(舍音)까지가 결속하여 지세 급 일체 공과금 지주부담을 조건으로 지주에게 항쟁하는 중인데 지주들은 이것을 완강히도 거부하고 뜻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작인들의 진영을 붕괴코저 암중활약함으로 이에 분기한 소작인 전부는 수일전부터 동네동내 모혀 비장한 결의를 하고 만약 지주가 지세를 부담치 않으면 굶머죽어도 이 토지를 소작치 안켓다는 불경동맹(不耕同盟)을 하고 있는 중이며 동군개진면신안동(同郡開津面新安洞)에는 대구지주(大邱地主) 장모(張某)의 소유 토지 사두락⁴⁵⁾이 있는데 종래 그 논에는 소작료 오석이두식 밧는 것을 금년은 흉작인 것도 불구하고 녁섬두말의 도조를 매엿슴으로 소작인 리성기(李晟基) 김성운(金誠運) 등은 전부를 수획하여도 한섬두말이 될락말락한데 녁섬두말의 도조는 밧을 내여 드릴 수도 업고 부당한 것을 물(‘을’이 누락된 듯 - 인용자) 필요도 업다하여 아직까지 벼를 비지 안코 립모 그대로 쟁의를 계속중인데 이해가 다 가는 십이월 말까지 립모쟁의(立毛爭議) 불경동맹(不耕同盟)이란 **전고미문의 웃지 못할 사실인 동시에** 경북 지주들의 엄치도 보이려니와 이들 **소작인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업는 **참혹한 파멸**에 직면하여 있다고 한다

위 기사는 ‘소작인과 사슴(舍音)까지가 결속하여’ ‘지주에게 항쟁하며’ 불경동맹의 쟁의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 이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지주들의 물

45) 두락(斗落): 우리말로로는 ‘마지기’라고 한다. 1두락은 한 말[斗]의 종자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가리키는데, 대략 200~300평 사이이다.

염치를 고발하면서 ‘참혹한 파멸’에 직면한 소작인들의 처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참예화’라는 어휘를 포함하고, 기사 내용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까지가’라는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基督將軍 馮王祥까지가 陳啓修와 左翼落伍者의 代表 李達 等を 泰山으로 피서다가”(「위기에 임한 중국 정국의 전망」)라는 문장에, “國民黨 幹部까지가 有力한 ‘멤버’로서 裡面에 活躍하는 것은 勿論이고”(「중국 청방 비사 소고」)라는 문장에, “現在엔 穀物까지가 벌써 商品化하였다”(「중국 농촌의 현상」)라는 문장에도 등장한다.

小作權 移動 證書로 賭租斗稅를 威脅強徵 (『조선일보』
1932.1.31. 석간 7면)

삼백여 소작인은 류리개걸 지경

大邱 徐地主의 處事

【大邱】작년 가을 경북(慶北) 소작쟁의(小作爭議)의 중심지대로 지주와 농민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참예화**해야 하는 경북고령(慶北高靈) 군내의 이개 면을 제하고 칠개 면에 **강하야** 일천이백여 두락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남정 대지주(大邱南町大地主) 서병국(徐丙國) 씨는 도조를 벨 때부터 수획의 칠팔할이란 고률로 매였슴으로 삼백여 명의 소작인들은 일년간 소득을 다 빼앗기고 생활의 파멸을 여지없이 당하게 되었슴으로 단연 이에 반행(항)의 오식인 듯)하야 소작료 불납동명을 조직하고 공과금의 지주 부담을 강경히 주창하야 형세가 매우 **협약**함을 본 군청과 경찰 량당국은 지주와 작인의 사이에서 조정에 노력한 결과 소작료는 감하하고 공과금은 금년만은 반분식 부담하고 소작권절대확보(小作權絕對確保)를 조건으로 일시 안온한 상태에 들어갔는바 지주 서병국 씨는 그때의 말과는 아주 판판으로 자기의 사음들을 보내어 말세(斗稅)와 소작료를 의연히 증수하라고 명령하였스나 사음들이 보기에 도작인들의 **참담한 생활**에는 도저히 증수할 수 업다 하야 공수로 돌아온 것을 분개한 서지주는 가장 신임하는 사음 설인구(薛仁

求)와 리모(李某)를 불너놋코 모든 법적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터이니 무슨 수단으로든지 밋어오라고 하며 소작권이동증명서(小作權移動證明書)를 한집지여 출장케 하였슴으로 사음들은 소작인들의게 대하여 만약 말세와 소작료와 공과금을 다 밋치지 안으면 소작권을 전부 이동시키겠다고 위협하여 공포에 싸인 소작인들은 위선 생(‘명’이 누락된 듯 - 인용자)가튼 소작권이나 빼앗기지 안겠다고 빗을 내고 장리나락⁴⁶⁾을 어더 지주의 요구를 대부분 들은 후는 먹을 것도 업고 빗에 즐녀 기아선상에 방황하며 류리개걸 안으면 안될 형편인바 서지수에 대한 원성은 나날이 늑혀 가고 있다 한다

위 기사도 지주의 착취로 ‘기아선상에 방황하며 류리개걸 안으면 안될 형편’의 소작인들의 ‘참담한 생활’을 서술하고 있는데, ‘침예화’ 어휘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사 내용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군내의 이개 면을 제하고 칠개 면에 궁하야 일천이백여 두락 토지를 소유하고 잇는’이라는 문장에 나오는 ‘궁하야’라는 말은 ‘일정한 시간·공간을 거쳐 이어지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육사의 문예평론 「영화에 대한 문화적 촉망」에서 “文化全般에 巨하야 良知의 人士들을 求해서”·“映畫理論의 全般에 巨해서”라는 문장으로, 문예평론 「시나리오」 문학의 특징—예술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에서 “生物學的進化論의 影響을 받아 一家의몇代에 巨한 運命을”·“自然主義는 戰前戰後에 巨하야 가장 混亂한 藝術運動을 通해서”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참담한’이라는 어휘는 이육사가 종종 사용하던 말이다. 예컨대, 1930년 7월 17일자 『중외일보』에 실린 「참(慘)! 복사(覆砂)에 루루매몰(累累埋沒)된 부란시우육십개밭굴(腐爛屍又六十個發堀)」에 나오는 “폭우로 말미암아 참담한 피해는 날이 지날수록 그 심각한 정도가 속속 판명되는 중인데”·“의지할 토막 한간도 업고 몸을 갈일 만한 옷도 업시 참담한 폐허(廢墟)에서 호곡하는 참상은 목불

46) 장리(長利):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邊利)’를 가리키며,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는다. ‘나락’은 ‘도정(搗精)하지 않은 찹쌀 상태의 곱곡’을 가리킨다.

인견이며”라는 문장에 등장한 바 있다. 또 1930년 7월 17일자 『중외일보』에 실린 「축일발로(逐日發露)되는 참해비극(慘害悲劇) 사망불명인원육십명(死亡不明人員六十名)」에 나오는 “큰물 지난 뒤의 참담한 산길을 도보로 거러 사십리를 답과해야 간신히 피해디대에 도착하였다”라는 문장에도 등장한 바 있다.

大量으로 作權을 異動⁴⁷⁾ (『조선일보』 1932. 3. 16. 석간 2면)

【大邱徐、張兩地主의】

◇三百餘 作人 恐慌

【大邱】경북의 소작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령(高靈) 군내에는 작년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일반 소작인들이 결속하여 과세지주부담(科稅地主負擔)과 소작료반분(小作料半分)과 제반 악제도 철폐를 강경히 주장하여 지주에게 반항의 기세를 들이 일시 **형세가 협박**하였는데 이에 랑패한 지주들은 그 당시만은 다소간 소작인들의 요구를 들어 줄 듯이 하여놋코 요지음 춘경기를 당하여 성히 소작권을 이동한다고 협박하고 일시 감해야 주겠다고 한 소작료를 요사이 와서 칠팔할씩 증수하며 더 증수할 수 업는 소작인에게는 단연 작권을 이동하는바 그 중에도 전형적인 것은 대구남정대지주(大邱南町大地主) 서병국(徐丙國)으로 그는 동군내 칠개면에 일천이백여 두락의 토지를 소유하고 잇스며 소작인이 삼백여명에 달하는바 소작료를 칠팔할이란 고률로 증수한 것은 물론이고 그 우에 한말에 한되 이상의 말세를 증수한 후 당연히 자기가 부담할 지세까지 소작인에게 강증함으로 소작인측은 하다못하여 지세의 반분씩이라도 갈라 물자는 애원을 하였는바 서지주는 이것을 거절하고 대리인 설인구(薛仁求) 리성환(李成煥) 랑명을 식혀 소작권이동증명서(小作權異動證明書)를 랑발하여 두세, 작료, 지세 등 무엇이든지 내지 않는 사람은 엇던 사정이 잇는 사람이라도 단연코 이작하라는 명을

47) 이동(異動): 지위나 직책의 변동을 가리킨다.

말하야 삼백여명 소작농은 모다 **류리하게 되는 형편**이며 동군운소면(同郡雲小面)에 만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구수정(大邱壽町) 장모(張某)도 팔할 이상의 소작료를 받고 말세를 증수함으로 소작인들이 그 대리인 리봉항(李鳳恒)이란 사람을 보고 감하하여 달라는 애원을 하였는바 소작인의 처지에 너무나 건방지다고 교섭을 거절하고 지난 십이일 각 소작인에게 소작권을 이동한다는 통첩을 발하였슴으로 이 **무리한 처사**에 소작인들은 원성이 자자하다고 한다

위 기사는 지주들, 특히 악덕 지주 서병국이, 수확기를 앞두고 과세지주부담과 소작료반분 및 제반 악제도 철폐를 주창하는 소작농들에게 소작료 증수와 소작권 이동을 협박하는 무리한 처사와 그로 인해 ‘류리하게 되는 형편’에 놓인 소작농의 처지를 고발하고 있는데, 기사 내용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慶北道內 立稻差押 昨年 五百餘件 (『조선일보』

1932. 2. 27. 석간 7면)

再昨年보다 四割이 激增

個人보다 金組가 尤甚

【大邱】작년 가을의 경북 일대의 지주 소작인 사이에 충돌은 너무나 심각한 정도를 넘어 지주와 고리 대금업자들은 소작인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그들의게 부여된 권리를 어대까지든지 사용코저 함부로 립도차압을 한 것이 오백이십팔건이란 놀랄 만한 수자를 보였는데 작년의 삼백의 건에 비하면 실로 이백이십륙건이 격증되었스며 내용(‘을’이 누락된 듯 - 인용자) 보면 보리(麥)가 여섯건 조(粟)가 다섯건 콩(大豆)이 삼건 벼(稻)가 오백십사건인바 보리가튼 것은 그 수에 잇서는 여섯건에 불과하나 종래에는 절대로 차압을 당치 안튼 것인 만큼 얼마나 경북의 지주들이 **악착**한가를 알 수 잇스며 채권자로는 개인보다가 금융조합 흥업회사 등이 더 만타고 한다

위 기사는 입도차압으로 소작인을 착취하는 ‘악착한’ 지주와 고리 대금업자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악착’이라는 어휘는 수필 「은하수」에서 “오늘의 악착한 雜念이 머리속에 떠돌 때마다 저도 모르게 스어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문장에도 등장한다.

慶北 小作法規 道當局 發令? (『조선일보』 1932.3.23. 석간 3면)

쟁의 **협약화**에 감하야

二百萬名 死活 問題

【大邱】전조선을 통하야 최악의 소작제도를 운명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북의 농민 대중은 수년전부터 이 **참담한** 환경을 탈리하라고 가진 수단을 다하야 소작쟁의에 참가하는 대중의 기념은 도내에 전면적으로 전개되어 그 형세가 매우 급박하였슴으로 당국도 소작관행조사(小作慣行調査)를 하는 등 조선의 소작법령이 반포⁴⁸⁾될 자료를 상당히 만히 모아 총독부에 보낸지가 상당히 오랜 시일을 경과하였으나 소작령은 반포되지 안코 그 반면에는 **농촌경제의 공황**과 그에 따라서 사상의 격화로 당국은 소작관행의 개선이 가장 필요한 것을 간파하고 이에 대한 구체책을 강구중인데 만약 총독부의 소작법령이 갖가운 시일에 반포되지 안흐면 경북도당국(慶北道當局)이 단독으로 이 개선을 할만한 소작령을 발표할 의견이 유력화하는 중인데 도령(道令)이 발표되면 경북 도내의 이백만의 농민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소생되든 못한다 하여도** 다소라도 갱생의 발자욱을 움길 수 잇슴으로 금후가 주목된다고 한다

위 기사는 ‘최악의 소작제도’로 인해 ‘참담한 환경’에 처한 농민 대중이 소작쟁의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형세에 놓여 ‘농촌경제의 공황’과 ‘사상의 격화’에 직면한 당국이 소작관행의 개선을 위해 구체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도

48) 반포: 여기서 ‘포’는 ‘포’의 오식으로 짐작된다. 즉 ‘반포’.

하고 있다. 이 기사는 ‘참담한’이라는 말을 포함하거나 기사 내용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기사에는 “이백만의 농민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소생되든 못한다 하여도 다소라도 갱생의 발자욱을 움길 수 잇슴으로”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소생되든 못한다 하여도’라는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예컨대 “本來부터 우리가 큰 企待를 가지지 않는다 해도 民衆運動이 勃興하는 中國에 있어”(『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라는 문장에서 ‘큰 企待를 가지지 않는다 해도’라는 글투로, “그것은 내 지금에 별다른 미음을 갖지 못한다 해도 소나무가 옥어진 그 속에서”(『계절의 오행』)라는 문장에서 ‘갖지 못한다 해도’라는 글투로,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잇는 謙讓을 보는 사람이 엷다고 해도 正面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계절의 오행』)라는 문장에서 ‘엷다고 해도’라는 글투로 등장한다.

慶北道 農會費 滯納 一萬八千餘圓 (『조선일보』 1932.3.29.
석간 6면)

當局은 最後手段?

【大邱】경북도내 이십이군 일도(島)의 작년도 룡회비(農會費)는 총액이 십륙만 사천칠백삼십이원인데 작년말 승수기까지 겨우 구할오부**쯤은** 완전히 납입되고 나머지 이만팔천륙백 삼십여원은 아직까지 증수되지 안엇는바 이것은 거개가 지방의 소작농민들이 해를 거듭한 재해와 **탐욕스러운 지주들**의게 착취를 당하고 아츰저녁 먹을 것조차 업서 **류리하는 형편**임으로 당국도 다소간 주저는 하나 영영 증수치 안코도 안될 형편이기에 년도말의 결산기를 당하여 초조하는 모양이며 부득이하면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게 업슬 모양인바 이 춘공에 룡(다음에 ‘회비’가 누락된 듯 - 인용자) 만팔천륙백삼십여원을 지방 공이들의게로부터 **짜서낸다**면 그들의 생활은 이중삼중으로 말못할 **참담한 형편**이라고 한다

위 기사는 탐욕스러운 지주들의 착취로 인해 먹을 것조차 없어 ‘류리하는 형편’에 놓인 ‘지방 궁이들’의 ‘참담한 형편’을 고발하고 있는데, ‘구할오부짚은’의 ‘~짚은’, ‘탐욕스러운 지주’, ‘류리하는 형편’, ‘짜서낸다’, ‘참담한 형편’이라는 말들은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지방시론」(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 및 앞서 검토한 여타의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에도 종종 등장한다.

좀 더 검토할 것은, 이육사가 『조선일보』를 퇴사한 이후인 1932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조선일보』에 실린, 소작 농민의 문제나 소작쟁의 그리고 지주의 착취 횡포에 관한 대구발 기사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러한 주제의 기사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32년 5월 5일자 대구발 기사「小作人對抗코자 地主團體組織」, 1932년 6월 16일자 대구발 기사「慘憺한 農村 窮迫한 現實相」, 1932년 6월 16일자 대구발 기사「小作農은 增加코 自作農은 減少」, 1932년 12월 25일자 대구발 기사「當局案대로 實行한다면」, 「廿八萬戶 小作農은 千年後에야 安定」 정도가 그에 해당한다. 이들 기사는 앞서 검토한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와는 글투와 문체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小作人對抗코자 地主團體組織」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자.

【大邱】경상북도(慶尙北道)에는 지주가 만흔 곳인 동시에소작인 수로도 어느 도보담 맞치지 않는 곳이다. 리조오백년(李朝五百年)의 문화(文化)의 중심지인 만큼 도덕이 발달되야 빈부가 어느 정도까지 융합하야 오든 이곳도 근래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야 현격하게 빈부의 차로 서로 자기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인지 요사이 대구부내 모모 대지주들은 소작인을 대항하기 위하야 지주측에서도 단체를 조직하자는 말이 오래전부터 잇든바 근일 와서는 대구 일류지주 정운용(鄭雲用) 추병화(秋秉和) 리상렬(李相烈) 서병국(徐丙國) 서병조(徐丙朝) 제씨는 이미 루차 모혀서 협의하야 불원간 조직체가 완성될 터이러는데 그 어떠한 모양과 정관을 만들어낼는지 일반은 매우 주목하는 중이라 한다. 49)

49) 「小作人對抗코자 地主團體組織」, 『조선일보』 1932.5.5.

또 「慘憺한 農村 窮迫한 現實相」이라는 기사의 내용을 보자.

【대구】현대문화의 수입 경제계의 진출은 조선농촌에 엇더한 혜택을 주었는가! 파산! 유리 이것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제도의 유입물일 것이다. 파산유리를 아직 당하지 아니하고 집간이나 숯바리를 가지고 겨우 생활보장을 하여나간다는 소작농층의 생활현상은 또한 엇더한가. 경상북도(慶尙北道) 금융조합연합회(金融組合聯合會)의 조사에 의하면 칠십오 금융조합과 십육개 지소로부터 육만 삼천백구십일 조합원에만 대출(貸出)액이 일천칠십만오천구백오십이원이라는 엄청난 수자로 한사람 압해 일백사십삼원이라는 정도에 넘치는 차금을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⁵⁰⁾

이들 기사는 앞서 검토한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가 대체로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기사는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에 나오는 글투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기사가 소작 농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참혹한 파멸의 처지를 절실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서 검토한 기사들을 이육사의 글로 추정하는 데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6. ‘침예화’·‘급각도’·‘번농’이라는 어휘 등을 포함하는 사회·경제 방면의 기사

사회·경제 방면의 대구발 기사와 관련하여 ‘침예화’·‘급각도’·‘번농’이라는 어휘를 포함하는 기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예화’는 앞서 검토한 여러 기사에서 “수만흔 악덕 지주들이 공과금을

50) 「慘憺한 農村 窮迫한 現實相」, 『조선일보』 1932.6.16.

소작인에게 증수한 까닭에 쟁의가 첨예화해야”(「無理無雙한 慶北道內 小作條件」)라는 문장으로, “고령(高嶺) 군내의 소작쟁의는 지금이야 극도로 첨예화해야 가는 경향인바”(「高靈郡內 小作人 不耕同盟과 立毛爭議」)라는 문장으로, “작년 가을 경북(慶北) 소작쟁의(小作爭議)의 중심지대로 지주와 농민 사이에 감정이 극도로 첨예화하여 잇는 경북고령(慶北高靈) 군내의 이개면을 제하고”(「小作權 移動 證書로 賭租斗稅를 威脅強徵」)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급각도(急角度)’라는 어휘는 시사평론 「중국 농촌의 현상」에 나오는 “전변무상(轉變無常)한 정치적 동요는 이 중국 경제를 급각도(急角度)로 회전(廻轉)하면서”라는 문장으로 등장하고, 앞서 검토한 여러 기사에서 “일반 대중의 보건운동은 급각도로 백열화하고”(「復活한 歷史的國技 장競技 第一大會」)라는 문장으로, “살인적인 경제공황은 도시나 농촌을 가리지 안코 급각도로 파멸에 떠러트리고 잇는 것은 사실이다”(「立稻差押等 手續 大邱에 三千餘」)라는 문장으로, “경북 농민들은 급각도로 지주에게 대한 항의를 포고하였스니”(「慶北 十個所에서 小作人 結束 蹶起」)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농간을 부리다’의 뜻을 지닌 ‘번농(飜弄)’⁵¹⁾이라는 어휘는 시사평론 「중국 농촌의 현상」에 나오는 “사실 중국 농촌은 밖으로는 열강의 ‘덤핑’ 농산에 번농(飜弄)되고 안으로는 연년(連年)의 재(災)에 질식되어 전면적 과산에 전입(轉入)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육사가 『조선일보』를 퇴사한 이후인 1932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조선일보』 대구발 기사 중에서 ‘첨예화’ 또는 ‘급각도’ 또는 ‘번농’ 어휘를 포함하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⁵²⁾ 이는 이들 어휘를 포함하는 대구발 기사가 이육사에 의해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51) 중국어 ‘飜弄’[fānnòng]은 ‘(손으로 이리저리 굴리며) 가지고 놀다’,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휘젓다’, ‘소란을 피우다’ 등의 뜻이며, 일본어 ‘飜弄’[ほんろう]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 ‘농락하다’의 뜻이다.

52) 다만 제7절에서 검토하겠지만, 1932년 4월 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대구발 기사 「市場 假家住民 撤退를 強迫」에는 ‘첨예화’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침예화’ 어휘를 포함하는 1931년 9월 6일자 대구발 기사「大邱府營
뼈쓰運轉手들 動搖」를 살펴보자.

大邱府營 뼈쓰運轉手들 動搖 (『조선일보』 1931.9.6. 석간 7면)

事故의 損害賠償을 運轉手가 負擔케 해

【大邱】대구부영 뼈쓰는 지난 이십구일 오전 제사번운전수중촌(第四番運轉手
中村)이란 사람이 운전중 자전거 탄 사람과 충돌되어 약 사주일간 치료를 요할만
한 중상을 내었다는데 발단하여 대구부청 뼈쓰계(大邱府營뼈쓰係)에서는 그 손
해를 전기 중촌 운전수가 배상하라는 전대미문의 선언을 하였습므로 동뼈쓰 운
전수들은 일치 결속하여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안갠다는 의미로 외든(‘든’은 ‘근’의
오식인듯 - 인용자)을 거듭하는 모양인데 만약 부청에서 어대까지든지 강경한
주장을 하면 쟁의는 상당히 **침예화**할 모양이며 벌써 이 소문을 **새여들은** 대구부내
의 운전수 전부는 만약 이 문제가 부청의 주장대로 되면 다른 영리회사들에서도
작업중 사고의 손해배상을 운전수에게 부담시킬 것 가트면 큰일이라 하여 사건
의 전개를 주시중 만약 운전수들의 요구가 실패케 될 때는 전국적으로 운전수들
이 일치단결하여 대항을 할 계획을 하고 사실은 운전수들의 정신이 동요되야 거
의 『사포』 상태이었다고 한다

【某運轉手談】=우리들의 요구가 절대로 무리가 안인만큼 부의 처치를 정당하다
고 볼수는 업습니다 매일평균 근백마일씩 운전을 하는 것이 엇지 한해나 두해를
지나면 한번의 실수도 업기를 보증하겠습니가 어느 때라도 한번 유사할 때는 만
코적이고 배상을 한다면 **하루하루 살기도 곤난한 처지**에 감당도 못하겠고 부에서 이
러한 례를 지으면 다른 영리회사에서도 뿐을 보겠스나 **저들은** 운전수 전체의 생
활을 보장키 위하여 적극 대항하겠습니다 **운운**

위 기사에는 ‘침예화’라는 어휘가 나오거니와 ‘새여들은’이라는 말도 나오

는데, ‘새여들은’은 주목할 만하다. ‘새여’(새어)는 ‘새다’의 활용형으로 ‘기체나 액체 따위가 틈이나 구멍으로 조금씩 빠져 나가거나 나오다’ 또는 ‘어떤 소리가 일정 범위에서 빠져나가거나 바깥으로 소리가 들리다’의 뜻을 지니는데, 이 말은 여타의 이육사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새바람도 유달리 옷깃을 새여드는데”(「황엽전」), “첫겨울의 눈우바람이 몹시도 옷깃을 새여들고 발끝이 저리기도 해서”(「문외한의 수첩」), “산실(産室)을 새여나는 분만(分娩)의 큰 괴로움!”(「해조사」), “창틈을 새여드는 아침 햇빛을 몸에 하나 가득 받고는 하품을 한번 하였다”(「골목안」), “비소리 솔입사이를 새서 듣는 것이란”(「계절의 오행」), “들틈을 새여흘너가는 시내물이 흰돌 우에 부서지는 음향이란 또한 정들일 수 있는 풍경의 하나이다”(「산사기」), “고란사(皋蘭寺)의 석벽(石壁)속에서 새여나오는 물을 떠오게 하고는”·“석벽(石壁)속에서 새여나는 샘물이 있고”(「고란」)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육사가 번역한 쉬즈모(徐志摩)의 시 「재별강교(再別康橋)」의 제4연 제3구인 “浮萍草 잎사이 고히 새나려와”⁵³⁾라는 시구에서 ‘새나려와’라는 말로도 등장한다. 여기서 ‘새나려와’의 ‘새’는 위 기사나 시·수필 등에 등장하는 ‘새여’의 뜻을 지니는바, ‘새다’의 활용형 ‘새여(어)’를 시의 운율을 고려해 ‘새’만 표현한 것이다. 이는 ‘새어 나오다’를 ‘새 나오다’로 표현하는 것과 같다. 더욱이 위 기사에는 모 운전수와의 인터뷰 내용이 덧붙여 있거니와 이육사의 글투인, ‘저희들’의 뜻을 지닌 ‘저들’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로써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 기사와 비슷한 ‘버스’ 운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1932년 4월 6일자 대구말 기사 「花園線 빠쓰는 積極的 阻止」도 살펴보자.

53) 이육사가 번역한 쉬즈모(徐志摩) 시 「재별강교(再別康橋)」의 제4연은 다음과 같다. “느릅나무 그늘아래 맑은 못이야/ 바루 하늘에서 나린 무지꺠러라/ 浮萍草 잎사이 고히 새나려와/ 채색도 玲瓏한 꿈이 잠들었네”.

花園線 빠쓰는 積極的 阻止 (『조선일보』 1932. 4. 6. 석간 6면)

幹部 李琪正氏 談

이에 대하여 마차조합 간부 리기정 씨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년전부터 화원으로 빠쓰가 통행한다기에 그 사이 당국에 대하여 루차 교섭한 데도 불구하고 금춘부터 단연 개통한다니 그리되면 **저들** 조합원들의 가족 사 백여명은 사활의 거리를 방황하게 됨으로 **저들**의 진정은 최후의 생을 방위하는 수단입니다 처음 온순하게 교섭하여본 후 적극적으로 운동하여보겠습니다 대구부로 말하여도 빠쓰 경영에 대한 적자(赤字)를 보진코져 한다면 칠곡(漆谷) 방면의 일본인의 마차선로는 말도 업시 우리들의 선로만을 위협하는 것은 그 진의를 알 수 업습니다 **운운**

위 기사는 ‘간부 이기정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저희들’의 뜻을 지닌 ‘저들’이라는 말도 나오므로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실 이 기사는 인터뷰 내용만 실은 미완성의 기사인데, 이 기사가 실린 시점이 이육사가 『조선일보』를 퇴사할 무렵인바 미완성의 기사라는 점이 당시 경황이 없었던 이육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위 기사가 1932년 4월 6일에 실렸으니 이육사는 적어도 4월 초순까지 『조선일보』에 기사를 실은 셈이다.

다음은 ‘급각도’ 어휘를 포함하는 기사들로 먼저 1932년 1월 12일자 대구발 기사「大阪 纖維工業의 朝鮮 進出 具體化」 및 1932년 2월 21일자 대구발 기사「脫退 宣言하고 自治制 券番 組織?」을 살펴보자.

大阪 纖維工業의 朝鮮 進出 具體化 (『조선일보』 1932. 1. 12.
 석간 7면)

대구부윤은 비밀리에 지가와
 其他 條件等을 調査

【大邱】대관섬유공업계의 거두 환홍본점 이등총병위(丸紅伊藤忠兵衛)가 조선의 노동조건이 아직까지 유지하다는 것을 보고 대섬유공업의 조선 진출을 계획한다는 것은 본보에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그 계획은 재계공황으로 인하여 다만 계획에만 껴있는바 요지음 견양내각(犬養內閣)의 출현으로 재계가 차차 호전되자 이 계획은 급각도로 구체화한 모양으로서 이월초에는 본점으로부터 후보지(候補地)를 시찰코져 대구(大邱)와 평양(平壤)에 온다는대 이후의 관계상 대구가 유력도 하러니와 대구부윤(大邱府尹)의 지방발전상 유리하다 하여 적극적 후원을 하고져 환홍본점의 의뢰로 지가(地價)와 기타 조건을 극비밀리에 조사중이라 하며 지난 칠일에는 대관금화방적취체역(大阪錦華紡績取締役) 창지철길(倉知鐵吉, 구라치 데츠키치 - 인용자)은 우원총독(宇垣總督, ‘우원’은 우가키 - 인용자)이 도동하기 전 관저로 총독을 방문하고 해사업의 조선 진출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였는데 해회사가 성립되는 데는 적어도 오백만원 이상 일천만원의 자본금이 드는 대동력은 자가용발전(自家用發電)을 쓸 모양이라 한다

위 기사에는 ‘급각도로 구체화한 모양으로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래에 예거한, 1932년 2월 21일자 대구발 기사「脫退 宣言하고 自治制 券番 組織?」에도 ‘급각도로 구체화함에 따라’라는 말이 나오고, 1932년 3월 20일자 대구발 기사「慶北 警官增員 年度初에 實現」에도 ‘급각도로 구체화됨에 따라’라는 말이 나온다. 이들 기사에서 ‘급각도로 구체화’라는 글투가 반복되고 있어 ‘급각도’라는 어휘를 포함하는 대구발 기사는 동일인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脫退 宣言하고 自治制 券番 組織? (『조선일보』 1932. 2. 21.
석간 6면)

칠십여명 서약서 작성
大邱 妓生事件 直後

【大邱】안락(‘알력’의 오식인 듯—인용자)과 분규와 『뽀이꽃트』 등으로 일시 사회의 이목을 끌던 대구달성권번(達城券番)의 쟁의사건은 그 사이 일부 문제만을 해결한 후 재차로 분렬의 형세가 융후하다 함은 보도한 바이어니와 십팔일 오후 삼시경 동권번의 기생 칠십여 명은 시내 수정(壽町) 모기생의 집에서 제이차의 회합을 열고 『우리는 우리의 리익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현 권번으로부터 단연 탈퇴해야 우리의 살임을 우리가 살기 위한 새 권번을 창립코저 이에 **하등**의 의도 업시 서약함』이란 서약서에 모다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는 등 일종 비상한 **력사적 광경**을 연출하고 이후부터는 현 권번을 통하야 노름을 부르는 료리집에는 가지 안코 새로히 창립되는 권번으로 불너야 노름을 가겏다 하며 지금은 권번으로 쓸 건물과 전화 매입등에 분망중이라고 한다

半數以上 脫走 現券番은 破綻

【大邱】이상 보도와 가티 기생들의 자치운동이 **급각도**로 구체화함에 따라 기생 총수 일백삼십명(권번에 등록된 것만) 중에 **화형**들만 뽑아 반수 이상이 살갏다는 표어 밋헤 신권번을 창립코저 현권번에 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을 본달성권번의 간부와 주주들은 망연실색하야 사건을 엇더케 조처할지도 모르며 나머지 기생들도 점점 신권번의 창립에 가담하는 형편으로서 이리케 두면 현권번은 파산 이외에 타도가 업스나 원래 현권번의 간부들 중에 업청나게도 큰 부정사건이 폭로되야 서류가 모다 검사의 손에 송치되어 잇슴으로 기생들이 그갓치 분렬 운동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 하야 경찰당국도 당분간 정관적 태도를 취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특히 위 기사에는 ‘급각도’라는 어휘와 더불어 ‘하등’이라는 어휘도 나오거니와 ‘력사적 광경’이라는 말도 주목된다. ‘력사적 광경’이라는 말은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에서 “대쟁의사건의 역사적 광경이 눈앞에 벌어지는 듯하다”라는 문장으로도 등장한다. 그리고 위 기사에 나오는 ‘화형(花形)’이라는 어휘는 ‘인기 있는 화려한 존재’를 비유하는바, 시사평론 「오중전회를 앞두고 외분내열의 중국 정정」에서 “현재 중국의 외교가들 중에 그 세계적 가치는 어찌하였든 중국 내에 있어서 가장 화형(花形)이고 원로이고 민중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외교가들의 이름을 치면”이라는 문장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급각도’를 포함하는 이상의 대구발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1932년 3월 20일자 대구발 기사 「慶北 警官增員 年度初에 實現」도 ‘급각도’라는 어휘를 포함하므로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慶北 警官增員 年度初에 實現 (『조선일보』1932. 3. 20. 석간 7면)

경무과장 상경하야 량해 어더

思想運動의 激化로

【大邱】조선에 경찰관을 증원한다는 것은 오래동안 총독부 당국에 말이 잇섯든 모양이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안헛든바 요지음 만주국(滿洲國)이 건설되는 것을 계기로 그 실현이 급각도로 구체화됨에 따라 경북경찰서에서는 근래에 사상사건이 빈발하는 것을 보아 압호로도 더욱더 사상운동이 복잡하여질 것을 예상하고 경관 증원코져 호곡경무과장(戶谷警務課長)이 총독부에 가서 경북도내의 실정을 개진하고 대구는 평양(平壤)이나 부산(釜山)에 비하여 경관 일인의 담당인수가 배수나 된다는 조건 및해 량해를 어덧는데 불일래에 실현되지 못하여도 년도 초에는 좌우간 실현되리라 한다

이제 ‘번농’ 어휘를 포함하는 1932년 2월 2일자 대구발 기사「賦稅滯納者에 差押을 斷行」를 살펴보자.

賦稅滯納者에 差押을 斷行 (『조선일보』 1932.2.2. 석간 7면)

赤字難에 翻弄되는 大邱府의 苦肉策

【大邱】일만구천원이란 적자(赤字)에 번농되는 가난뱅이 대구부(大邱府)에서는 작년도에 실시될 제반사업을 밀워나오며 재원의 보충에 고심하는 일방 재무과(財務課)에서는 부세의 체납에 대하여 독촉장을 몇번이나 발송하여도 하등 효과가 업고 부세 삼십원 이상의 체납자가 약사 백명이나 되어 금액이 일만오천원에 달하며 삼십원 이하가 약 일천명 금액이 일만팔천원에 달하여 합계 삼만삼천원이란 거액에 달하여 종래와 가튼 미온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금년도 내에 증수할 가망이 업슴으로 삼십원 이상 체납자는 일월삼십일 이내에 완납치 안흐면 조금도 사정업시 차압처분을 단행할 계획인데 동산을 차압하여 금액이 부족하면 부동산까지라도 차압한다 하며 삼십원 이하 체납자도 이월중에는 단호한 처분을 한다고 한다

위 기사는 ‘번농’ 어휘와 더불어 이육사가 종종 사용한 ‘일방’·‘하등’ 어휘도 포함하거나 ‘부동산까지라도’라는 말의 글투도 주목된다. ‘~까지라도’라는 글투는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종종 등장하는바, “普遍的 範疇까지라도”(『자연과학과 유물변증법』), “그의 最後의 希望까지라도”(『황엽전』), “이러한 번역까지라도”(『루쉰 추도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휘와 글투로 보아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까지라도’라는 글투를 고려할 때, 1932년 3월 13일자 대구발 기사「七年間 苦心끄태 寫眞感應液 發見」도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다.

七年間 苦心끄태 寫眞感應液 發見 (『조선일보』 1932.3.13.
 석간 6면)

사진업과 인쇄술에 일대 혁명

大邱 柳珍瑢 君 努力

【大邱】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망 매진하기는 말보다 실체가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에 우리 발명계의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 봉산정 삼철 번지 류진용(大邱鳳山町三七柳珍瑢)(二七) 군은 원적을 경성부외청량리(京城府外淸涼里)에 두고 다년간 사진(寫眞)을 연구하여 오든바 사진에 쓰이는 약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부자유한 점이 만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하고저 동경으로 가려다가 학비와 러비가 업서 대구에 잇스면서 로동을 하여 몇 푼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아 연구자료를 써가며 칠년 동안 적공한 보수로 사진감응액(寫眞感應液)이란 것을 발명하였는데 종래에는 사진을 박은 종판(種板)을 특수한 약품을 칠한 감응지에 대여서 사진을 박게 되였는바 동군이 발명한 이 약품은 조히뿐만 아니라 나무쪽이나 포목쪽**에까지라도** 약을 발고 종판을 대신 후 광선에 **빈지면** 사진이 훌륭하게 낫하나게 되며 암실도 필요 업고 따라 인쇄에 동판이나 연판 가튼 것이 필요가 업게 될 것임으로 세계에는 크다란 혁명이 올 것이며 동군은 이것을 특허종를고지(?) 불원간 원서를 제출한다는바 **군은** 다음과 가티 말한다

처음 이것을 연구하려는 동기는 각 신문에 실리는 사진들이 너무나 희미함으로 엇지면 이것을 사진과 가티 할가 하고 늘 연구하여 본 것입니다 위선 이것만으로도 사진과 인쇄술에는 크다란 변동이 잇을 것입니다만은 아직 더 충분한 연구를 할 것입니다 하여간 특허 수속을 맞쳐 늦코는 동경으로 연구하려 갈가 합니다 하며 **겸손한 태도로 말을 맞친다**

위 기사는 ‘~까지라도’라는 글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빈지면’이라는 말도 나오기에 주목된다. ‘빈지다’는 ‘비치다’의 경북 안동 방언으로 원래 ‘비치다, 번지다, 성가시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니는데,⁵⁴⁾ 이 말은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도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하얀 포말(泡沫)에 번개가 푸르게 빈질 때만은 영롱(玲瓏)하게 빛나는 바다의 일면(一面)”(「질투의 반군성」), “그 곳은 남십자성(南十字星)이 빈저주도 앓았다”(「노정기」), “금화는 거울에 다 눈썹을 찡그려서 한번 빈저보고”(「골목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빈지다’는 이육사가 종종 사용한 특수한 방언이므로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더욱이 기사 결미에 류진용과의 인터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제4절에서 검토한 바 있는 「棉作 倍收計劃으로 沒落되는 慶北 農村」과 「窮況打開策如何 地方人士의 意見(一)」을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여타의 사회·경제 방면의 기사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 방면의 대구발 기사로서 어휘와 글투로 보아 이육사가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기사들은 다음과 같다.

線路에 자든 룬펜 汽車에 치여 죽어 (『조선일보』 1931.8.19.

석간 3면)

가련한 아버 룬펜의 정상

大邱驛 構内の 慘事

【大邱】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풍설보다는 업는 사람에게 잇서 자연의 혜택인 여름이 도라움을 따라 집 업시 표랑하는 룬펜들은 어느 곳에서이나 로숙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곳곳에서 이러나는 희비극을 볼 수 있는데 이 날도 역시 한 사람의 룬펜이 고요한 잠나라로부터 영영 천국의 길을 떠난 비참한 사건이 대구역 구내

54)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 40쪽 각주6 참조.

에서 생겼다 지난 십칠일 오전 룽시경 동역 화물구내에서는 **원종일** 찌는 듯한 더위와 싸우며 먹을 것을 구하려고 **헤메이든** 피곤한 몸을 쉬이려고 선로에서 자고 잇든 부외 달성군달서면비산동(達城郡達西面飛山洞)에 호적을 둔 김경대(金京太)의 장남 을생(乙生)(一八)은 때마침 인부들이 밀고오는 화물차에 치여서 머리가 갈려 무참히 현장에서 즉사하였는데 그의 거태서 자든 그 아버지 김경태는 아들의 최후의 비명에 놀나 속하게 선로 밋호로 몸을 피해야 겨우 죽음을 면하였 다 그들은 여지업는 경제몰락에 쫓겨서 몸하나 용납할 집도 업시 다만 부자가 서로 의지하여 지나다가 결국 의외에 무참하게도 아들마저 일케 된 그 아버의 부르 짓는 **참경이야말로** 참아 볼 수 업다고 한다

위 기사는 짐 없이 표랑하며 노숙하던 룽펜 부자(父子)가 선로에서 잠을 자다 그 아들이 화물차에 치여 죽은 사건을 다루었는데, ‘~헤메이든’·‘참경이야말로’라는 말은 이육사가 종종 사용하는 글투이다. 특히 ‘원종일’의 ‘원’은 ‘은’의 뜻으로 이육사가 종종 사용하던 어휘이다. 이를테면, ‘원조선’(‘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 ‘원 누리’(‘서울’), ‘원몸이’·‘원洞里’·‘원여름’·‘원空中에’(‘황엽전’), ‘원市街는’(‘질투의 반군성’), ‘원몸에’(‘전조기’), ‘원동리’(‘은하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어휘와 글투로 보아 위 기사는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는데, 이육사가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취재 활동을 시작하던 무렵에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通關된 石油를 憲兵隊서 말성(『조선일보』 1931.9.3. 석간 3면)

쏘벳트산입으로 조사한다고

大邱 憲兵隊에서

【大邱】 **원천하**의 자본주의 국가를 진감시킨 경제오개년계획(經濟五個年計劃)이 삼년을 압해두고 거의 성공하고 다시 제이오개년계획을 립안중이란 보도를 루루히 드른 『쏘벳트』 석유의 극동시장 진출은 세인의 주목을 끄으러오든바 대구

에서는 경상(慶尙) 공영(共榮) 량자동차회사가 지난 삼십일 사용에 대하여 완전한 계약을 맞치고 목하 부산(釜山) 창고에 보관중인 이만상자(二萬箱子)가 하로도 속히 관세가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다는바 모든 수속이 다 맞치기까지는 아즉도 일개월 이상의 시일을 요하게 되는바 혹 그 사이에 이때까지 김혼 관계를 맺고 잇든 『스탄다—드』 『라이쎅』 일본 석유등 회사에서 (‘이’가 누락된 듯 - 인용자) 등의 반을 일치 안흐려고 엇더한 저해나 안흘가 하는 우려중 돌연 대구헌병대(大邱憲兵隊)에서는 량회사에 대하여 그것이 『쑤벳트』산의 석유인 까닭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여 전기 량회사에서는 말하기를 그것이 『쑤벳트로시아』의 휘발유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규정한 통관(通關)의 정식 수속을 맞췄는데 그것이 적화선전(赤化宣傳)을 할 리도 업고 품질로 말하여도 발화점(發火點)이 높고 (‘가’가 누락된 듯 - 인용자) 격도 매 상자에 사십전식이나 험하다고 하여 일소에 부친다고 한다

위 기사는 수입한 ‘소비에트 러시아’ 산 석유를 ‘소비에트 러시아’ 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구헌병대가 조사하겠다는 데 대해 그 부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원천하’라는 말도 나오거니와 기사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문체적 특징으로 보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위 기사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및 세계의 정치·경제 상황과 동향을 분석한 이육사의 시사평론에 드러난 ‘소비에트 러시아’ 및 ‘중화소비에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겹친다.⁵⁵⁾

또한 약종상(藥種商) 고도정랑당(高島靜浪堂) 만선배급소(滿鮮配給所)

55) 이를테면, 이육사는 「1935년과 노불관계 전망」에서 노불(露佛) 협약의 성공을 세계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기쁨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소련이 세계 평화의 기여자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깔고 노불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육사의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친연성은 ‘중화소비에트’에 대한 친연성으로 이어진다. 이육사는 「중국의 신국민운동 검토」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경제건설운동을 두고 “다시 말하면 민족산업의 건설발전에 따라 그들의 진영이 강화되면 그 대립물인 ‘중화소비에트’를 타도하는 것이 정직한 목적인 것이다”(홍석표 주해, 『이육사의 중국 평론과 번역』, 소명출판사, 2022, 51쪽)라고 하였는데, ‘중화소비에트’를 긍정하는 시각을 지닌 채 당시 중국 국민정부를 비판하는 서술 태도를 드러내었다.

종업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고발한 1931년 11월 19일자 대구발 기사「大邱高島藥房 從業員盟罷」도 살펴보자.

大邱高島藥房 從業員盟罷 (『조선일보』 1931.11.19. 석간 6면)

【大邱】지난 십이일 아츰 대구부동성정이정목(大邱府東城町二丁目)에 사무소를 둔 약종상 고도정량당 만선배급소(藥種商高島靜浪堂滿鮮配給所)에는 삼십여명의 종업원 중 일부 종업원이 돌연 동맹파업(同盟罷業)을 하였다는데 그 원인은 처음 사람을 쓸때 월급 삼십원을 준다하고 공휴일 제일을 빼고 일원의 일급을 주며 각 농촌에 배급하는데 경영자가 당국에 의뢰하여 각군으로 가서 군에 서는 면으로 면에서는 각동리 면의원의게 촉탁하여 농촌 위생 운운의 아름다운 일함으로 각각 호호에 배급하면 한호에 삼전에 보수를 맞는데 만약 약을 맞지 안코 반환하면 수급원이 일전을 벌금으로 배상하게 되는바 요사이 **농촌의 경제공황이 극도에 달하여** 한집도 약을 쓰지 안코 모다 반환하게 되어 하로 죽도록 도라 단너도 사십집 이상을 못보게 되는데 이십집의 반환배상을 물면 회사를 위하여 증견과 가티 **농촌형제를 착취하여** 주고도 자기네의 수입은 일전도 업게 됨으로 임금을 올려주지 안으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위 기사는 고도정량당 만선배급소의 일부 종업원이 일으킨 동맹파업(同盟罷業)을 다루고 있는데, 약자인 종업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서 검토한 ‘지방시론’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에서 이육사가 ‘종업원들에 공휴일을 주라’라고 호소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위 기사에는 ‘농촌의 경제공황이 극도에 달하여’·‘농촌형제를 착취하여’ 등의 말이 나오는데, 제5절에서 검토한 소작 농민의 참상과 지주의 착취 횡포를 다룬 많은 기사와 내용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1932년 2월 22일자 대구발 기사「酒店、劇場出入에 學生風紀 極度紊亂」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은 흥미로운 기사이다.

酒店、劇場出入에 學生風紀 極度紊亂 (『조선일보』

1932. 2. 22. 석간 3면)

그들이 여자와 술에 랑비하는 돈은 눈물겨운 향촌부로들의 혈한이다
敎務當局 監督 緊要

【大邱】학생들의 풍기 문제는 경향을 물론하고 반사회의 일 커다란 관심거리로 되어있지만은 최근 대구에서는 수만혼 『카페』의 **붉은 등불** **밋치나** **킴킴한 중국 사람의 우동집**이며 **추잡한 맛걸니집** **뒷방까지** 심하면 종로네거리에서 비렬한 유행 창가를 부르며 술이 취해야 걸핏하면 행인에게 싸흠까지 하는 학생패들이 만히 늘어 학교당국이 감독에 고심하는 보람도 업시 일반사회는 그들의 해괴한 거동에 놀나지 않는 사람이 업는 중 지난 십구일 밤에도 시내 모중등학교의 학생 오륙명이 모극장에 몰려들어 공중의 도덕을 무시하고 출입할 때 말도 업시 관객을 타넘어 다니며 구경은 기생들의 일흠을 소리를 높혀 부르며 그 수효도 교실에서 배우는 영어 『스펠』보다는 더 만히 아는 모양인데 심한 자들은 그중 나어리고 어엿분 기생이 잇스면 주소성명을 기록하여 두엇다가 다음 서신을 보내던지 방문을 하는 등 그들의 방약무인한 태도에는 모다 혀를 굴린다는바 대개 그들의 가정을 조사하여 보면 향촌의 **기근지대(飢饉地帶)**에서 부모들은 경제공황에 하로 몇푼의 생활비를 가지고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여 가며 그래도 장래 희망을 바라고 농우(農牛)까지 팔어가며 학비를 보내는 것이 대다수라고 하며 아모리 시대의 추이와 조선의 중학생은 일반적으로 연령이 만흠으로 다소 용인한다고 하여도 기개 악분자로 말미암아 선량한 학생들까지 버리게 되는데는 학무당국도 너무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반이 그 성의를 의심한다고 한다

위 기사에 나오는 ‘**붉은 등불** **밋치나** **킴킴한 중국사람의 우동집**이며 **추잡한 맛걸니집** **뒷방까지** 심하면 종로네거리에서 비렬한 유행 창가를 부르며 술이 취해야 걸핏하면 행인에게 싸흠까지 하는 학생패’에 대한 묘사는 이육사와 『중외일보』 대구지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갑기(李甲基)가 연재한 만

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갑기가 그린, 1931년 1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漫畵-昨今の社會相 9, 한봉 팔아주세요!!」라는 제목의 만화에는 “시골서는 부모가 피땀을 흘리면서 부쳐준 학비로 계집을 데리고서 카페로 돌아다니는 ‘땀뺀라 학생’, 신분증명서와 약봉지를 가지고서 학비를 구하는 고학생에게 다 들켜서 조금도 창피한 일이 업슬가, 그래도 술먹을 돈과 계집에게 줄 돈은 있어도 동무 학비에 한 푼 보태줄 돈은 업단다오.”⁵⁶⁾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다. 위 기사의 ‘학생패’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이갑기의 만화에 나오는 설명 부분과 겹친다. 그리고 위 기사의 ‘학생패’의 묘사는 이육사의 시 「실제(失題)」에 나오는 “행랑뒤골목 휘젓한 상술집엔/ 팔너온 冷害地處 女를 둘러싸고/ 大學生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思想善導의 염탐밧헤 떨고 만있다”라는 시구의 ‘대학생’에 대한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위 기사에 나오는 ‘기근지대’·‘초근목피’라는 어휘는 다음의 1932년 3월 5일자 대구발 기사 「謀利輩의 毒手에 賣買되는 娘子群」에도 등장하는 바 이들 기사는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謀利輩의 毒手에 賣買되는 娘子群 (『조선일보』 1932.3.5. 석간 7면)

【기근지대로 다니며 헐가로 사가】

高利業者도 裡面 蠢動

【大邱】최근 각지 **농촌이 파멸**되고 잇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는 것이지만은 경북봉화(慶北奉化) 일대의 **초근목피**로 생명을 이어가는 궁민 일천사백여호 사천여명에 달하는 인구는 먹고살길을 찾고저 **도회로도회로 류리**하는 현상인데 그 중에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순진한 처녀들의 도회지의 술집으로 흘러나와 작부 노릇을 하며 마음에 업는 사나회들에게 우습을 팔며 **소리업는 눈물을 흘리는 형편**

56) 李甲基, 「漫畵 - 昨今の社會相 9, 한봉 팔아주세요!!」, 『동아일보』 1931.1.21.

이며 소위 만몽신국가(滿蒙新國家)가 건설된다고 리권을 차저 도라다니는 모리 배들과 인육상들이 **고근지대**에 다수히 침입하여 그들 량자군을 꺾여 혈가로 사가는 형편이며 인신매매의 중개인으로는 **악착**한 고리대금업자들이 성히 발호하는 **참담한 현상**이라고 한다

위 기사는 도회지로 유리하여 작부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농촌 처녀들의 ‘참담한’ 형편과 인신매매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악착한 고리대금업자를 고발하고 있는데, ‘초근목피’·‘기근지대’라는 어휘도 나오거니와 ‘도회로도 회로’라는 말도 주목된다. ‘도회로도회로’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도회’를 반복하는 이러한 글투는, 앞서 검토한 「滿洲事變에 쫓긴 歸還同胞의 哀話」에 나오는 “그때부터는 그들은 촌촌이 나아가며 음흉한 중국 지주들의 가진 학대를 밟아가며”라는 문장에서 ‘촌촌이’(마을로마을로 - 인용자)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수필 「창공에 그리는 마음」에 나오는 “시골로시골로 떠나고 만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악착’이라는 어휘는 앞서 검토한 「慶北道內 立稻差押 昨年에 五百餘件」에도 등장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위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이육사가 주로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다고 할 때, 조운대구지점(朝運大邱支店)의 중업노동자의 대량 해고와 관련된 1932년 3월 2일자 대구발 기사 「運賃 引下로의 赤字補填策」도 기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아 그리고 ‘하등’이라는 어휘도 포함하고 있어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運賃 引下로의 赤字補填策 (『조선일보』 1932.3.2. 석간 7면)

二百日給勞動者를 着着 解雇시킬터

【大邱】조운대구지점(朝運大邱支店)에는 대구도매상조합으로부터 하물의 운임을 인하할 것과 하물의 취급방법을 개선하여야 달라고 요망하고 만약 불응하면

도매상조합의 전속운송점을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요구를 하였는바 조운지점은 운임을 부득이 인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적자(赤字)를 보전키 위하여 제이차의 종업원정리를 단행하기로 한 모양인데 금번은 사원급은 정리치 안코 로동자 급만 정리케 된다는바 동대구지점에 현재 매일 평균 사역하고 잇는 로동자는 사백명으로부터 사백오십명의 다수에 달하며 모다 일급 로동자로서 대구로동회 소속인데 하로 임금이 평균 약 팔십전이며 총액 이백원이고 일개월은 육천원의 다액을 지출케되는바 운임 인하 직후 재정리를 행하고 또다시 종래의 제도를 근처 일급을 상고(常雇)로 개정할 모양이며 정리의 정도 기타에 대하여는 아즉 비밀에 부치나 임금도 현재와는 경제장이 비교적 조홀 때 쌍방이 협정한 것임으로 이점도 대개혁을 하여 일할 내지 일할오분 쯤하고 종업로동자 현재의 반수를 감하여야 이로 잇는 일개월 삼백삼십여원의 돈으로 운임인하의 한 손해를 보충하게 됴므로 만난을 배제하고 단행할 모양이라는바 대구 로동회에 대하여는 아즉 **하등** 상의도 업섯다 하며 말경 해고를 당한 후면 불경기시대에 이만한 대량실업자의 무리는 용이히 흡수할 만한 곳이 업슴으로 사태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또한 ‘궁농의 사활문제’로서 잠전 생산자를 위한 자유판매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1932년 3월 11일자 대구발 기사「慶北 養蠶聯盟 代表 自由販賣制를 陳情」도 어휘나 글투로 보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慶北 養蠶聯盟 代表 自由販賣制를 陳情 (『조선일보』

1932. 3. 11. 석간 6면)

총독부와 상의한다고 답변

共販制는 蠶業을 衰頹

【大邱】경상북도 평의회는 팔일 오후에 막을 닦었는데 금년의 각 의원으로부터의 요망은 이구동성으로 잠전공동판매(蠶繭共同販賣)의 **악제도**를 철폐하고 단연코 생산자인 농민을 구제키 위하여 자유판매제도를 실시하여 달라는 소리가 높

햇슴으로 이에 힘을 얻은 경북양잠가련맹(慶北養蠶家聯盟)에서 팔일 아침 도당국의 간부를 방문하고 이 문제는 적어도 지방 **공농의 생활문제**(전체적으로 보아)를 좌우하는 것이니 될 수 있는 대로 자유판매케 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는바 도로서도 이 문제는 스사로가 해결할 수 업스니 본부와 상의만은 하야보겠다는 **어름어름한 답변**을 하였슴으로 춘잠기를 압둔 경북양잠계는 아즉까지는 도저히 락관할 수 업슬 뿐 아니라 금후라도 이 문제를 해결치 안으면 제사가와 중간상인의 배를 채울 뿐이지 절대로 생산자를 리롭게 할 수 업는이만치 양잠계 전체가 쇠퇴 하야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특히 위 기사에 나오는 ‘어름어름’이라는 어휘는 주목할 만하다. ‘어름어름’은 말이나 행동을 똑똑하게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하다’ 또는 ‘일을 대충 하고 눈을 속여 넘기다’의 뜻을 지닌 말인데, 이것은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서 “회사의 태도는 미명(未明)도 되기 전에 중재는 어름어름하고 파업은 터졌다”(「공인 ‘갱’ 단 중국 청방 비사 소고」)라는 문장으로, “나는 처음 이 農夫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어름어름하였소”(「문외한의 수첩」)라는 문장으로, “이렇게 어색하고 어름어름한답니다”· “그는 황송해서 어름어름하다가”(「고향」)라는 문장으로 등장한다.

7. ‘가가(假家)’살이 ‘궁민(窮民)’의 철퇴와 관련된 기사

『조선일보』대구발 기사 중에서 대구 동문시장의 ‘가가(假家)’살이 ‘궁민(窮民)’들이 대구부(大邱府) 당국의 철거 명령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사건을 다룬 기사도 주목할 만하다. 1932년 1월 10일자 기사「大邱東門市場의 假家主 撤退 不應」, 1932년 3월 27일자 기사「都市計劃에 犠牲되어 放逐될 東門市場 窮民」, 1932년 4월 8일자 기사「市場 假家住民 撤退를 強迫」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사는 ‘가가(假家)’라는 어휘를 공유하고 있는데, ‘가가’라는 말은 이육사의 여타의 글에 종종 등장한다. 이를테면, “M은 너거

리의 담배가가에서 조간신문을 사서 들고”(「루선 추도문」)라는 문장에, “문밖 저편 골목에 두붓집 가가에서 온종일 앉아 있는 양씨마누라라는 이가 분명 있었다”(「루고향」)라는 문장에 등장한다. 이들 문장에 등장하는 ‘가가’는 모두 ‘가게’를 뜻하는데, 원래 한자어 ‘가가(假家)’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임시로 지어 장사 하던 건물을 지칭한다. 기사「大邱 東門市場의 假家主 撤退 不應」은 “대구 동문시장(東門市場)의 가가(賈家)살이 하는 궁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가가’ 다음에 한자 ‘賈家’(고가)를 더해놓았으니 ‘가가’가 임시로 지은 건물이지만 ‘가게’를 뜻한다는 점을 부연해놓은 것이다. 이는 이 기사의 작성자가 ‘가가(假家)’를 ‘가게’의 의미로 사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가가(假家)’는 임시로 지은 건물에서 유래된 ‘가게’를 가리키는바 「루선 추도문」과 「고향」 번역문에도 나온다는 점, 도시의 ‘가가’ ‘궁민’의 절박한 처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구 동문시장의 ‘가가’살이 ‘궁민’의 철퇴에 관한 기사도 이육사가 작성했을 개연성이 높다.

대구 동문시장 ‘가가’살이 궁민의 철퇴 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大邱 東門市場의 假家主 撤退 不應 (『조선일보』 1932. 1. 10.
석간 2면)

세금까지 납세도 하여 왔다고

總督에까지 陳情

【大邱】대구 동문시장(東門市場)의 가가(賈家)살이 하는 궁민 이십삼호에 대하여 대구부에서는 문화도시의 체면상 조치못하다고 철퇴명령을 내렸다함은 이미 보도한 바이어니와 요지음 그 대표 조규찬(曹奎瓚) 외 이십이 명은 이에 불응하여 우원총독(宇垣總督)과 대구부윤 김경북지사(金慶北知事)에게 진정서(陳情書)를 제출하였는바 그 대의는 그들은 거금 팔년 전부터 대구부 동문시장에 부청으로부터 건축한 가가에 사용허가를 어더 가장 명성한 로점을 경영하며 가가 한

체에 대하여 설비한가액 이십원식을 매월 이원식 료개월만에 완납하고 그후는 지세(地稅)로 매일 오전(장날은 십전)을 오늘까지 위반 업시 부청에 납입하며 혹은 방을 만들고 혹은 전방을 내어 무수한 돈을 들여 오며 서로 매매도 하여 지금은 집 한채에 칠팔십원으로부터 백여원의 금전을 드려 생활하여 오든 것을 쫓겨갈 만한 곳도 업시 집을 수선한 금전도 보상치안코 호주들에게 강제로 삼월말일까지 철회하겠다는 날인(捺印)을 밧엇슴으로 이십삼호 팔십여명의 **남녀로유**가 가두에 방황하게 되었스니 어떤 선후책을 강구하여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하략

위 기사에는 ‘가가’라는 어휘 이외도 ‘거금(距今)’이라는 어휘도 나오는데, ‘거금’은 ‘지금에 기준으로 지나간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의 뜻을 지닌 한자어이다. 이 ‘거금’이라는 말은 위 기사에 이어 4일 뒤 이육사가 기명으로 발표한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에서 “거금 이백칠십사년 전부터 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라는 문장으로도 등장한다. 또한 위 기사에 나오는 ‘령성(零星)’은 ‘보잘것없음’을 뜻하는 한자어인데, 이 말은 「대구사회단체 개관」에서 “臨席警官과 集合會員의 數조가 거의 比等할 만한 零星한 狀態로서”라는 문장으로도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위 기사에 ‘이미 보도한 바’라는 말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위 기사 이전에 동일 사건을 다룬 기사가 이미 『조선일보』에 실렸음을 시사하는데, 그것은 1931년 12월 1일자 대구발 기사 「大邱南門市場 貧民三十戶撤去슴」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건설을 위하여 철거 명령/大都市建設의 犠牲者

【大邱】대구부(大邱府)에서는 오래동안 현안중이든 대대구건설계획(大邱建設計劃)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내 남문시장(南門市場) 십이간 도로 한편에 있는 차가(借家) 궁민 삼십호를 철거하라고 몇 차례나 관계자를 불러 명령하였스나 그들의 생활은 집을 어더 나갈 형편이 못되어 철회를 못하였는데 일전에는 부청

으로부터 명년 삼월말일까지에 전부 철거하라는 최후의 명령이 나렸스니 이들 궁민들은 문화도시의 희생자들이다. 대도시건설이 시대의 요구라면 고맙기도 하나 부청으로부터 어느 다른 곳에 퇴거할 만한 장소도 업시 돈업는 빈민들에게 이 엄동을 압두고 이가튼 명령을 하는데 대하여 원성이 자자하다 한다.⁵⁷⁾

위 기사에는 ‘차가(借家)·‘남문시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가·‘남문시장’이 이후 동일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가가(假家)·‘동문시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위 기사는 다른 기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위 기사를 다른 기사가 작성한 것이라면, 이육사는 이를 이어받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都市計劃에 犠牲되어 放逐될 東門市場 窮民 (『조선일보』
1932. 3. 27. 석간 6면)

돈 주고 샀다고 나가지 안코
부에서는 모른다고 내모라
將來의 風波는 難免

【大邱】대구부에서는 년래의 현안인 대대구를 건설한다고 시내동문시장(市內東門市場) 안에 있는 **가가(假家)**살이 궁민 이십칠호 백이십여명의게 삼월말일까지 단연 철거하라는 명령을 나리고 만약 듣지 않는 사람의게는 강제로 축출한다 명령을 나렸다함은 본보에 **투차 보도한** 바이어니와 그사이 쫓겨서도 갈곳이 업는 그들 궁민들은 몇 차례나 부당국과 경북도지사의게 진정서도 제출하여 보았는데 **하등** 반향이 업슬 뿐 아니라 인제는 벌써 쫓겨나갈 날자도 일주일밖에 남지 안엇스나 갈곳업는 그들은 집을 비워줄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금번 부의회(府議會)에 행하나 무슨 것분 소식이 잇을가 해야 기다렸스나 도리혀 부의원들까지도 그들을 방축

57) 「大邱南門市場 貧民三十戶撤去令」, 『조선일보』 1931. 12. 1.

하는 것을 주창할 뿐이며 부당국의 의사도 아조 결정적인 모양임으로 당일은 무슨
풍파라도 일어나지 않을가 하여 일반은 매우 주목중이라고 한다

權力の 抑壓은 너무 억울하오

放逐 當할 某氏 談

이들 **가가**에 들었있는 궁민중 모씨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곳 나가라고 하지만은
나갈 곳이 잇서야 나가지요 또 무조건하고 나가라고 하지요만은 우리들은그 보
잘것업는 집 한칸에 푼푼이 모은 돈을 칠팔십원 내지 백오륙십원씩 주고 매매한
것입니다 부에서 만약 그돈을 반식이라도 배상하여 주고 나가라면 그래도 모르
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억압한들 이것은 너무나 무리하지 안습니**가운운**

情勢는 **可矜** 某府會議員 談

부의원 모씨는 도시계획에 희생되어 부득이 방축되지 안으면 안될 형편에 노혀
잇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못는** 기자의게 다음과 가티 말하였다

물론 딱한 사정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그들도 비워주지 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드르면 서로 매매한 (‘것’이 누락된 듯 - 인용자)도 사실이나 한사
람도 부당국과 직접 매매한 것이 안니고 모다 그들 서로서로가 매매한 것이니
가요**운운**

위 기사에는 ‘루차 보도한 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보도한 동일
기사의 작성자가 위 기사를 작성한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이 위 기사는 이육
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타의 기사에 종종 등장하는 ‘하등’·‘가궁
(可矜)’이라는 어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가’의 모 궁민과의 인터뷰 내
용 및 모 부회(府會)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이육사가 작성
한 기사의 형식적 특징을 공유한다.

市場 假家住民 撤退를 強迫 (『조선일보』 1932. 4. 8. 석간 7면)

주민은 이전료 내이라고 요구

大邱府 當局 態度 強硬

【大邱】대구부에서 건설한 동문시장(東門市場)의 **가가(假家)** 주민 이십삼호 백 삼십여명에 대하여 부당국에서는 삼월말일을 기한으로 철퇴명령을 내렸다함은 임이 **루보한 바이어니**와 그 기일이 삼월말일이나 가가 주민들을(‘을’은 ‘은’의 오 식인 듯 - 인용자) 자기네가 여러해 동안 최하 팔십원 내지 이백여원의 돈을 드려 개축한 집이니 이전료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철퇴할 수 없다 하여 강경히 거절하는 중인데 부당국자는 금번에 철퇴료를 준다면 금후의 레가 되겠슴으로 줄 수 없다 하여 만약 최후까지 듯지 안을 때는 단연 강제적으로라도 철퇴식히겠다 하여 쌍방의 태도는 각각 **침예화**하여 잇는 만큼 장래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위 기사에도 ‘루보한 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동문시장 가가’와 관련된 기사를 동일인이 작성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위 기사에는 ‘침예화’라는 말도 등장한다.

그런데 대구 동문시장 ‘가가’살이 ‘궁민’의 철퇴 사건을 다룬 또 다른 대구 발 기사가 1932년 5월 5일자 『조선일보』에 「大邱東門 土幕民 갈곳이 어대인가」라는 제목으로 실렸다는 점에 주목해보자. 앞서 예거한 기사에 나오는 ‘가가’ ‘궁민’이라는 말이 이 기사에서는 ‘토막민(土幕民)’으로 바뀌고 기사의 문체상의 특징도 크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邱】오래전부터 당국과 문체되어오든 대구동문시장(大邱東門市場) 안에 갈곳이 업서서 토막을 지어 가지고 몸을 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잇섯다. 부당국에서는 이것의 철거를 요구한지 오래였스나 갈곳이 업는 그들은 이에 응할 수 업서 일이 되어 나가는 형편만 보고 잇섯다. 그후 여러 번 독촉을 맞고도 오히려 쓰린

가슴을 썩히며 가면서 견대여 나오든 그들도 하는 수 업시 부에서 주는 매호당 십 원이라는 이전비를 맞고 오는 이십일과 이십일일에 전부 퇴거를 하는 중이나 그들의 갈 길은 막연하다 한다.⁵⁸⁾

위 기사는 동일 사건을 다룬 이전의 기사와 비교하여 어휘나 문체가 크게 달라져 있는데, 이는 작성자가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이육사가 1932년 3월에 『조선일보』를 퇴사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 기사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니까 ‘가가’ ‘궁민’의 철퇴 사건을 다루어오던 이육사가 퇴사한 이후 다른 기자가 그 사건의 최후 보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예거한 ‘가가’ ‘궁민’을 다룬 세 기사가 모두 동일인, 즉 이육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면, 그중 하나인 1932년 4월 8일자 기사「都市計劃에 犠牲되어 放逐될 東門市場 窮民」도 이육사가 작성한 것이기에, 이육사는 적어도 4월 초순까지 기사를 발표한 셈이다. 이육사는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대구지국을 퇴사하고 4월 말에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 1932년 4월 8일자의 「市場 假家住民 撤退를 強迫」이라는 기사 이후 동년 12월까지 『조선일보』의 대구발 기사 중에서 ‘가가(假家)’라는 어휘를 포함하는 기사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그 신빙성을 더해준다.

8. 맺음말

지금까지 이육사가 군사정기간부학교에 입교하기 이전 그의 사상을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그리고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 재직하고 있을 때 ‘폭풍 같은 나의 생활’로 표현한 그의 언론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그가 기명으로 발표한 ‘지방시론’ 1편을 새롭게 발굴하는 한편 그가 작

58) 「大邱東門 土幕民 갈곳이 어대인가」, 『조선일보』 1932.5.5.

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명의 다양한 대구발 기사를 세밀하게 조사 검토하였다. 그 시기 『조선일보』에 게재된 무기명의 대구발 기사를, 이미 확인된 이육사의 기명 기사와 새로 찾은 ‘대구지국 이활’이 쓴 ‘지방시론’을 비롯하여 여타의 이육사 작품(시, 수필, 평론, 번역)과 상호텍스트적 관점에서 비교하여 기사의 내용, 어휘, 글투, 문체상의 특징 면에서 공통점(무기명 기사의 상호 공통점도 포함)을 지닌 기사 49편을 판별하고 그것이 이육사가 작성한 것임을 추정해보았다.

이육사의 기명 기사(기존에 확인된 기명 기사 포함) 및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무기명 기사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	기사 제목	게재 날짜	작성자
1	線路에 자든 룼펜 汽車에 치어 죽어	『조선일보』 1931.8.19	무기명
2	通關된 石油를 憲兵隊서 말성	『조선일보』 1931.9.3	무기명
3	大邱府營 屺쓰運轉手들 動搖	『조선일보』 1931.9.6	무기명
4	慶北의 稻作 平年作은 絶望	『조선일보』 1931.9.7	무기명
5	無理無雙한 慶北道內 小作條件	『조선일보』 1931.9.15	무기명
6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 (지방시론)	『조선일보』 1931.9.20	大邱支局 一記者
7	讀者 慰安의 拾栗大會 開催	『조선일보』 1931.10.9	大邱支局主催
8	立稻差押等 手續 大邱에 三千餘	『조선일보』 1931.10.15	무기명
9	滿洲事變에 쫓긴 歸還同胞의 哀話	『조선일보』 1931.10.22	무기명
10	棉作 倍收計劃으로 沒落되는 慶北 農村	『조선일보』 1931.10.25	무기명
11	小作料 過徵으로 作人 立稻不刈	『조선일보』 1931.11.10	무기명
12	四百作人 結束해 作料不納同盟 組織	『조선일보』 1931.11.18	무기명
13	大邱 高島藥房 從業員盟罷	『조선일보』 1931.11.19	무기명

14	遊亂民 十七名 大邱驛에 下車	『조선일보』 1931. 12. 1	무기명
15	金圃洞小作人 賭租내니 糧米업서	『조선일보』 1931. 12. 2	무기명
16	慶北 十個所에서 小作人 結束 蹴起	『조선일보』 1931. 12. 4	무기명
17	慶北 各地 小作問題 三百地主 相對 抗爭	『조선일보』 1931. 12. 5	무기명
18	牛價大暴落	『조선일보』 1931. 12. 9	무기명
19	地主側 課稅負擔을 各區長, 郡에 陳情	『조선일보』 1931. 12. 15	무기명
20	高靈郡內 小作人 不耕同盟과 立毛爭議	『조선일보』 1931. 12. 18	무기명
21	大邱藥令	『조선일보』 1931. 12. 18	무기명
22	窮況打開策如何 地方人士의 意見(一)	『조선일보』 1932. 1. 1	무기명
23	穀價騰勢를 憑藉하고 酒價 三割이나 引上	『조선일보』 1932. 1. 10	무기명
24	大邱 東門市場의 假家主 撤退 不應	『조선일보』 1932. 1. 10	무기명
25	大阪 纖維工業의 朝鮮 進出 具體化	『조선일보』 1932. 1. 12	무기명
26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	『조선일보』 1932. 1. 14 · 16 · 20 · 26	大邱支局 肉寫生 (기존에 확인된 기명 기사)
27	大邱 酒價의 引上을 取消	『조선일보』 1932. 1. 19	무기명
28	小作權 移動 證書로 賭租斗稅를 威脅強徵	『조선일보』 1932. 1. 31	무기명
29	賦稅滯納者에 差押을 斷行	『조선일보』 1932. 2. 2	무기명
30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 ('지방시론')	『조선일보』 1932. 2. 4	大邱支局 李活 (새로 찾은 기명 기사)
31	無理한 作權移動으로 小作農民 流離彷徨	『조선일보』 1932. 2. 16	무기명
32	脫退 宣言하고 自治制 券番 組織?	『조선일보』 1932. 2. 21	무기명
33	酒店, 劇場出入에 學生風紀 極度紊亂	『조선일보』 1932. 2. 22	무기명

34	慶北道內 立稻差押 昨年 五百餘件	『조선일보』 1932. 2. 27	무기명
35	運賃 引下로의 赤字補填策	『조선일보』 1932. 3. 2	무기명
36	復活한 歷史의 國技 장競技 第一大會	『조선일보』 1932. 3. 4	무기명
37	謀利輩의 毒手에 賣買되는 娘子群	『조선일보』 1932. 3. 5	무기명
38	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	『조선일보』 1932. 3. 6 · 9	大邱支局 李活 (기존에 확인된 기명 기사)
39	本報支局 後援의 장競技大會 延期	『조선일보』 1932. 3. 8	무기명
40	慶北 養蠶聯盟 代表 自由販賣制를 陳情	『조선일보』 1932. 3. 11	무기명
41	大邱 장競技大會 十二日에 舉行	『조선일보』 1932. 3. 11	무기명
42	七年間 苦心쓰태 寫眞感應液 發見	『조선일보』 1932. 3. 13	무기명
43	大邱 『장』競技大會의 白熱化한 競技光景(上)과 優勝한 啓聖軍口(雄?)姿(下)	『조선일보』 1932. 3. 15	무기명
44	第一回 『장』競技會 盛況裡에 終幕	『조선일보』 1932. 3. 15	무기명
45	大量으로 作權을 異動	『조선일보』 1932. 3. 16	무기명
46	改造社 懸賞小說에 張君이 首位로 當選	『조선일보』 1932. 3. 18	무기명
47	慶北 警官增員 年度初에 實現	『조선일보』 1932. 3. 20	무기명
48	慶北 小作法規 道當局 發令?	『조선일보』 1932. 3. 23	무기명
49	都市計劃에 犧牲되어 放逐될 東門市場 窮民	『조선일보』 1932. 3. 27	무기명
50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가이조사 입선 「아귀도」 작가	『조선일보』 1932. 3. 29	大邱에서 李活 (기존에 확인된 기명 기사)
51	慶北道 農會費 滯納 一萬八千餘圓	『조선일보』 1932. 3. 29	무기명
52	花園線 빠쓰는 積極의 阻止	『조선일보』 1932. 4. 6	무기명
53	市場 假家住民 撤退를 強迫	『조선일보』 1932. 4. 8	무기명

이상의 목록에서 보듯이 「대구의 자랑 약령시의 유래」, 「대구 장연구회 창립을 보고서」, 「신진작가 장혁주 군 방문기 - 가이조사 입선 「아귀도」 작가」,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은 기명 기사로 발표되었고, 그 나머지는 모두 무기명 기사로 발표되었다. 이육사는 자신의 심층적인 취재와 연구·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상당한 편폭으로 서술한 기사는 대체로 기명으로 발표했고, 지방 뉴스의 성격을 지닌 사실 보도의 기사는 대체로 무기명으로 발표했다. 다만 이육사가 동일한 ‘지방시론’인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은 기명으로 발표하고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는 무기명으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 「慶北 釀造業者들게 與함」은 양조업계 종업원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분석하면서 양조업자의 횡포를 고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호소력 있게 표명하기 위해 기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짐작되며, 「收穫期를 압두고 地主들에게」는 지주 계급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무기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검토한 기사를 종합할 때, 이육사는 주로 사회·경제 방면의 사건을 담당하여 취재 활동을 하며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대구·경북 지역의 피폐한 농업·경제 상황과 일반 민중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 나아가 대구의 자랑거리나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파멸의 농촌 현실과 소작 농민의 비참한 처지, 양조업계 종업원·가가(假家)살이 궁민 등 도시 근로자와 빈민의 궁박한 상황, 만주에서 쫓겨난 피난 동포의 불쌍한 형편 등, 일제(日帝) 치하 고통받는 일반 민중의 참상과 그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더욱이 그는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소작농과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도하는 데도 주력했다. 그의 이러한 취재 활동과 기사 작성의 실천은 나중에 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시야를 넓혀 중국과 세계의 정치·사회·경제 상황과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시사평론을 집필하고 중국의 문예 작품을 비평·번역하게 된 사상의 토대가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테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동원해 장제스(蔣介石) 국민정부 하의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 문화 전반을 예리한 비판적 관점에서 밀도 있게 분석 비평한 「위기에 임한 중국 정국의 전망」· 「중국 청방 비사 소고」· 「중국 농촌의 현상」 등의 시사 평론을 집필하고, 황폐화한 중국 농촌 현실을 ‘리얼’하게 묘사한 루쉰(魯迅)의 단편소설 「고향」을 번역하고, 윤락녀 ‘금화(金華)’라는 인물을 통해 도시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을 묘사한 만주(滿洲) 작가 구딩(古丁)의 단편소설 「골목안」을 번역한 것도 그의 이러한 취재 활동과 기사 작성의 사회적 실천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 기사는 이후 이육사가 발표한 작품에 등장하는 어휘와 글투 등 언어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이육사 문학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다.

더욱이 이육사의 사상을 논할 때, 그 형성 과정으로서 1930년 2월부터 1932년 3월까지 『중외일보』 및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로서 ‘폭풍 같은 생활’을 이어간 그의 언론 활동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사실 그동안 이육사의 사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짧은 일본 유학 시기에 아나키스트 모임인 흑우회(黑友會)와 관계를 맺었다는 증언에 근거해 그의 아나키즘 사상 경향을 논의하거나 의열단과의 관계 및 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 등과 연계하여 그의 사회주의 사상 경향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는 이육사의 사상을 증언이나 외부 상황만으로 가늠한 것이라 구체성과 실제성이 박약한 결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제 이육사가 작성한 기사와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기사가 새롭게 확인됨으로써 그의 사상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기사는 이육사의 사상이 단순히 특정한 사회이론이나 정치이념을 추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곧바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이육사는 당시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접근해 민족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부조리 관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실천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나간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사상은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삶의 현장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단련되고 강화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육사의 사상을,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특정한 정치이념의 틀

로 단순화시켜 논의하기보다, 그가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삶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어떻게 자신의 사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그 시대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의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 그의 문학(시)으로 하여금 동정과 연민의 보편적 인간애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예술형식을 동원해 저항의 진정성과 견결성을 구현할 수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육사는 그 누구보다도 구체적인 민족의 현실과 민중들의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당시의 절망적 현실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무지개' 꿈을 찾아 '문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새로 찾은, 이육사의 기명 기사 및 이육사의 글로 추정되는 다양한 무기명 기사들은 그 시기 이육사의 시대 인식과 현실 의식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바, 어느 작가라도 자신이 쓴 글에 의해 자신으로서 정립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육사의 사상의 기원을 밝혀줄 수 있다. 더욱이 이 글은 개별 기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어휘, 방언, 문법, 의미, 문체, 글의 구조적 특징 등 이육사의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향후 이육사의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와 정리를 촉진하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 참고문헌

- 「主要都市巡迴座談 12: 第三 大邱篇(一)」, 『동아일보』 1930.9.30.
- 李甲基, 「漫畫-昨今の 社會相 9, 한봉 팔아주세요!!」, 『동아일보』 1931.1.21.
- 「作人の 要求대로 小作料를 輕減」, 『동아일보』 1931.11.25.
- 「電料減下運動 十名委員에 一任」, 『동아일보』 1931.6.26.
- 「大邱南門市場 貧民三十戶撤去令」, 『조선일보』 1931.12.1.
- 「大邱東門 土幕民 갈곳이 어대인가」, 『조선일보』 1932.5.5.
- 「小作人對抗고자 地主團體組織」, 『조선일보』 1932.5.5.
- 「慘憺한 農村 窮迫한 現實相」, 『조선일보』 1932.6.16.
- 「朝鮮 商工業의 現狀과 그 兩建工作의 具體的 方法」, 『동아일보』 1935.1.15.
- 『形象』 2月創刊號, 新興文化社, 1934.2.
- 『形象』 3月第2號, 新興文化社, 1934.3.
- 손병희 편저, 『이육사의 문학 - 이육사전집 I』, 안동:이육사문학관, 2017.
-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0·31』, 果川: 國史編纂委員會, 1997.
- 홍석표 주해, 『이육사의 중국 평론과 번역』, 서울: 소명출판사, 2022.
- 이성우,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7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 홍석표, 「이육사의 『중외일보』 기자 시기의 언론 활동과 고향 상실의 문학적 모티프」, 『상허학보』 64집, 상허학회, 2022.
-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본문에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는 참고문헌에서 생략했는데, 이들 목록은 맺음말에 나오는 도표를 참조하기 바람.

The origins of Yi Yook-sa's thought

- Focusing on newly discovered articles of Yi Yook-sa during his time as a reporter for the Chosun Ilbo -

Hong, Seukpyo*

In order to substantively grasp Yi Yook-sa's thought before he entered the Military Political Cadre School, and to specifically verify the journalistic activities he described as "my stormy life" when he was a reporter in the Daegu bureau of the Chosun Ilbo, this article discovered one newly published article under his pseudonym and examined in detail various unidentified Daegu articles that he is believed to have written. By intertextually comparing various unsigned Daegu articles from the period with other Yi Yook-sa's works (poems, essays, reviews, and translations), including those already known to have been written by Yi Yook-sa, and the newly discovered article attributed to 'the Daegu bureau of the Chosun Ilbo', we identified 49 articles with commonalities in terms of content, vocabulary, writing style, and inferred that they were written by Yi Yook-sa. Yi Yook-sa was a reporter in the Daegu bureau of the Chosun Ilbo, primarily covering social and economic events, and he wrote articles in which he reported in-depth on the devastated agricultur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Daegu-Gyeongbuk region and the poor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as well as events that boosted Daegu's pride or national pride. Specifically, he focused on the plight of the common people suffering under Japanese rule and their poor living conditions, including the ruined rural reality and the miserable conditions of small farmers, the plight

* Ewha Womans University, Th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Professor

of urban workers and the poor, including brewery employees and those who were homeless, and the pitiful conditions of refugee compatriots driven out of Manchuria. Furthermore, he was sensi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owners and peasants, and between capitalists and workers, and focused on reporting on the poor working conditions of peasants and workers. These reporting activities and the practice of writing articles laid the foundation for his thought and consciousness, which later broadened his horizons after he graduated from the Military Political Cadre School and returned Home, where he wrote current affairs commentaries that analyzed in-depth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trends in China and the world, and critiqued and translated Chinese literary works. These articles confirm that Yi Yook-sa's thought and consciousness were not formed by simply adopting abstract theories or ideologies. By approaching the reality of the nation and the lives of the people, Yi Yook-sa actually graspe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of the nation and society, and shaped his thought and consciousness in various social practices. As such, the newly discovered articles of Yi Yook-sa are the best representation of Yi Yook-sa's perception of the times and reality, revealing the origins of his thought and consciousness.

Key words : Yi Yook-sa, the Chosun Ilbo, newly discovered articles, the reality of the natio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origins of thought